



1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1호

(루계 483)



◆◆◆◆◆◆◆◆◆◆ 차 례 ◆◆◆◆◆◆◆◆◆◆

소원	4
언제나 함께 계시는 김일성 주석	5
새해 첫 아침에 부르는 노래	6
삼지연 기슭에서	7
천리길, 만리길우에	8
사랑하는 내 조국	8
과쟁에 대한 준렬한 단죄, 웃음속에서 밝혀진 력사의 교훈	9
산촌의 새 전설	14
길을 쓰네	25
해쫓는 언덕에서 (외 1 편)	26
력 사	26
명제해설	27
3 대혁명전위들에 대한 노래	28
평양역을 떠나며	30
내가 생각하는것	31
약속	31
심장의 속삭임	31
새로운 주제의 중편소설을!	32
평론다운 평론을 쓰고 싶습니다	32
순천으로!	33
무 지 개	35
오 실 때 에 는...	36
나는 만나보았노라	37

온 나라가 바라보고있다	37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 사는 세계여	38
한마음	39
땅을 넓혀가는 사람들	40
법칙	42
행복의 나래	48
그대가 가닿을 끝은... ..	49
《영웅소대》	49
순천이여 그대의 이름은... ..	50
현실속에서	51
아름다워지자!	52
나의 고향	53
작가의 문체	62
남행렬차가 연착된 역에서	64
계급교양과 동화창작	65
해창나루	68
건축가의 점과 선	69
나리꽃	70
들소의 노래를 지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77
기다리는 계절	78
남조선 혁명가의 노래	79
내 고향 (외 1 편)	80
어머닌 글 한자 모르셨어도	80

소원

정렬

가는 세월이 두고 가는
오는 세월이 안고 오는
간절한 소원이
흰눈처럼 쌓여
새해가 밝아 온 이 아침

천이면 천
만이면 만가지
인민이 원하고 바라는것
다 꽃피는 이 땅우에
단 한가지 소원만이 남아

용해장을 찾으시면 용해공들이
농장벌을 찾으시면 농장원들이
분계선 초소를 찾으시면 병사들이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아뢰이건만
아직도 굶은 날
험한 길 걸으시는 수령님

새로 일떠서는
언제건설전투를 지휘하시던 그날
이 언제만 완공되면
나도 좀 쉬겠다 하시고
두메깊은 농장을 찾으시여
해저무는 다락밭을 오르시며
올해 농사만 잘 지으면
마음놓고 쉬겠다 하시더니

강산이 설레이고 산천이 환호하던
언제준공식의 그 꽃보라속을 지나
또다시 공장으로 농장으로
쉽없이 이어가신 뜨거운 자욱이여

인민과 하신 단 한가지 약속
단 한가지 청원만은
한평생 이날까지

들어주시지 아니 하시고

빈 배낭
빈터밖에 없던
세월의 그 굵이 못잇을 그 기슭에서처럼
어느 하루도 편히 쉬시는 날 없이
나날이 더 바쁘게 보내시는 수령님

토지개혁의 발머리에서 만난 다수확농민
전후의 재더미를 함께 헤쳐온 로장이며
다 로혁명가라고
높은 대우로
인생말년을 폭 쉬게 하시면서도

자신은 잊으신듯
하루일의 첫 시작도
하루일의 마무리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
조선을 안으시고
해와 달을 보내시는 수령님
식의주문제의 결정적 전환을 위한
강령적 구호도 제시하신 크나큰 은정이어

하늘이 높다면
베루신 은정 그보다 더 높고
바다가 깊다면
받아안은 사랑 그보다 더 깊고 깊어
우리 이제 무엇을 더 바라랴만

이 좋은 세월에
향도의 별이 빛나
더 좋아질 세월에
지는 달이 두고 가고
뜨는 해가 날마다 안고 솟는
단 한가지 절절한 소원만이
이 강산에 그냥 남아

이 아침
금수산창가에 어린
첫 새벽노을도
축원의 마음 안고 비껴오는가

아, 수령님
이해에는 우리와 하신 약속 지키시고
인민이 드린 청원을 꼭 받으시고
편히 쉬시옵기를 바랍니다
만년장수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김일성주석

아루뚜로 꼬르꾸에라

사람들 사는곳

끝없는 감격으로 설레여라

그 어디에나 **김일성** 주석께서 계시여라

깜깜한 밤에도 앞길을 밝게 비쳐주시는 그이

그이는 영웅의 앞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시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려고

얼굴에 홍조도 곱게 피워주시고

추위와 비바람을 한몸에 다 맞으시며

붉게 익은 사과나무에 향기도 안겨주시는분

그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에 빛을 주시여라

걸고 또 걸으시는 그이

어둠을 가시고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유난히도 빛나는 밝은 빛을 비쳐주시여라

학교와 공장을 일떠세우시여라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그이

김일성 주석께서 찾으시는곳

기쁨의 노래 부르는 강에

공장에서든 광산에서도

락원의 다리를 일떠세우시는 그이

감격의 파도 물결치는데

그이의 저서 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거늘

그이께서는 물으시여라

아! 인민들

다심한 어버이 심정으로

영원한 봄을 노래하며

그들의 어머니와 아이들 잘 있느냐고

사시장철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 부르리라

인민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는 그이

(필자는 빼루 시인임)

얼굴에 흘러넘치는 환한 미소

그이와 함께 있는 인민들의 가슴

새해 첫 아침에 부르는 노래

조성관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새해 첫아침이 밝아온다

또 한돌기
년륜이 바뀌어 새해이던가
또 한해
달력이 바뀌어 설명절이던가
품어줄 사랑의 품
당의 품 없이는
설명절도 없나니

지나간 한해를 돌이키며
뜨거워지는 생각도
당에 대한 생각
또 한해 맞이하는 새해를 두고
깊어지는 생각도
당에 대한 생각

당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친애하는 그이를 생각하거니
우리는 본다
패기에 넘치신 그이의 모습에서
활력에 넘친 우리 당의 모습을
인자하신 그이의 미소에서
자애에 넘친 우리 당의 사랑을

세기의 한끝을 가르며
높이 추켜드신 그이의 손길은
우리 당의 손길
열정에 넘치신 그이의 구령은
우리 당의 목소리...

아, 그 미소
그 손길, 그 목소리-
당의 그 사랑속에
당의 그 령도따라
우리 그 얼마나
높이 치솟아오른것인가

또 한해 우리
그 얼마나 더 높이 나래쳐 솟을것인가

타오르라 심장아
충성의 만부하로 불타오르라
나래치자 위훈이여
위훈의 상상봉으로 나래쳐오르자

돌기돌기
마흔뽕을 휘감는
공화국의 년대기를 수놓으며
행복의 더 높은 령마루에 인민이 올라설
광복거리와 순천의 대비날론기지건설에서
그이의 구상을 빛내갈
웅대한 창조의 마지막 나사못을 조이며...

우리 그 언제 평탄한 길로만 걸어왔던가
휘황한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거니
진펄길도 웃으며 헤쳐가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하나의 생명체
하나로 숨쉬는 당과 인민
의무에 앞서 의리로 맺어진
당과 인민

하늘땅은 변해도 변심이 없을
동지적 의리로 승화된 그 충성속에서
이 땅우에 그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태여났던가
그 얼마나 많은
세기적 기적이
새로 태여났던가
기적과 위훈으로
날이 새고 해가 솟은 80 년대에!

신심 넘친 가슴을 펴고
결사전에 들어선 전사의 용맹을 안고
결승선에 들어서서 승리자의 환희를 안고
새해 첫아침을 맞는 마음속에

다시금 굳세지는 의리의 맹세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천만년 받들어모시리!

삼지연 기슭에서

허린정

사무치게 그립던 정 안고
네 기슭에 서니
내 마음처럼 설레이는 물결우에
그날의 모습들이 다 어려있구나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조국애가
아직도 눈물에 젖은 한줌 흙으로
투사들의 두손에 고이 얹혀있고
그리워 꿈결에도 찾아가던 고향땅이
상기도 유정한 피리소리에 어려있는곳

그날의 진달래 꽃향기는
이 가슴에 애뜻이 가득차 풍기고
조국진군길에 타오르던 우등불도
내 마음 뜨겁게 덥혀주는 여기

한모금 물맛에도 조국을 안을줄 알라고
전령병은 물통의 맑은 물을
나에게 다정히 부어주는듯
너전사 오늘도 들고있는 바늘은
오늘에 내 입고 사는

행복의 옷을 다 누벼준 바늘은 아닌가

여기에 다 비껴있구나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생년당이 씹으며 헤쳐온 장설
한목숨 서슴없이 피바다를 건너
조국을 안고 온 투사들의 숨결
흘러간 30년대 그 나날들이

삼지연!
삼가 옷깃 여미고
네 기슭에 서니
물소리 웅엄하게 이 가슴 치누나
내 삶이 순간도 넓지 말라고
백두의 젓줄기로 한생을 이어가라고

아, 너의 수면우에 비껴있구나
혁띠를 조여맨 나의 모습도
투사들의 대오에 이어선 나의 모습을
영원한 혁명의 거울은 비쳐주고있구나

천리길, 만리길우에

김재원

길이여
걸으면 끝나는것이
땅우의 길이건만
우리 수령님 걸으시는 혁명의 길
오늘도 걸으시는 사랑의 그 길
끝은 어디나

만경봉에 송이송이
눈 내리던 그 새벽
조용히
길동무도 없이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신
력사의 그 길

민족의 비운
한몸에 다 안으시고
오가산을 넘으신
눈바람찬 그 령길
압록강을 건느신
강바람찬 얼음길

나라잃은 겨레의 운명
토막토막 뒹굴며 호곡하던 그 길에
자옥자옥 광복의 맹세 다지시며
달으신곳 천리여서
그 길,
《광복의 천리길》인가

그밤 그 길에 이어
총칼숲 헤치시고
혈전의 언덕 넘으시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가사

아아 그 길!... 몇천리런가
아아 장장!... 몇만리런가

그 끝 다 모르며
그 길우에 씨앗을 뿌려 오곡을 가꾸고
그 길우에 공장을 세워 비날론을 뽑고
그 길우에 도시와 새 거리 펼치며
행복의 요람속에 자고 깬다
너와 나, 우리 인민은,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리수로 다 헤아릴길 없고
세월의 길이로 다 채일수 없는
지금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옥소리

훈훈한 봄바람에 실려오는가
차디찬 눈바람에 실려오는가
이른새벽 논둑길을 밟으시는 소리
별 밝은 밤 구내길을 걸으시는 소리
집집의 뜨락에 사람들 마음 마음에
다정다감히 찾아오시는 그 자옥소리...

아아, 이 땅 어느 길을 걸어도
무심히 걸을수 없는 길
우리 수령님 한평생
혁명을 위해 걸으시고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그 사랑의 길
향도의 해발 빛나는 주체의 천만리길우에
자랑찬 우리 인민이 살고 민족이 산다
강대한 우리 조국이 누리에 빛난다

사랑하는 내 조국

김철

사랑하는 내 조국 너는 아름다워라
푸른 하늘 맑은 물 눈부신 거리
내가 나서 자라난 어머니 나라
너는 아름다워라 사랑하는 내 조국

사랑하는 내 조국 너는 귀중하여라
선렬들 피흘리고 목숨 바친 땅
내 손으로 쓰다듬어 꽃피운 나라

너는 귀중하여라 사랑하는 내 조국

사랑하는 내 조국 너는 위대하여라
수령님 세우시고 우리 당이 빛내가는
온 세상에 자랑높은 주체의 나라
너는 위대하여라 사랑하는 내 조국

영원토록 번영하라 조국이여 조국이여

파쟁에 대한 준렬한 단죄, 웃음속에서 밝혀진 력사의 교훈

류만

투쟁과 생활의 참된 진리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불멸하듯이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술작품도 언제나 영생한다.

혁명연극 《3인 1당》이 길림에서 첫 공연의 막을 연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이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오늘도 불멸의 모습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것은 바로 이 명작이 위대한 주제사상의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특색있게 훌륭히 구현하여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연극 《3인 1당》의 불멸의 가치와 의의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이 명작이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지도밑에 《성황당》식 연극으로 각색되어 우리 시대의 무대에 성과적으로 재현됨으로써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1. 단결의 진리를 깨우치는 반증의 메아리

문학예술작품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푸는 가 하는것은 그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가늠하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어떤 시기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여야 하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되여야 한다.》

어떤 시대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문학예술작품은 반드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참다운 가치와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의 참다운 가치와 불멸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우리 민족의 력사와 혁명투쟁에서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가

특색있는 형상속에 심오하게 제기되고 깊이있게 밝혀진데 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이 제기한 기본문제는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작품에서 밝혀진 기본사상이기도 하다.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이 심오한 주제사상은 지나온 우리 나라의 력사가 확증하고 1920년대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파벌싸움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1920년대 종파분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파를 내세우기 위하여 늘 싸움질만 하였다. 종파사대주의자거나 민족주의자들의 상충은 《령도권》쟁탈싸움으로 사분오열되어있었으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공박하고 자기 파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파쟁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이러한 파벌과 《령도권》탈취를 위한 싸움은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이 바야흐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던 시기 이러한 실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온갖 파쟁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 진정한 단결과 투쟁의 길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연극 《3인 1당》은 이러한 시대와 혁명의 요구와 그리고 당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실태를 반영하여 창작되었으며 거기에 력사의 교훈을 구현한 형상의 필연적 귀결로서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주제사상을 제기하고 깊이있게 밝혔다.

이 작품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것은 송도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이다.

명작은 송도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를 무대로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하는 세 정승이 죽은 임금의 자리를 노려 저마다 황금룡상에 앉기 위해 온갖 계책과 모략을 꾸미면서 싸움질하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물론 무대에 펼쳐진 력사적 환경이며 인물, 사건 등은 1920년대의 사실 그자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극에서 전개된 이야기는 결코 환상적인 이야기에 그치는것도 아니다.

명작은 비록 봉건시기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며 사건 등은 지난날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져 온 사색당쟁의 반영이며 1920 년대에도 벗을 줄 모르던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재현한 온갖 파쟁과 추태의 형상적 축도이며 환상적인 굴절인것이다.

작품에서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박정승, 문정승, 최정승의 세 정승자체가 당시 자기 파벌을 내세우기 위한 싸움질로 시간을 보내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라는 3 파를 방불케 하는 인물로 상징화되어 설정되었다는 사정이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명작이 제기한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기본 주제사상은 이 세 정승의 형상에 의하여 확증되고있다. 말하자면 세정승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서 기본몹을 담당한 인물인것이다.

연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남당의 박정승, 서남당의 최정승, 북서당의 문정승은 왕이 생존해있을 때는 다같이 나라를 지탱하고있는 한 《기둥》으로 서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죽자 《충신》으로서의 그들의 자태는 《간신》으로 변모하여 마침내 왕위를 탐내는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표면화된다.

둔하고 미련하기는 하나 그래도 애초에는 나라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백마국의 사신과 맞서 제법 큰소리까지 치던 박정승은 권모술수로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자기에게 형세가 불리하게 되자 결국은 백마국의 침략의 길잡이로 전락하고말며 적아의 력량이 부동일 때는 큰나라에 원병을 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꼬물만큼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척하던 문정승은 제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가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되자 술개국에 밀사를 파견하여 자기를 송도국의 왕으로 봉해줄것을 애걸해나서는것이다. 최정승은 또 최정승대로 가짜도사의 조작으로 차레진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실력배양》과 같은 애초의 주장은 있었던지 말았던지 황금룡상에 미쳐 다른 모든것은 안중에서 사라져버리는것이다.

세 정승의 이러한 행동거지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파벌싸움의 극치에 이른다.

세 정승의 싸움의 전과정은 권세와 왕위를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지어 한때의 《동료》가 원수로 되어버리는가 하면 손에 칼을 들고 맞서 싸우던 원수가 벗으로 되기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파쟁분자들의 수법이며 본성이다.

이처럼 실재하는 사실을 바탕에 간 역사적 이야기를 송도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를 무대로 재현한 연극에서는 세 정승이 임금의 자리에 앉으려는 개인의 리속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존망은 안중에 없고 지어 외적까지 등에 업고 서로 물고뜯으며 개싸움질하는 그 물골을 날날이 발가놓으면서 그 결과 그들자신은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예리한 풍자회극적 형상으로 폭로단죄함으로써 파쟁뒤끝

에 차레진것이란 망국밖에 없다는것을 밝혔다. 물론 풍자극이라는 특성과 관련되지만 이 연극에는 그 어느 한 인물도, 어느 한 사건도 단결에 대한 지향을 안고있는것은 없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세 정승은 파쟁과 분렬의 화신으로 되고있으며 분렬에로의 끊임없는 심화가 형상의 전과정을 관통하고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통하여 단결의 진리를 거듭 확신하며 그것을 응심깊게 느끼게 되는것은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력사의 교훈이 주는 반증의 힘이 그렇듯 크고 심원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반증의 진리를 보다 강하게 더욱 절절하게 해주는것이 《성황당》식 연극창조방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방창이다.

먼 옛날 송도국 무릉도원에
세 정승이 검은 구름 몰아왔다네
황금룡상 서로 탐내니
산천도 룡상도 빛을 잃었네
아 파쟁바람에
이 나라의 운명은 어이 될소나
(서장에서)

불구름 몰아와 나라를 망친
파쟁의 죄악을 어이 잊으랴
천년만년 세월이 가도
력사의 이 교훈 잊지 않으리
(3 장에서)

이 방창가사에는 망국의 비운을 가져온 파쟁의 돌이킬수 없는 죄악상과 후파에 대한 준렬한 단죄와 함께 파쟁이 남긴 쓰라린 력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리라는, 말하자면 단결해야 한다는 음영이 강하게 비껴있다. 파쟁으로 분렬의 극단을 치달아가는 세 정승을 형상하면서 작품에 방창이 삽입됨으로써 연극은 보다 강렬하고 효과적인 반증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반증의 메아리로 단결의 진리를 심각한 교훈으로 찾게 한 여기에 혁명연극 《3인 1당》의 불멸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이 제기하고 형상해낸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사상과 그 반증의 메아리로 힘있게 울린 단결의 진리는 우리 나라 력사와 혁명의 지난날에도 오늘에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불멸의 의의를 가지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다.

2. 풍자적 형상의 높은 경지

혁명연극 《3인 1당》의 불멸의 가치와 의의는 그것이 혁명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심오하게 밝힌것과 함께 또한 그것을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으로 천명함으로써 풍자적 형상의 새롭고 높은 경지를 보여준데 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은 명실공히 풍자적 양

상의 극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정서적 색깔을 잘 살려 형상을 창조하며 양상적 특성이 확연히 두드러지는 형상으로 주제사상을 진실하게 천명하는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이며 그 확고한 담보이다. 특히 문학예술작품가운데서도 인간생활과 그 내면심리의 예리한 국면을 침예한 극적 계기에서 반영하는 극작품은 생활과 인간심리의 미세한 정서적 색깔까지 잘 살려 형상을 창조하여야 예술적 형상의 높은 경지를 성과적으로 뛰어갈수 있다.

극문학가운데서도 풍자극은 그가 기초하고있는 생활의 독특한 정서적 색깔과 또 일반 극작품의 형상과는 특이한 그 형상적 특성으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며 따라서 풍자극에서의 예술적 높이는 풍자적 형상창조문제를 옹계 해결해나갈 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혁명연극 《3인1당》은 풍자극으로서의 형상세계를 새롭게 탐구함으로써 그것은 《성황당》식 연극창조원칙과 방법을 구현하여 재현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들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풍자극적 형상의 높은 경지를 파시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풍자극이지만 긍정적 주인공이 있는 풍자적 형상으로 특징지어지고 《딸에게서 온 편지》는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의 결합에 의한 극적 형상의 창조로 특징지어진다면 혁명연극 《3인1당》은 긍정인물이 없는 풍자극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있다.

혁명연극 《3인1당》의 극적 형상에서의 새롭고 높은 경지는 많은 경우 그것이 긍정인물이 없는 풍자극이라는것과 환상적인 이야기의 예술적인 재현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풍자극으로서의 《3인1당》의 극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비롯하여 형상전반을 철저하게 풍자적 형상의 심화와 예리화과정으로 일관시킨것이다.

풍자극에서의 형상은 어디까지나 풍자적 형상에 의한 심화와 예리화과정으로 일관되어있지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주관이 작용하여 사상에 대한 인위적인 강조가 있어서는 안된다. 풍자극에서의 풍자적 대상은 철저하게 풍자적 수법에 의하여 타매되고 형상의 전과정에서 풍자성이 보장되어야 그 형상이 진정으로 특색있게 되고 커다란 예술적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혁명연극 《3인1당》은 이러한 풍자적 형상창조를 일관하게 지향하고 그것을 빈틈없이 실현함으로써 파벌싸움에 환장한 세 정승을 철두철미 풍자의 도가니속에서 웃음으로 타매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행에서의 표리부동과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내용을 풍자적 수법으로 심화해들어가면서

그 진면모를 까밝히고있는것이다.

표리부동은 원래 사기꾼들과 음모가들에게 있어서 체질화된것으로서 권세욕에 피눈이 되어 날치는 세 정승의 형상을 관통하고있는 본질적 특성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세 정승이 저들의 본심은 안개속에 묻어두고 《면사포》를 쓰고 나타난 첫 장면과 《면사포》로 가리워진 속에서도 온갖 야심과 음모의 권모술수가 꿈틀거리며 내비치는 뒤장면들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혔다.

연극에서 보는바와 같이 첫 장면에 나타난 세 정승의 모습은 나무랄데없는 한결같은 《충신》의 모습들이다.

박정승은 《상감마마가 충신이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려고들 있겠는가.》고 하면서 금시 칼로 제 숨줄을 끊고 순사할듯이 날치며 최정승은 왕을 생각해서 해청도에서 가져온 왕새우를 왕의 제상에라도 놓아달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문정승은 타버린 통상대신 운봉산성지에서 새 황금룡상이 다 만들어졌다는 희소식을 들으면 앓아누운 왕이 그래도 소생하리라 믿었다면서 늘 왕의 신상을 걱정해온듯이 자기를 내비친다. 세 정승의 말갈아서는 그 《충정》에 죽은 왕도 금시 살아날듯싶다. 그러나 사실은 그 《충정》이 가짜이고 결발림이며 세 정승이 각기 저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한갖 위장물에 불과한것이다.

첫 장면들에 이어 연극의 다음 장면들은 바로 권세욕에 가득찬 야심가들인 세 정승이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과는 판이한 간신의 무리, 파쟁분자들이라는것을 이모저모에서 까밝히고있다.

이 혁명연극의 풍자적 형상의 일관성은 바로 여기 즉 겉으로 나타난 《충신》의 정체가 다름아닌 왕위를 노린 음흉한 속심의 변신이며 따라서 변신한 음흉한 속심의 추악한 본성을 웃음속에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조소한다 있다. 작품에서는 특히 세 정승이 서로를 물고뜯으며 개싸움질하는 과정이 그들스스로가 자신들의 부정면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되게 하면서 운봉도사라는 허황한 인물, 그나마도 가짜도사를 등장시키고 그와 세 정승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풍자적 예리화에 의한 조소와 규탄의 기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신》으로 가장되어 온 세 정승의 음흉한 속심이 표면화되고 그들 서로의 파쟁이 본격화되면서 표리부동의 정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며 날카롭게 폭로단죄되는것은 왕의 어명을 전하는 부원군의 등장과 특히는 가짜운봉도사의 출현을 계기로 해서이다.

연극에서는 부원군의 등장과 가짜 운봉도사의 출현을 계기로 세 정승이 벌리는 음모와 권모술수 등을 그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서로

서로 취울리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며 떠보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며 지어는 맞붙여 손찌검까지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속속들이 발가놓고 있다.

세 정승의 음모는 죽은 왕의 본부에 따라 운봉도사가 점지하는 정승이 왕위에 앉게 된다는 부원군의 말이 떨어지자 맹렬히 가속화된다. 박정승은 가짜도사를 만들어 그로부터 자기가 왕으로 점지될 음모를 꾸미고 만족감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최정승은 운봉도사가 가짜라는것을 알아내고 그를 회유하고 위협공갈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점지하게 한다.

자기가 왕으로 점지되리라는것은 꼬물만큼 의심치 않고 기생들까지 동원하여 출판을 벌리며 속으로 북받치는 패재를 겨우 가다듬던 박정승은 자기가 아니라 최정승이 왕으로 점지되었을 때 분통에 가슴 저미는 쓰디쓴 고비를 맞보며 한편 박정승보다 한술 더 뜬 음모의 성공을 락관하면서 초조감속에서 신경을 도사리다 왕으로 점지된 순간 최정승은 온몸으로 북받치는 패재를 부른다.

이처럼 연극에서는 한 음모가 꾸며지면 그것을 누르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새로 꾸며진 음모에 의하여 이미 꾸며진 음모가 파탄되는 등련속적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가짜도사가 왕을 점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승이 아니라 최정승이 왕으로 점지되는 극적인 사건을 펼침으로써 음모가들이 겪게 되는 희비극의 절정을 보여주고 파쟁군들의 음흉한 속심에 대한 가차없는 타매를 안기였다. 이러한 형상은 그자체가 많은 경우 회화화된것으로서 작품은 회화화에 의한 웃음의 폭발로써 파쟁분자들은 레외없이 음모군, 사기한들이며 음모군들은 결국 저들이 꾸미는 음모의 도가니속에서 망하게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파쟁에 대한 풍자적 형상의 심화와 예리화는 또한 가짜도사와 그리고 그와 세 정승과의 관계에 대한 형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것은 주로 야유와 해학, 조롱에 의한 풍자적 웃음의 폭발로서 특징적으로 그려졌다.

가짜도사의 출현은 그자체가 많은 웃음의 계기를 내포하고있다. 게다가 가짜도사 자신의 내용과 형식에서의 불일치, 말하자면 수십년간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하였다고 하는 랑반으로서의 내적 속성과 송도국의 새 임금을 점지해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명을 지닌 도사로서의 외적 속성의 불일치는 도처에서 희비극을 빚어내고있는바 이것은 그자신에 한한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세 정승의 파쟁과 련관됨으로써 작품전반의 풍자적 색채와 웃음을 한층 배가시켜주고있다.

그러한 특징적인 장면들로서는 박정승의 안내로 정승들이 운봉도사를 맞는 긴장한 순간 그가 《운봉산이 어느 산이던가?》 하는 말을 서슴

없이 하는데서와 그가 운봉산에서 100년 도를 닦았다고 하는 안사인의 소개에는 상관없이 제나이가 예순두살이라고 하며 최정승이 다시 나무있을 떨구어보라고 했을 때 입바람을 부는 허황한 행동, 특히 더 높은 벼슬을 탐내어 박정승과의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최정승을 왕으로 점지하는 장면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행동과 장면들에서 가짜도사로서의 《위엄》이 그의 본래의 거칠고 투박하며 촌스럽고 쌍스러운 말투와 엇섞임으로써 해학적 웃음을 야기시키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 정승의 추악한 리면을 해부하는데로 돌려짐으로써 그 웃음은 단순한 해학을 초월하여 파쟁분자들에 대한 예리한 폭로의 기백으로 승화되었다.

이밖에도 명작에서는 문정승의 아들 담동과 박정승의 딸 월단의 혼사문제, 무용지물인 박정승의 애비 박첨량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면서 상전을 꺼리낌없이 바꿔치는 안사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세 정승의 파쟁의 와중에 휘말리는 봉건사회의 각이한 인간 추물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파쟁이 낳는 후과가 얼마나 한심하고 심각한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설득력있게 재현하였다.

이처럼 연극은 하나의 인물설정과 세부로부터 작품형상전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풍자성으로 일관시킴으로써 파쟁은 망국의 길이라는 주제사상을 풍자극에 고유한 풍자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천명하였으며 따라서 심오한 진리를 생활의 교훈으로 밝힐수 있었다.

풍자극으로서의 《3인 1당》의 극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풍자적 형상의 일관성과 특성에 맞게 대사가 매우 세련되고 그것이 풍자적 양상에 맞게 적중하게 구사되고있는것이다.

천에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사는 연극의 기본형상수단이다. 대사를 잘 써야 인물들사이의 교감도 잘 보장되고 연극을 볼 재미도 있으며 극적 긴장감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더우기 풍자극인 경우 대사를 잘 구사하는 문제는 그 사상예술성을 제고하는데서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풍자극은 정극과는 달라서 대사 하나하나에 회화와 조롱, 해학과 비양 등을 통한 풍자성이 품위있게 두드러져야 형상전반에서 풍자적 일관성과 예리성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의 대사형상은 풍자극이면서 동시에 지나간 력사적 현실에 토대한 작품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렸다.

연극은 공간에서 주로 세 정승의 말싸움으로 빚어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반영하고있는것만큼 세 정승과 가짜도사의 대사에서 한문투를 약간 섞어 이른바 유식성을 나타내게 하면서도 싸움질 과정에 튀어나오는 속된 대사를 통하여 봉건관료들이야말로 저렬한 인간들임을 폭로한것을 비롯하여 매 대사에 그 인물의 본심과 표리부동 등이 명백하게, 간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

로 대사를 흥미있게 엮어나가면서 그것을 명대사의 지위에 올려세웠다.

박정승 하하, 왔으면 들어오지 않구 왁새 계구멍 들어다보듯이 뭘 그리 들어다보시오?

문정승 뜰안의 대나무가 아주 실하게 자랐구려.

박정승 우후죽순이라구 비온 뒤에 밭에 있는 수수대만 자랐겠소.

문정승 수수대? ! 아니 그건 누구더러 하는 소리요?

최정승 상감마마의 생각이 간절하여 왕릉에 갔다오는 길에 도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급히 오다니니...

박정승 난 문공의 말을 듣고 전장으로 나가려 했는데 도사님께서 우리 집엘 찾아오시질 않았겠소.

문정승 그러니 박공은 오늘이 명절같겠구려.

박정승 명절이면 나만 명절이겠소? 우리 셋이 다 같은 명절이지.

이것은 운봉도사가 박정승네 집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문밖에서 마당을 넘보는 최정승, 문정승과 박정승이 주고받는 몇마디 대사이다.

때로는 동문서답식의 비양조로 때로는 표리부동으로 울리는 그 마디마디는 세 정승의 본심과 겉과 속의 판이함을 얼마나 예리하게, 형상적으로 부각시켜주고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파쟁분자들인 세 정승의 《점잖은》 모습을 보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시비하고 비꼬며 혈뜰는 그 엄청난 알뜰관계를 웃음을 머금고 저주를 느끼며 감득하게 된다.

연극의 모든 대사들은 이처럼 풍자극의 양상에 맞게 인간의 내면세계를 담아서 뜻이 깊게 울리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연극의 대사는 풍자적 형상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연극 《3인 1당》의 대사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의 다른 하나는 속담, 성구, 격언 등을 널리 써서 풍자극적인 양상을 잘 살려내고있는것이다.

죽은 정승은 산 개만도 못하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대신한다, 왁새 계구멍 들어다보듯이, 우후죽순, 대는 대끝에서 나고 룡은 룡소에서 난다, 하늘소가 룡마를 낳을수야 없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연극은 인물들의 대사에 이러한 속담, 성구, 격언 등을 널리 씌으로써 표리부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인물들의 성격을 특징화하고 파쟁으로 뒤엉킨 세 정승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날날이 드러내며 그 본심을 까밝히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연극 《3인 1당》에서는 그 중심에 세 정승을 세워놓고 파쟁군들인 그들의 말싸움에 의하여 파쟁의 본질과 해독성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한것을 비롯하여 대사형상에서 풍자극의 형상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혁명연극 《3인 1당》의 대사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천명하며 풍자적 형상을 제고하는데서 매우 힘있는 수단으로 훌륭히 구사되었다.

혁명연극 《3인 1당》은 이밖에도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내용적 특성에 맞게 신비로울 정도의 무대미술과 배경, 배우연기와 음악 등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줌으로써 개화만발하는 《성황당》식 연극의 가일층의 발전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성황당》식 연극의 또하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혁명연극 《3인 1당》의 창조는 오늘 우리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와 연극을 포함한 문학예술전반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더 한층 높여나가는데서 고귀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시대의 무대에 훌륭히 재현된 혁명연극 《3인 1당》의 창조적 경험을 살려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산촌의 새 전설

박찬은

1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척척한 산발들이 키거름하며 남쪽으로 뻗연히 물결쳐갔다. 그 무슨 거대한 힘에 꼭 주름잡혔던 산들이 자꾸만 퍼져나가듯 승용차는 아무리 달려도 산발은 끝날상싶지 않았다.

험한 산골돌길에 차가 들출 때마다 송순호는 안타까운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다가는 앞면 거울에 비친 **김일성** 장군님의 모습을 자주 살펴보았다.

회색 등글모를 쓰신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가벼이 몸을 기대신채 묵묵히 깊은 상념에 잠겨 계시었다.

산촌의 이른아침은 무던히도 신선했다.

동녘에 부채살처럼 뻗어오른 장미색노을이 산봉우리들을 감자주빛으로 물들인다. 한점 바람이 불어오자 울창한 수림이 우- 설레었다. 해가 솟아오르기 바쁘게 계곡에 잠자듯 살포시 내려앉았던 첫빛안개가 산봉우리로 신비스럽게 기여오른다.

장군님께서서는 줄곧 어느 한곳만을 응시하신채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어딘가 모르게 흐려져있는 그이의 안색을 살피는 송순호의 생각도 깊어져갔다. 어제부터 무슨 문제인가를 두고 끝없이 넓은 사색의 바다를 펼쳐가시는 장군님이시었다.

하긴 조국에 개선하신후 지금껏 불과 한해 남짓한 나날 지난 력사에 없는 위대한 개혁들을 이룩해나가는 이 장엄한 시각에 그이께서 풀으셔야 할 문제들이 어찌 한두가지랴. 장군님께서 그 어떤 당면한 정치문제때문에 그러시는지 알수 없는 것으로 하여 그의 가슴도 무거웠다.

항일무장투쟁때부터 그이를 모시고 같이 싸워온 송순호는 조국에 돌아와서도 장군님의 부관이 되어 늘 가까이에서 큰일들을 보좌해드리는 과정에 국사를 놓고는 거의 모르는것이 없으나 어제부터는 그이께서 무슨 문제를 놓고 마음쓰시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이 며칠간 문덕, 숙천의 농민들과 함주, 안변 별을 거쳐 청진, 원산, 홍남 지구인민공장 등 들리는곳마다에서 해방후 첫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 만만한 투지에 넘친 노동자, 농민들의 충천한 기세를 보고 줄곧 만족을 표시하신 장군님이 아니시었던가.

문득 그이의 부드러운 음성이 조용히 울렸다.

《차를 세우시오.》

승용차가 가벼이 벗어나자 그이께서 먼저 차에서 내리시었다. 송순호도 의아한 표정을 띄운채 얼른 뒤따라 내렸다.

《준호동무, 우리 여기서부터 좀 걸어가지요. 가을날의 산골풍경도 구경하면서 저쪽 길을 따라 좀 더 깊이 들어가보는게 어떻소?》

송순호는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놀라 갑자기 대답할 말을 못찾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어정쩡해 서있던 그는 잠시후야야 간청하듯 말씀드렸다.

《장군님, 시간이... 어제 김책동지의 전화도 있었는데...》

준호는 래일 진행할수 있도록 회의준비를 다 끝냈다는 김책부위원장의 보고를 다시금 말씀드렸다.

《알고있소. 물론 래일 해야 할 회의도 중요하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회의도 다 인민을 위한 시책을 토론하자는것이니 오늘은 산골로 좀 깊이 들어가 보자는거요.》

그이께서는 저기 겹산 중중심처에 그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있어 그리도 마음이 끌리시는듯 길아닌 길을 따라 성큼 큰걸음을 내짚으셨다.

사실 평양에서는 장군님을 기다리는 크나큰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가락짚같이 비좁은 골짜기길을 활달한 걸음으로 걸어가시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밑에 피엎피엎 널려 조으는듯 가까스로 붙어있는 오막살이 집들과 설레이는 수림, 계곡의 물소리뿐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적하고 적막한 산골을 흐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데론가 자꾸 걸으시었다.

어느덧 퍼그나 멀리 들어가시었다.

아침해가 수림우로 퍼져내리자 신비한 비단자락같은 안개가 뻗뻗한 밀림속으로 입김처럼 사라져갔다. 우는듯 흐느끼는듯 피빛으로 타는 단풍잎들이 미풍에 설레며 화르르 새떼처럼 날아내린다.

벌써 이곳에는 가을무서리가 내리는듯 전나무 잎새에 피었던 서리꽃들이 해별을 받아 도글도글한 이슬방울로 되어 똑똑 굴러떨어진다.

유난히 맑은 날씨였다.

쫑! 빗쫑르르-

해숨멍치같은 꽃구름 몇송이가 당실 떠오른 파아란 하늘에선 못새들이 귀따갑게 지저귀고 검푸른 숲속에선 장평이 울었다. 짝을 부르고 화답하는 숲의 음향은 나무뿌리에 감돌며 솟구치는 계곡의 물소리에 실려 골안에 한가득 삶의 활력으로 차넘치였다.

한참 걸어가시던 장군님께서 무엇인가 더듬으시듯 걸음발을 늦추시며 저기 앞길 굽인돌이에 서있는 로송밀을 주시하시였다. 이 고요한 산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어서인지 그이의 안면에 문득 반가운 기색이 어리신다. 그이께서 그쪽으로 다가가시자 나무밑에서 옷등을 벗어붙이고 땀을 들이던 두 산골사람이 허름한 삼베겹등걸이를 얹은 죽어 입으며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엉거주춤히 선채 이 동 뜰 어르신네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공손히 서있었다.

앞에 선 사람은 누런 이마우에 창이 쭈그러진 퇴색한 밤빛 중절모를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예순이 된 로인이였다. 얼굴이 기름하게 생긴 그는 채수염발이 탐스러웠다. 뒤에 선 더꺼머리 청년은 이 로인의 아들인듯싶었다. 두사람 다 발에는 피나무껍질로 삼은 볼품없는 신을 신고있었다.

그들의 행색을 눈여겨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은 몹시도 아프시였다.

(해방은 됐지만 산골농민들의 생활은 구태의연하구나!)

그이께서는 로인네 앞으로 다가가시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시였다.

《어데 이렇게 일찌기들 가십니까?》

로인은 허리를 굽혀보이며 황공스럽게 대답했다.

《동대천장엘 갑니다.》

《예- 그런데 무얼 이렇게 많이 지고갑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한옆에 벗어놓은 짐들을 가리키며 다정히 키를 낮추고 친절하게 물으시였다.

《뭘 산골사람들이야 팔게 있습니까. 그저 산채나 약초따위들입지요.》

《잘 팔립니까?》

《예 -》

《금세는 어떻습니까?》

《뭘 돈이랄게 있습네까. 힘만 들지요. 갑자기 이사를 할려니까 용돈이 좀 소용돼서 오늘은 이역사질입네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말리워두었던 송이, 고사리, 단너삼, 만삼, 백봉령 등 산채와 약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나서 참 좋은것들이라고 못내 감탄하듯 말씀하시였다.

로인은 마라초쌈지를 꺼내 부시력부시력 말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얼른 권연을 꺼내서 권하시였다.

《그런 담뱃 심심해서 피운것 같질 않소이다.》

로인은 뒤편 사양하다가 어좁은 손가짐으로 한대 뽑아물었다.

《그래 산골에 사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늙은이는 장군님의 너그럽고 소탈한 인품에 마음이 확- 끌리는듯 속에 있는 말을 저도 모르게 다 터놓기 시작했다.

《농군들의 재미야 그저 농사짓는 재미지요. 작년봄에 우리 장군님께서 이 산골사람들한테두 다 땅을 분여해주어서 평생에 처음으루 제 땅들을 가지게 됐습지요. 다들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네다. 그래서 인젠 모두들 먹을걸 제대루 먹구 삽네다. 왜정뎌 도토리, 감자루만 살았습지요.》

《예-》

《헌데 저 사람의 마음이란 참 요사스러워서 살림이 좀 껴이니까 더 좋은걸 자꾸 올려다보게 됩네다. 말타든 견마잡히구싶다고, 땅을 받아 산골농살 금년까지 짓구나서 별방을 내다보니 인젠 논고장이 더 부럽질 않겠습네까.》

《별방에 더러 가봤습니까?》

《아, 가보다뿐이겠습네까...》

며칠전 로인은 오래간만에 처가가 있는 별방에 가보았노라면서, 그곳에서는 작년에 토지분여를 받아 한해 농사를 지어 다들 기와집 짓고 황소 사고 멧뚥거리며 살다라고 경탄에 찬 목소리로 보고 온 사실들을 내리엮었다.

《땅은 같이 받았어두 별방사람들을 한해 농사 짓구 다들 잘살게 됐습네다.》

그이께서는 알만하다는듯 가볍게 머리를 끄덕여 보이시였다.

《그래서 이사를 갈 생각인게군요. 그래 별방 처가쪽으로 가실렵니까?》

《예- 처남내외가 어서 나오라구 성환네다. 이제야 해방이 됐는데 뭘하러 산골에 더 배겨있겠는가구 하면서... 별방에 나가서 기와집 짓구 제소를 매구 큰소리치며 농살 좀 저보자는거웨다. 우리 농군의 소원은 제소를 매구 농사짓는거웨다.》

로인은 자못 신명이 나서 어깨를 으쓱하기까지 했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산골늙은이를 생각깊은 눈길로 마주보시며 만면에 엷은 미소를 띄우셨다. 그이의 어성은 펍 심중하게 울리였다.

《이곳 산골사람들이 다 로인님처럼 별방으로 갈 생각들입니까?》

《글쎄 연줄도 없이 다야 가겠소만해두 아무튼 해변을 그리워하는 생각들은 이념과 다름이 없습네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방으루 이사갈 차빌하니까 마을사람들이 여간만 부러워하질 않습네다. 허기야 왜정뎌 죽지 못해 이곳에서 살았어두 장군님께서 우리 세상을 찾아주셨는데 왜들 좋은 고장에 가서 잘살아보자구 하질 않겠소이까. 다 좋은 세월을 만난 덕입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일단 말문을 터친 로인은 제 분함에 못이겨 묻지 않는 말도 열이 올라 토로했다.

《우리 이에 덕산이가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네다. 헌데 해방이 돼서두 이 산골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외아들 장가도 못보내겠소이다. 산골총각이라구 어디 딸을 주겠답네까. 끝내 혼사를 못했지요. 내 그래 분해서 더더구나 이곳을 뜨자는거웨다.》

로인의 말인즉 이러했다.

한마을에 사는 응술령감네 집에 얹힌 딸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동안 썩 자별난 사이로 지냈으나 혼사말이 나자 키다리 응술령감이 사위 될 덕산이가 나무랄텐 없으나 자기 딸은 기어이 별방으로 시집을 보내겠다고 우기는 통에 혼사가 튀고말았다. 그때로부터 두령감은 짜장 불목상 대가 되어 소담보듯한다고 했다.

장군님께서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덕산이는 부끄러운듯 얼굴이 벌개서 고개를 숙인다.

《로인님, 그것 참 안됐습니다.》

《내 인제 별방나가서 기와집 짓구 황소 사구 달덩이같은 머느릴 데려다놓구 응술이한테 큰소리 칠 생각이외다... 참, 어른께선 어데서 오슈?》

로인은 어데선가 많이 보신분같은 생각이 드는듯 슬쩍 물어보았다.

《전 평양에서 옵니다.》

《아니? 그 큰 도회지에서 이런 벽지엔 뭘하러 오십네까?》

《산골을 좀 알고싶어서 옵니다.》

《산골을 알고퍼서요?... 오- 그럼 거 산을 연구하시는 학자어른이시웨다래?》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수고가 많겠습네다. 잠자리랑 불편하실텐데... 밤엔 큰 짐승들을 조심하시우. 산골을 연구하시는 우리 향아리골에두 좀 들리시구래.》

《로인님, 오늘저녁에 꼭 찾아가겠습니다. 성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예예, 제 이름은 황을선이라구 합네다. 창원 황씨지요.》

황로인은 자기 이름까지 물어주는데 감동되어 그분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두세번 이름을 곱씹어 외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참 재미있는 로인이라고 생각하시며 다시금 웃으시었다.

《황씨면 회성입니다. 정방산으로 가는 길에 창원황씨 선산이 있더군요.》

《어이구, 참말 학자님은 학자님이시군! 어느 곳에 뗏이 있다는걸 손금보듯하시누만...》

황을선은 이분께서 자기네 선산까지 다 알아주시는데 몹시도 감복하여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이의 한손을 덤석 두손으로 거머쥐고 흔들어댔다.

《정말 놀랍습네다. 큰 학자님이 틀림없소이다. 회성의 선산까지 다 아시는걸 보니...》

《어렸을 때 정방산에 더러 다녀봤습네다.》

아버지가 지체높은 어른한테 너무 체신머리없이 그러는것 같아 아들이 얼른 부친곁으로 다가갔다. 보아하니 덕산이는 아버지의 이런 성미를 질색하는듯싶었다. 그는 이 장길에서 꼭 무슨 실수를 할것 같은지 아버지를 조용히 부른다.

그때야 황을선은 초면의 어르신네 앞에서 자기의 행동이 정중치 못했음을 의식한듯 계면쩍게 웃었다.

《이거 안됐습네다. 제 그만 너무 무엄스레 굴어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로인님을 알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그럼 장을 잘보십시오. 꼭 찾아가겠습니다!》

황을선은 그렇게 인품높으신 《학자어른》께서 산골 촌놈은이를 몸소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도 황공한듯 두세번 인사를 올리고서야 약초집을 지고 일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짐들을 골박아지고 수십리밖의 장마당까지 걸어가는 황로인부자를 오래도록 서서 바라보시었다.

장군님의 심려어린 안광, 시름비긴 안색, 문득 송순호는 어제 저녁녘에 있었던 일이 되살아났다. 가시는곳마다 증산투쟁의 불길로 약동하는 조국의 방방곡곡을 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신 장군님께서 어느 깊은 산골마을을 통과해 나오실 때였다.

그이께서 길가집 세채가 텅빈것을 보시고 차를 세우시었다. 송순호가 급히 달려가 뒤집에 알아보니 그집들은 다 이 벽촌을 버리고 살기 좋은 해변가로 나갔다고 했다.

사연을 알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지금의 이 숙연한 모습으로 한동안이나 서계시며 자리를 뜨지 못하시었다.

송순호는 이시각 황로인까지 만나시는 장군님을 보고서야 틀림없이 그이께서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두고 몹시 걱정이 많으시다는것을 감득할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시선을 돌리시었다.

《준호동무, 방금 그 황로인네 부자를 보고 생각되는게 없소?》

송순호는 자기 생각 그대로를 솔직히 말씀을 렸다.

《장군님, 아무래두 산골이야 땅이 나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산골사람들도 다같은 우리 인민이 아니요... 또 가보지요.》

다음은 아무 말씀도 없이 묵연히 걸어가지었다.

(장군님께서 정녕 어디까지 가보실 예정이실가?)

풀수 없는 의문으로 가슴이 달아오른 송순호였으나 도저히 어찌는수가 없었다.

이런 때 김책동지가 동행했으면 무슨 일인지 장군님대신 그가 앞서 갔다오련만...

2.

앞에는 금대봉.

뒤에는 꼭마산.

항아리골마을은 이마를 맞짚을듯 비좁게 다가선 험악한 산밭속에 깊숙이 들어앉아있었다. 속절없이 계곡을 씻으며 주알주알 구울러 내리는 옥계천의 물소리가 산촌의 적막을 한껏 더 적신다.

십리가 넘는 이 골안에 송이버섯같은 몇채의 농가가 장기쭈처럼 띠엮띠엮 널려있다. 예로부터 논이라고는 한배미도 없이 노래기 밭데죽을 산전들만 흙어져있는 외진 산골마을이었다.

마지막 정열을 태우는듯 빨강계 불타는 저녁해가 앞산 금대봉우에 서서히 올라앉고있었다. 긴 치마자락같은 산그림자가 골짜기를 메웠다.

송순호는 장군님을 모시고 찌리덤불길을 지나 항아리골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모퉁이를 에돌아서고있었다. 오늘 종일 수수가을을 하는 농민들을 만나도 보시고 학교에 들리시여 산골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알아보시면서 점심식사마저도 이름없는 바위우에 앉아 복만원정의 그때를 회상하시며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 큰길이 바투 내려다보이는 언덕말에 내려서자 키가 꺾두룩하고 구레수염이 시꺼먼 로인이 가을갈이를 하고있었다. 우걱뽕 둥글소에 명예를 메우고 가을밀을 심으렘인지 조가을을 한 밭에 목직한 보습날을 눌러박고 슬쩍슬쩍 추스른다. 보습날밧으로는 별방처럼 번들번들한 낱흙살이 번져지는게 아니라 돌흙이 헤실헤실 섰떡같이 부스러진다.

《마라 ! 찌쯔...》

함초빛 이마에 누런 베수건을 질끈 동인 로인은 그래도 신명이 나서 보습채를 번쩍 들고는 나비등 목덜미가 유들진 황소를 우쩍 돌려세우곤했다. 소를 부리는 허결찬 일썹씨가 아직도 한다하는 마루일군 찌쩍먹을것 같았다.

꽤기발들에는 거느적이 마지막 난알단들을 저들이는 산골사람들의 느린 모습이 하나둘 눈에 띄운다. 벌써 무서리가 내리는 텅빈 돌밭들이 잠자누룩히 산비탈에 매달려 긴잠에 빠져드느듯만 싶다.

(별방에선 지금 가을걷이가 한창인데 여기서 이미 다 끝내버렸군. 역시 한유한곳이로군.)

장군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며 새초덤불을 천천히 헤쳐나가실 때 저 아래 신작로에 황로인 네부자가 나타났다. 장을 봐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다. 그들을 보자 가을갈이를 하던 구레수염 로인이 긴 허리를 쭉 펴며 먼저 소리쳤다.

《장을 잘 봤나? 해결음해서 빨리 오는걸 보니 뭐가 시원칠 않았던거로군.》

《그따위 싱거운 소리 한지두 말게. 응술이 배 좀 아프라구 오늘은 산채값이 더 올랐네.》

《그래 인젠 로자가 됐으니 여길 뜨겠나?》

《왜 ? 떠나던 말던...인제 별방가서 우리 덕산이 달덩이같은 색시를 데려올 때 청할테니 오라구. 흥! 》

황을선은 무슨 승리나한듯 기가 돌아 걸음발을 더욱 각죽각죽 날래게 내짚는다.

《찌찌찌... 되젠 꺾죽거리누만...》

응술령감도 비양조로 이죽거린다.

두 로인의 계정질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 측은한듯 가라앉은 어성으로 뇌이시였다.

《저 황로인이 몹시 노여웠구만.》

《자기 외아들이 응술로인한테 퇴방을 맞은게 참말 분한 모양입니다. 》

송순호가 그이를 모시고 큰길에 나서자 황을선이 먼저 띄워보고 황황히 달려오며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아니, 어르신께서 아침에 하신 약속대루 정말 이렇게 찾아오실줄은 몰랐습네다. 이 미천한 촌놈은이를 잊지 았구 찾아주시다니... 고맙소이다 ! 》

덕산이도 달려와 그이께 꾸뽕 절을 드리였다.

《그래 장을 잘 봤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해살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로인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예, 오늘은 어르신같은 귀인을 뵈운 길한 날이여서인지 가자마자 마수거리가 좋아 제격 다 넘겨주구 돌아섰습네다. 》

《먼길에 수고 많았습네다. 로인님과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싶어서 왔습네다.》

《정말 반갑습네다. 이거 아는게 많아야 어르신네의 말동무가 될텐데... 아무튼 이 험로에 고생이 자심했습네다.》

황을선은 장군님의 바지에 도깨비바늘이 다문 다문 박힌걸 내려다보며 감동에 젖은 눈길을 슬쩍이였다.

《우리아 좀 힘들면 뭐랍니까.》

황을선이 지체높은 어른과 인사를 나누는것을 저쪽 밭에서 응술령감이 놀란 눈길로 넘석해본다.

장군님께서 마을길로 걸어가실 때 좁고 우불구불한 저기 앞길로 승용차가 달려왔다. 언덕말에서 흙장난질을 하던 마을아이들이 그쪽으로 와- 달려간다. 그이께서는 금대봉과 꼭마산을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다음은 신중한 안팡으로 항아리골을 굽어보시였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손바닥같은 꽤기발들, 언덕말에 들어붙은듯한 오막살이집들, 다닥다닥 기운 토스레를 걸친 숲덩이같은 아이들, 이고장 농민들의 쪼들린 생활형편을 통감해보시는 장군님의 안면에 서늘한 빛이 질게 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무거워지는 마음을 애써 감추시듯 현현한 목소리로 황을선에게 물으시였다.

《로인님댁에서 하루밤 묵어갈수 있겠습니까?》

《예 ? ! 허허 ...》

황을선은 반가와하면서도 자못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흠없이 묵어주신다면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현대 어르신같은 귀인이 주무실만한 집이 못돼서... 너무도 어지럽소이다.》

그는 황급히 집쪽을 쳐다보며 죄스러운듯 두 손을 마주 잡고 허리를 굽혔다.

《그건 조금도 녀려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송구스러워하는 로인의 마음을 위로하시었다.

(아니 ? 이 벽촌에서 하루밤 지내기까지 하시겠단말인가 ? !)

송순호는 놀라움에 굳어진 눈길을 허둥거리며 덕산이를 앞세우고 먼저 집쪽으로 앞질러갔다.

시령우에 거뒀한 옷가지들이 걸린 아래옷방은 어득시그래했고 방바닥엔 깔꿈거리는 멍석이 깔려있었다. 그는 은근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방에 어떻게 장군님을 모신단말인가. 황로인이 그로록 송구스러워한것이 인사치레만이 아님을 절감하던 준호는 얼른 밖으로 나와 승용차로 뛰어갔다. 그가 모포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깔려 할 때 옷방에 한걸음 먼저 들어서신 장군님께서 조용한 어성으로 말리시었다.

《그러면 로인이 더 미안해하오. 어서 거두오.》

그이께서는 등글모를 벗어 벽쪽에 거시더니 스펀지 매트 위에 멍석자리에 편히 앉으시었다. 다음은 매절은 목침을 만져보시며 방안을 둘러보시었다. 양철문양이 검스레한 의롱우에는 이부자리도 변변한게 없다. 산간마을의 지심이 낀 생활을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안색은 무거워지시었다.

힘은 좀 들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와 보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산골사람들에게도 작년 봄에 다같이 토지를 분여해주었지만 이들의 처지는 별방처럼 그렇게 나아진건 없지 않는가. 물론 토지개혁덕에 산간농민들의 생활도 퍼그나 퍼이긴 했지만 아직 별방사람들에 비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산골농민들의 이 차이를 무엇으로 메워줘야 별방사람들과 생활이 대등하게 될가? 지금 이곳 사람들이 별방으로 나가겠다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

하루빨리 산골사람들도 다 이 산의 주인이 되도록 생활을 안착시켜줘야 한다. 앞으로 산간농민들에게 대부금도 더 주고 현물세도 점차 없애줘야 할것이다.

장군님께서 끝없는 명상에 잠겨계실 때 로인한테 저녁준비를 시킨 황을선이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이께서는 금년가을에 소출을 얼마나 냈는가 물으시며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로인님, 이곳 땅세가 어떻습니까?》

《예, 다 산장날같이들이여서 토박합지요... 참, 어른은 이전에두 더러 뵈온분같은데... 태생은 어데시우?》

《저도 평안도 농촌에서 났습니다.》

《글쎄, 어쩐지... 어르신같은 농촌태생이 많아야 합지요. 그래야 천하지대본인 농사를 옹이 지도합넌다.》

황을선은 제 생각이 옳다는듯 복두갈구리같은 손으로 무릎을 쳤다. 그는 해방이 되고 땅을 받으니 사람들의 머리도 전에 없이 빨리 깨더라면서 뒤말을 이었다.

《그전에 이고장사람들은 다들 저 금대봉 칼벼랑밑에 있는 산신터에다 마음을 의지하구 살았습네다. 금대봉산신령을 잘 모셔야 우리 산골사람들이 잘살수 있다고들 믿었습지요. 그런데 해방이 되구 땅을 받더니 인젠 산신령을 믿는게 아니라 다들 장군님을 믿구 삽지요.》

장군님께서 그저 가볍게 웃으시었다.

《여기에두 참 산에 대한 전설이 많겠습니까?》

《그러문요. 이고장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금대봉 산신령을 믿었습지요. ...》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해에 이고장에 큰물이 났었다고 한다. 달포나 퍼붓던 작달비는 마침내 무서운 산사태를 일으켰다. 그 사품에 금대봉 밑 농가들은 하루밤사이에 온데간데 없어졌다. 무서운 재변이였다. 이 참변에서 살아난 사람은 유독 빙어리총각뿐이라 한다.

그는 금대봉산신령한테 자기도 남들처럼 말을 하게 해달라고 매일 목욕재계하고 백날치성을 드렸다나. 그래 지성이 하도 극진해서 빙어리는 끝내 말을 못했지만 재난만은 면했다 한다.

전설은 대대로 내려오며 금대봉산신령을 괴여 올려야 한다는 의식을 이고장 사람들의 골수에 인박아주었다. 하여 저저마다 가슴속 소원을 풀고 불안한 앞날에 대한 위구와 그 어떤 양화를 예감하며 끊임없이 산신터에 찾아가 빌고 제사를 지냈다. 금대봉 칼벼랑이 바로 산 사태가 날때 생긴것이라 하여 그곳이 제터로 났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령험하다는 산신령도 없고 따라서 그 전설도 거짓이며 이 땅의 그 어떤 전설도 자기들을 잘살게 해줄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의지할데가 없어 이 금대봉전설의 산신령을 수호신처럼 여겼다고 한다.

전설을 듣고나신 장군님께서 조용히 생각을 잠겨 말씀하시었다.

《그건 다 착취계급들이 인민들을 몽매하게 해서 자기들한테 순종하도록 만들어낸 랑설입니다.》

황을선도 옳다는듯 채수염발을 흔들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로인의 전설이야기까지 듣고난 송순호는 이윽고 밖으로 나와 저녁차비를 서둘렀다. 승용차에서 쌀과 부식물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니 안로인이 미안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준호는 덕산이와 함께 바깥마당에 나가 장작을 패놓고는 샘터에 나가 물도 같이 길어왔다. 덕산은 젊고 친절한 평양형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게 너무도

좋아서 노상 싱글벙글했다.

준호도 이 순박하고 부엌부엌한 산골청년이 썩 마음에 들고 정이 갔다.

《그래 덕산이, 응솔로인네 딸이 정말 마음에 들긴 들던가? 그 령감님은 구레수염이 시꺼먼게 별로 볼품이 없더구만 뉘.》

《그래두 곱단인 살갗이 맑은게 이쁘구 얌전해요. 고깃 정말... 에-참.》

《허허허, 사람두, 반편이로군. 그렇게 곱단이 때문에 가슴이 타든 그걸 하나 못후려내여? 사내대장부가. 생긴 외양이 아깝군.》

《그 아바니 손탁이 얼마나 쎄다구요.》

《이보라구 덕산이. 난 곱단일 줄 때까지 안가겠소, 하구 그 집 아래목에 가서 벌렁 드러누우라구.》

《그렇게 하든 뭘가요?》

《되구말구. 배짱을 내대라니까.》

《헤헤...》

덕산은 아무래도 그렇게 할 용단은 없는듯 뒤더수기를 굽으며 얼굴이 벌개서 웃기만 한다.

어느덧 저녁이 다 되었다. 룡각소반에다 각상으로 차린 두개의 밥상을 송순호와 덕산이가 동시에 들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것 참...》

상이 들어오는것을 본 황로인은 응당 무엇이 없으려니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을 앞세운다. 다음순간 가져다놓은 상을 이윽기 들여다보던 황을선은 너무도 놀라운듯 두눈이 커졌다.

《아니 ? ! 이견...》

상에는 하얀 쌀밥과 로인이 보지 못한 음식들이 소담하게 쟁겨져있었다.

《알만합네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을 대접다니요. 이런 일두 있소이까. 고맙습네다. 주인구실도 못하는게 참 인사불성이외다.》

장군님께서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아무것도 차린게 없습니다. 어서 식기전에 드십시오.》

그이께서는 사이문이 열려있는 아래방을 내려다보시며 준호더러 차안에 무엇이 좀 없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송순호는 얼른 달려나가 크지 않은 사기술병을 하나 들고들어왔다. 눈치빠른 덕산이 부엌에서 제격 낫잔 두개를 올려왔다.

장군님께서 이슬처럼 맑은 술을 한잔 부으시여 먼저 황로인에게 권하시였다.

《변변친 못하지만 약주로 생각하구 한잔 드십시오.》

《하- 이거, 어르신네 술까지 얻어먹다니, 내 너무도 체면이 없소이다.》

로인은 황감스럽게 받아 몸을 반쯤 돌린 자세로 쭉 따고는 장군님 잔에 두손으로 술병을 받쳐 들고 조심스럽게 부어드렸다.

《내 오늘 생일을 쇠는것만 같습네다. 생일이 아니고서야 산골사람들이 흰밥을 구경이나 합네

까.》

《앞으로 이곳 사람들도 이런 밥을 잡수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린 생활수준이 낮은 산간 농민들에게 먼저 현물세를 더 낮춰주거나 점차 없애자구 생각합니다.》

《아니 ? 현물세를 아예 없앤다구요?!》

황로인은 자기 귀를 의심하듯 몹시도 놀란 눈길로 장군님을 마주보았다.

《예 - 없애자구 합니다. 그래야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자 순간 황을선은 들었던 술잔을 도로 상우에 놓으며 고개를 떨군다.

《음-》

잔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린다. 그의 갑작스러운 거동에 장군님께서도 의혹이 어린듯한 표정을 띄우시였다.

이윽고 무엇인가 결심한듯 황을선은 고개를 쳐들었다.

《이거 손님의 술까지 대접받으면서... 어르신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안됐소만, 촌놈은 이의 투정질을 주책없는것으로 알구 들어주소이다.》

황을선은 허연 채수염발을 쓰다듬어내리며 주름진 얼굴에 준절한 빛을 띄웠다.

《난 어르신네가 현물세를 없앤다는 말씀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질 않소이다. 현물세를 바치는 건 땅을 준 나라에 바치는 우리 농군들의 지성인데 없애다니요... 한집안 세대주도 식량이 넉넉해야 세간살일 잘할수 있습네다. 우리 장군님께서두 나라 쌀독이 그득해야 마음놓고 정사를 보실게 아님네까. 장군님이 만주에서 왜놈들과 싸우느라구 빈 배낭만 지구 조국에 오셨다는데 우리 농군들이 쌀루 그분을 받드셔야 합지요. 어르신네두 다 장군님가까이에서 일보실텐데 그런 당치 않은 말씀을 함부로 해서 장군님께 걱정을 얹혀드리지 않도록 하소이다!... 이거 안됐습네다.》

《로인님!》

장군님께서 황을선의 거칠은 손을 두손으로 꼭 감싸쥐시며 한량없는 감동의 환희에 휩싸인듯 믿음어린 안광으로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호걸스럽게 웃으시고나서 술잔을 들어 권하시며 짐짓 사과하시였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노염을 푸십시오.》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장군님의 큰가슴속에서는 우리 인민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으로 높이높이 떠받들어올리고싶은 불같은 충동으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송순호도 코허리가 저려올라 눈곱이 후더워졌다. 그때 덕산이가 울상을 하고 아래방으로 달려들어오더니 무작정 준호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도 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은 모양이다. 굴뚝모퉁이로 돌아가자 덕산은 안타까와 눈물이 다

글썽해서 하소연했다.

《에-참... 평양형님, 좀 리해해줘요. 우리 아버지 제 마음을 조절할줄 모르지요. 기쁘면 한껏 기뻐하구 맛갓지 않으면 아무한테나 뽕하군해서 동네에서두 <괴벽쟁이령감>으루 불리운답니다. 지금도 어르신께서 흥김에 하신 말씀을 언치잡아 또 괴벽을 부리니 이거야 정말... 손님의 술까지 얻어 잡수시면서두...》

준호는 덕산의 실락한 잔등을 다독여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걱정말라구. 아버지는 참 고정하시구 좋은분 이구만. 인제 다 알게 될거요.》

그들이 이려고있을 때 안마당으로 면위원장이 조용히 걸어들어왔다. 그뒤로 구례수염이 시꺼멓고 키가 꺾죽한 응술령감과 마을농민들 네댓명이 같이 물어들어왔다.

응술이한테서 황령감네 집에 지체높은 어른들이 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면위원장은 방금 이 집으로 달려오자바람으로 저쪽 바깥마당가에서 승용차를 돌보는 운전수한테 물었었다. 그들은 생각밖에도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놀라 모두들 격동에 휩싸여 아이들처럼 가슴을 들먹이였다.

이어 옷방에서 식사를 끝내고 상을 물리였다.

면위원장이 옷대무시를 다시한번 잘 바로잡으며 조심스럽게 옷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드리였다.

《장군님, 이 험지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곳 면위원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그이께서는 안면에 빗살같은 웃음을 지으시며 면위원장과 뒤따라 들어와 인사를 올리는 응술령감을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거칠은 손들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천만뜻밖에도 면위원장으로부터 장군님이라는 말을 들은 황을선은 별안간 깜짝놀라 어리둥절해진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그는 몸둘바를 몰라 잠간 허둥거리였다. 두눈을 슴뻑거리며 면위원장을 민망스레 쳐다보던 황로인은 이윽고 자리에서 창황히 일어나 량수거지로 두손을 아래배에 모아잡으며 경황없이 중얼거리였다.

《하- 이것참, 무슨 실수를... 난 그저 학자님 인줄로만 알구...》

《하하하, 로인님, 어서 앉으십시오.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장군님, 제 늙은게 그만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이 미련한 촌백성을 용서해주십시오!》

황로인은 더 뒤말을 잊지 못한채 목이 메여 그 자리에 꿇어엎디였다. 그이께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가벼이 나무라시며 로인의 두손을 꼭 감싸주시였다.

《토지개혁은 했지만 산간지대 농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왔습니다.》

일만시름을 풀어주시는듯한 장군님의 호방한

말씀에 무거웠던 마음이 확 가라앉는듯 순간 가슴속에 불을 안은것처럼 뜨거운 격정이 북받쳐올라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 황로인은 그이의 크나큰 모습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장군님, 어떻게 이런 궁벽한 산골에 소문도 없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소인의 집까지 찾아주실줄이야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글썽 장군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뿔뿔진 산골에 맨 첫손님으루 찾아오시겠습니까.》

숫구쳐오르는 격동과 흥분으로 하여 메말랐던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른 황을선의 두볼로는 감격의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이윽고 로인은 떨어지는 눈물을 당황히 팔소매로 훔치며 목소리를 더듬거렸다.

《장군님, 이 산골촌백성이 고마운 장군님을 뵈옵고 술대접까지 받았으니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네다!》

장군님께서 로인의 두손을 다시금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숫구쳐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견잡지 못하는 황을선로인은 장군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 꿈에도 바랄수 없는 희한한 경사의 날에 더는 앉아만 있을수 없는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음은 두팔을 활짝 벌리더니 덩실덩실 흥그러지게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덕산은 너무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미처 말리지도 못한채 안절부절 어쩔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쳐주시였다. 부엌에서 뛰어들어온 로친이 《어이구, 저령감이 망녕이 들었구만...》 하고 헛손질을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 한발 앞서 들어온 송순호도 장군님뒤에 앉아 싱글병글 웃으며 같이 박수를 쳤다. 면위원장과 응술령감은 물론 마을농민들도 첫 순간엔 황로인의 춤바람에 아연했으나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는걸 보고 다들 마음이 흥겨워져 《조오타!-》 하고 맞소리를 쳐주며 어깨들을 들썩거렸다.

방안엔 장군님 모신 뚫어넘치는 환희로 하여 산골사람들의 격동과 흥취는 더욱 고조되어갔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이께서는 향아리골농민들과 무릎을 기까지 하시고 땅은 얼마나 분여받았는가, 현물세를 바치고 농량은 모자라지 않는가고, 사는 형편들을 다심하게 물으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응술령감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인품에 목이 메어오르는듯 곁에 앉은 황을선의 손등을 짚 거머쥐며 두눈을 자꾸 슴뻑거렸다.

...이날밤 장군님께서는 황로인의 집 옷방에서 주무시였다.

송순호는 미리 마련해놓은곳에 가서 쉬실것을 권했지만 그이께서는 《난 여기서 로인님과 함께 자겠소.》 하시면서 명석자리에 모포를 깔으시고 황로인과 한자리에서 주무시였다.

준호도 아래방에서 덕산이와 함께 가지런히 누웠다. 종일 산골길을 걸어 피로했지만 웬일인지 잠은 천리밖으로 달아나버리고 정신은 더욱

새록새록 맑아지었다. 자기가 이럴진데 황로인인들 잠들수 있을텐가. 장군님께서 이런 명석자리에서 쉬다니!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가랑잎을 깔고 한지에서 쉬신것만도 얼마이신데 해방된 조국에 오시여셔도 이런 불편한 잠자리를 드려야 하다니... 생각을 거듭할수록 송순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물결기가 목메게 솟구쳐올랐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언제 날아와 앉았는지 집뒤 잣나무꼭대기에서 부엉이가 큰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번덕스러운 산촌의 가을날씨는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골바람을 몰아왔다. 태질하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문풍지를 푸르릉 울리곤했다. 부엉이 울음소리도 그에 화답하듯 더욱 크게 창오지를 두드렸다.

(이것 참. 바람은 왜 이리 야단인가. 저놈의 부엉이는 또...)

오늘 종일 산골길을 걸으신 장군님께서 벽지의 명석자리긴 하지만 편히 좀 주무셔야 할텐데...

옷방에서 조심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송순호는 혹시 장군님께서 밖에 나가지 않으셨는가 하여 소리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발자취소리없이 문가로 걸어가 문고릴 힘주어잡고는 가만히 밖을 나서 토방아래 내려섰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달빛이 안마당을 벗어나 울바자와 터밭쪽으로 밀려나갔다.

안마당을 지나 집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황로인이었다. 그는 잣나무아래로 다가가더니 달빛이 거밀거밀 지새드는 나무가지 사이를 기웃이 올려다본다. 두눈이 통방울같은 부엉이는 꼬리 한번 흔들지 않고 앉아서 천연스럽게 울고있었다.

《이 망할것 같으니라구...》

황을선은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돌을 던진다. 그놈은 울음을 푼 그치고 푸드득 날더니 다음 가지에 또 슬쩍 옮겨앉는다.

그는 또 몇번이나 돌을 던져서 부엉이를 꼭마산 숲속으로 멀리 쫓아버린다. 그리고나서 방안을 좀 덤힐 생각인지 집뒤 처마 밑에 있는 마른나무 한단을 소리날새라 닭알꾸레미처럼 조심히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자는줄만 알았더니 로인도 역시 자기와 같은 심정이었다.

하για 왜 안그러랴. 어버이장군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 이밤을 그대로 밝힌들 어떠하며 열밤을 뜯눈으로 지새우며 그이의 안녕을 지킨들 어떠하랴.

송순호가 부엌문앞으로 돌아왔을 때 황을선은 곱방대에 담배를 붙여문채 손바닥만한 부엌바라지에 붙인 창경너머로 물기어린 시선을 들고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있었다. 무엇인가 생각이 깊어진 얼굴이었다. 아궁이 밖으로 번져나온 불길이 부엌바닥을 벌겋게 밝혀주었다.

송순호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로인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속말로 가만히 뇌이였다.

《곤하실텐데 왜 나옵네까, 내가 혹시 잠을 깨

운건 아님네까?》

준호는 한손을 들어보이며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아, 아닙니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부엌바닥에 앉아있었다.

황을선은 무엇인가 묻는듯한 눈길로 바재더니 이윽고 다시 송순호의 귀에 입술을 바투 가져다댔다.

《장군님께서선 우리 산골사람들이 사는 형편을 한번 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두 이녀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분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것만 같습네다. 내가 장길에서 그만 쓸소리몹쓸소리 다해서 장군님께 어떤 근심을 얻어드린건 아님네까?》

《로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송순호는 대답을 하면서도 자신도 그이께서 꼭 무슨 일로 이런 산간오지에 들어와 쉬시기까지 하시는지 그 깊은 예지를 가늠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울뿐이었다.

《꼬끼요-》

두메산촌의 밤하늘에 새날의 광망이 비껴왔다.

3

이튿날 아침.

밤새껏 바람이 불어서인지 산과 마을길, 발취뚝들에 은분을 날린듯한 서리꽃이 하얗게 피여올랐다. 옥계천물우에서는 허연 김발이 꼬리를 끌고 꿈틀꿈틀 기여다닌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선 옥계천 자갈밭에 자국을 찍으시며 조용히 거닐고계시였다. 송순호는 조금 떨어진 너럭바위옆에 그린듯이 서있었다.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이께서 이곳에 나와 아침산책을 하시는가싶어 뒤따라 나와보니 장군님께서선 너무나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송순호를 손짓해 부르셨다.

《준호동무, 우리 인제 저 금대봉우에 좀 올라가 봅시다!》

《예 ?!》

(어제도 종일 산길을 타셨는데 오늘아침엔 저험한 산꼭대기까지 ?)

그는 산정에 올라가 무엇을 보실려고 그러시는지 가늠되는것이 없어 자기의 소청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장군님, 무슨 일인지 제가 올라갔다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선 큰시름을 풀어주시듯 너그럽게 웃으시며 한손을 준호의 어깨에 올려놓으시였다.

《내가 올라가 봐야 하오. 나는 어제 하루 산길을 걸어보면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을 너무도 모른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소.》

장군님께서선 다시 뒤짐을 지시고 까마득한 산봉을 올려다보시며 뒤말씀을 이으시였다. 일순

간 그이의 안색은 근엄해지시였다.

《나는 이 산골에 들어와 보고 확실히 우리 일꾼들이 무슨 일이나 세심하게 파고들줄 모른다는 것을 깊이 느꼈소. 토지분여를 받은 우리 농민들이 인젠 다 잘산다고만 하면서 이런 산골엔 누구도 들어와보지 않았소. 토지개혁은 했지만 산골 농민들의 생활이 별방처럼 나아졌소? 그러니까 다들 살기 좋은 벌로만 뜰 차빌 하는거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 산들이 인젠 다 인민의 산으로 됐는데 산골사람들이 뿔뿔이 떠나버리면 누가 주인이 돼서 이 산들을 가꾸겠소.》

《장군님, 알겠습니다. 곧 차비를 하겠습니다.》

송순호는 뿔뿔이 가슴을 들먹이며 절도있게 돌아섰다.

얼마후 장군님께서는 면내일꾼들, 응솔령감을 비롯한 향아리골사람들과 같이 산을 돌아보려 떠나시였다. 비탈진 폐기밭들을 에돌아가시며 그이께서는 황로인에게 넌지시 물으시였다.

《이고장에 어떤 작물이 제일 잘됩니까?》

《예, 여긴 고추가 특별히 잘되는곳입지요. 워낙 우리고장 고추는 크고 빛깔종구 향취가 높아서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이름을 냈다고 합네다.》

《그럼 여기서는 고추를 많이 심겠습니까.》

《허- 그저 양념감으로나 조금 심습지요.》

장군님께서는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이곳 산들에 산파실이나 산채들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산골이니 그런건 많습네다. 머루, 다래, 도토리, 잣, 분지, 돌배같은건 썩어나도록 많구 갖가지 산채에 약초들도 참 많습지요. 특별히 이고장의 약초로서는 산삼과 백봉령이 유명하구 산채로서는 송이가 이름 높소이다. 송이를 장작불에 구으면 꼭 닭고기맛입네다.》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장군님의 안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력연히 비끼시였다.

그이께서는 골짜기와 나무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시며 어떤곳에 이르러서는 이미 땅에 수북이 떨어진 산파실들을 한동안씩 들여다보곤하시였다. 벌써 잎새가 떨어져 줄기만 앙상하게 남은 약초대들과 누렇게 황들어말라가는 산채들을 손수 만져보기도 하셨다.

천연부식퇴비가 자연적으로 부근부근하니 깔린 이 땅은 얼마나 좋은가. 이 좋은땅에서 매해 꽃피고 열매맺는 산중의 보물들을 그냥 내버려두고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피로써 찾은 조국땅이기에 한포기의 약초라도 다 인민의것으로 향유되야 할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모든 귀중한 산중의 보물이 매해 제 자리에서만 속절없이 썩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장군님께서는 송순호에게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절절하게 뇌이시였다.

《준호동무, 우리가 왜놈들과 싸울 땐 조국의 한줌 흙을 가슴에 품고다녔지. 그렇게 귀중한것

이 조국이었는데 조국의 이 재부가 다 인민의것으로 향유되지 못하고있소.》

송순호는 가슴이 뜨거워와 고개를 꼭 숙인채 그이의 뒤를 바투 따라갔다.

골짜기를 지나 얼마쯤 비탈길을 오르던 그이께서 문득 걸음발을 주춤거리며 황을선을 뒤돌아다보시였다.

《로인님, 이 골안에 혹시 버섯이 많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 장군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두 잘 알아보십니까. 이 금대봉 서른두골안에 없는게 없습니까다만 특별히 이 골안과 저 건너편 골짜기들을 통털어 송이골이라구 합네다. 다른 버섯들도 많지만 송이가 하 많아서 그렇게 부릅지요.》

《그렇습니까? 송이가 그렇게도 많단말이지요?》

장군님의 안면에 경이의 빛이 확연히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빛나는 안광으로 금대봉 북쪽의 우중충한 골짜기들을 또 바라보시였다.

《이고장에 산삼같은 보약제들은 없습니까?》

황을선은 얼른 장군님께서 바라보시는 그쪽을 가리키며 말씀드렸다.

《왜 없겠습니까. 산높구 골깊어서 저 골짜기들엔 산삼이 많기로 소문났습지요. 워낙 그쪽엔 산삼만이 아니라 만삼, 단너삼, 도라지같은것들이 지천합네다.》

《그것참, 듣기만해도 흐뭇합니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번에는 하늘가에 까마득히 솟은 곡마산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저 산엔 소나무가 참 많습네다. 혹시 저곳에 백봉령같은 보약제는 없습니까?》

《거참, 장군님께서 천지만물의 조화를 신통하게두 잘 알아보십니까. 저 곡마산 선바위골, 노루목골, 긴재송림속엔 정말 백봉령이 많기루 유명합지요. 어떤건 한개에 서너근씩 나가는것들도 있습네다.》

《예- 그건 참, 대단히 큰것들입니다. 여기에 두릅이나 고사리같은 산채들도 물론 많겠지요?》

《그런건 어느 골안에나 한벌 널렸습네다. 그런것까지 다 뜯어낼 손이 없습지요.》

장군님께서는 연송 머리를 끄덕이시며 만족한 표정을 띄우셨다.

《산채와 약초는 사람들을 늙지 않고 장수하게 하는 참 좋은 보약이지요. 그래서 산채자 곧 약초구 약초자 곧 산채가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어떻게 산물에 대해서 그렇게두 깊이 ...》

《허허...저도 어려서 의원을 하시던 아버님한테서 배웠습네다. 그리고 산속에서 싸울 때 여러가지 산채를 많이 리용했더랬습네다.》

《예-》

황을선은 승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어제도 그이께서는 산들을 관찰하시며 이렇

게 만족한 표정을 짓군하셨지.)

얼마후 송순호는 장군님을 모시고 수림이 올창한 금대봉마루에 올랐다. 천리수해도 숙연히 머리속이듯 고요한 모습으로 그이를 맞고있었다.

동녘산령으로 아침해가 서서히 떠오른다. 금빛해살이 천만줄기로 퍼져나가며 그 찬연한 빛발이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령마루에 맨 먼저 와닿았다. 나무잎에 핀 서리꽃들이 해빛을 받아 구슬처럼 경롱한 빛을 뿌린다.

장군님께서서는 허리에 두손을 짚으신채 한동안 사방을 살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금대봉뒤쪽으로 뻗어간 보라빛 산발을 가리키시었다.

《저 산속에도 약초나 산채들이 많겠지요?》

《많다뿐이겠습네까. 이곳 사람들은 거긴 좀 멀다구 가지두 않습지요. 그쪽엔 거의가 잣나무 밭입네다.》

《그럼 잣을 많이 딸수 있겠습니까?》

《뭐 잣같은거나 따자든 계까지 안가고도 됩네다. 잣 몇가마니쯤은 이 골안들에서두 힘 안들이구 딸지요.》

아침바람에 수림이 춤을 추듯 설레었다.

장군님의 가슴도 저 수림처럼 조용히 설레이시었다. 그것은 억제할수 없는 희열이였다. 산골사람들도 별방사람들처럼 다같이 잘살게 할수 있는 열쇠를 찾아 이사람들한테 쥐여주시게 된 그이의 기쁨인양 밀림은 끝없이 설레인다.

장군님께서서는 황을선로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모든 산채나 약초, 산과실들을 다 채취해서 나라에 팔면 밀천 안들이고도 대단한 수입을 얻을수 있을것 같습네다.》

《아니, 그걸루요?! 여기서 그걸 안사람들의 용돈감으로나 알구있습네다.》

황을선은 고개를 기울써하고 자못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로인님, 알고보니 저 금대봉은 인젠 이 고장사람들에게 구슬픈 전설만을 전해주는 불행의 상징이 아니라 산골사람들에게도 유족한 생활을 안겨줄 행복의 상징으로 솟아있습니다. 멀지 않아 금대봉의 옛전설은 우리 시대의 새 전설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황을선은 그이께서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선뜻 리해되지 않는듯 눈길을 들였다.

《그래 로인님, 그 많은 송이와 산삼, 백봉령을 하나도 허실없이 다 거두어들입니까?》

《술한계 산에서 그냥 썩습네다. 많이 따서 팔리워야 그걸 먼 장길에 늘 지고나갈수도 없어서 그저 적당히들 좀 하다가 말군합지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송이야 고기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급식료품이 아닙니까. 송이나 산삼, 백봉령같은 몸보신제들은 왜정때야 돈 많은 부자들이나 먹었지 어디 돈 없는

사람들은 녀두나 냈습니까. 그러나 인젠 해방이 되고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됐으니만큼 송이와 산삼, 백봉령도 다 우리 인민이 먹어야 합니다. 몇몇 부자들만 먹을 때와는 달리 인민들이 먹어야 할 오늘에 와서 이것들은 대량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을 받은 별방사람들이나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의 생활이 높아졌기때문에 이런걸 인젠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로인님도 어제 장에 가니 산채값이 더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말이지 작년에 비해 송이나 두릅같은 좋은 산채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더 늘었습네다.》

《거 보십시오. 송이와 산삼, 백봉령같은 귀중한 약재와 산채들을 많이 채취해놓으면 별방과 도시사람들이 입쌀이나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제발로 바꾸려들 올것입니다.》

《그럼 우린 가만 앉아서두 이밥을 먹을수 있구 좋은 옷감들도 마음껏 살수 있겠구만요.》

웅술령감이 환성을 올리듯 큰소리로 웨쳤다.

《왜 옷감들만 사겠습니까. 가장집물들도 다 마련할수 있지요.》

장군님께서 힘있게 긍정하시며 즐거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산들을 한품에 안으시듯 손을 들어 산발을 끌어당기는 시늉을 해보이셨다.

《여러분, 저 산들에서 약초와 산채들을 많이 채취만 해놓으면 국가수매기관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수매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황로인처럼 힘들게 장에까지 집을 지고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앉아서 편안히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필요한 상품들도 다 싣고와서 팔아주면 생활에서 불편없이 살수 있을것입니다. 그 수매돈으로 부림소도 살수 있지요.》

황을선은 지금껏 이렇게 가슴울려주는 흐뭇한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는 연송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에 넘친 목소리로 뇌이였다.

《그리고보니 이 산골에서 나는 갖가지 산채나 약초들치고 어느 하나두 별방이나 도시사람들한테 귀하지 않은게 없겠습네다. 그러니 산에서 뜯어오는건 다 보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웁은 말씀입니다. 보물이구말구요. 산골에 혼한 이 모든것들이 별방이나 도시에선 아주 귀한 것으로 되고있으니 왜 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말씀을 듣고보니 눈앞이 환하게 열립네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야 이 산에서 무엇인들 못파내겠습네까. 산을 잘 가꿔서 힘껏 보물을 파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었다.

《아니 ? 로인님께서야 별방으로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이곳에 앉아서두 흰쌀밥먹구 잘 살수 있는 길을 가리켜주셨는데 인제 달리야... 허허. 참, 계집애들처럼 내 이랬다저랬다하는게

영 불빛이 없습네다.》

둘러선 사람들이 호아- 유쾌하게들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만족하시여 크게 웃으시며 더욱 열정에 넘쳐 밀씀하시였다.

《 좋습니다. 그럼 산중의 보물을 마음껏 따내십시오. 》

그이께서는 면위원장을 비롯한 면내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 동무들은 이고장에 잘되는 고추를 많이 심도록 하시오. 고추도 산채나 약초처럼 국가에서 얼마든지 다 사주겠습니다. 이것도 한밀천 크게 잡을수 있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공지들을 개간해서라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부식퇴비를 듬뿍 내서 산골농사도 착실히 짓고 논을 풀만한곳이 있으면 논도 푸십시오. <접시논>을 풀어본 경험들도 있을게 아닙니까.

힘을 합해서 모두들 산을 다각적으로 리용하면 산간은 산간마다 다 보물창고로 될것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가꾸어 뜯어먹을줄 알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가꾸어 뜯어먹을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부터 생각해온것입니다.

면위원장동무, 앞으로 산골에도 다 전기를 끌어들일테니 식료공장도 크게 지어 산과실로 맛있는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목축장도 잘 지어 목축업을 대대적으로 해야겠습니다. 》

면위원장이 결심어린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 장군님, 저도 사실 이곳이 너무 척박한곳이여서 면위원장의 영예감을 못가졌했습니다. 인제 장군님 말씀대로 우리 면을 꼭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겠습니다. 》

장군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황을선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 로인님, 산골사람들이 <황금>을 깔고앉아있으면서도 자꾸 별방만 내다보니 그것이 눈에 보일리 없습니다. 산은 산마다 <황금>이 들어차있습니다.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십시오! 》

《 장군님 말씀을 듣고보니 지금껏 몸쓸 산으로만 보이던 저 금대봉과 곡마산이 인젠 다 황금산으로만 보입네다! 참말 저 산들은 모두 <황금>난가립네다. 장군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산골사람들한테 황금산을 찾아주셨습네다! 》

황을선은 아득하게 열려진 푸른 창공을 우러러 목매여 흐느끼듯 불같은 탄성을 터뜨렸다.

《 인제보니 우리가 사는곳이 별방 못지 않게 정말 제일루 살기 좋은곳입네다. 이녀의 눈엔 꼭 그렇게 보입네다. 장군님, 별방으로 가야만 <팔자>를 고친다고 여겼던 이 불민한것을 용서해주십시오! 》

그 순간 황을선의 뒤에 서있던 우술령감이 두손을 배허벅에 모아잡으며 불쑥 장군님앞에 나섰다. 구레나룻이 시꺼먼 불편이 경련을 만난듯 가볍게 떨린다.

《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황령감이 별방으로 나

가려 한건 더구나 저때문이였습니다. 이녀이 외동딸 하나 있는걸 별방으로 시집보낼 생각으루 혼사를 튕겨버렸지요... 》

장군님앞에 아무 말씀이나 무엄하게 다 올리는 우술령감이 민망하여 황을선이 얼른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으나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 장군님, 우린 오늘 당장 사들을 맺겠습니다! 》

《 하하하. 》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 로인님성미가 마음에 듭니다. 》

면내일군들과 마을사람들도 다들 가슴이 흥그러워 크게 웃었다.

《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두고이 산촌에서 <황금>을 따내도록 하십시오! 》

송순호가 웃으면서 슬쩍 말씀드렸다.

《 덕산이가 좋아하겠습니다. 그가 속으로 곱단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

《 그래? 좋구만, 산골총각이 산골처녀를 사랑하는게 얼마나 좋소. 》

모여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들이 한가득 차넘쳐흘렀다.

송순호는 이 마당에 와서야 어제부터 그토록 몸소 산길을 걸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장군님의 뜻이 석연하게 안겨오며 그 위대함에 가슴 경건한 환희를 무상으로 느끼었다.

(산골사람들에게 황금산의 새 전설을 펼쳐주시려 이런 벽지에 들어오신줄을 내 상상이나 했던가.)

준호는 그이의 큰 예지, 큰 경륜 앞에서 그저 머리를 꼬바기 속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외진 산골막바지 농가의 명석자리에서까지 쉬시였던말인가.

산에서 싸우던 배낭을 벗어놓고 바쁘게 곧바로 당을 창건하시고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민주개혁을 실시해나가시는 이 복잡다단한 력사적 사변속에서도 산골사람들의 생활문제까지 헤아려보신다는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보통일이 아니지않는가.

이것은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의 비범한 통찰력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가슴을 치반는 불뭉치같은 격동으로 하여 송순호는 더운 숨을 몰아쉬며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렸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다.

현지를 일일이 밟아보신 장군님께서 마을로 내려오시여 환송나온 사람들의 손들을 잡아주시며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 장군님, 부디 옥체만강하시기 바랍니다! 》

황을선은 떨리는 어성으로 말끝을 맺었다.

《 로인님,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이 산촌을 부탁하고 갑니다. 》

《 장군님, 저 금대봉과 곡마산을 황금산으로

만들어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인님, 신세를 많이 지고 갑니다.》

항아리꼴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승용차는 조용히 떠났다.

송순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순박하고 고지식한 산골사람들의 모습이 줄곧 망막에 어리어 웃고있다. 기쁨에 넘친 소박한 사람들! 이제 이 산촌에 장군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가르치심이 활짝 피여 자자손손 전설로 전해질테지.

《아, 산촌의 새 전설!》

송순호는 입속으로 거둬 되뇌이며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이마를 맞조을듯 바투 솟아있는 금대봉과 꼭마산을 차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저 산봉에서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흰구름처럼 그의 가슴속에도 형언할수 없이 벅차고 뜨거운 격정이 건잡을수 없이 샘솟아올랐다.

이 땅에 력사는 수수천년을 두고 흘러오면서 산촌에도 무수한 전설을 남겼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은 자기의 흐름우에서 산골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길을 가리켜준 그 어떤 전설도 알지 못하고 있다.

전설은 전설마다 금대봉전설처럼 구슬렸고 자연계의 위력앞에 오히려 인간의 무력함을 읊조리

였다. 오직 먼 미래까지도 예견하시는 천리혜안으로 이 나라의 산촌들을 투시해보신 장군님께서만이 그 누구도 산의 높이가 곧 《황금》의 높이로 됨을 알아내지 못한 세기적인 발견을 하실수 있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 아닐수 없다.

송순호는 이 시각 인류앞에 불멸의 대발견을 한 과학자의 희열과 열광에 넘친 극적 심리를 체험하며 높뛰는 가슴을 지그시 녹애했다. 오늘은 새 정책의 탄생일이다! 새 력사의 탄생일이다!

오늘의 이 력사의 날이 너무나도 레사로운 날처럼 조용히 그리고 범상하게 흘러가는데 송순호는 이상하리만큼 놀라왔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보다 행복해질 앞날의 두메산골이 방불하게 그려졌다. 아직은 없지만 이제 한해 두해 세월이 가노라면 우리 장군님 안아오신 산촌의 새 전설이 끝마다 봉마다 꽃으로 피여올라 오늘의 이날을 노래할것이다.

썩-가을바람이 계곡을 따라 불어내리며 나무 숲을 흔들었다.

하늘높이 떠있는 태양이 금빛해살을 공작새날개처럼 활짝 펴고 항아리꼴마을을 뜨겁게 비쳐주었다.

길을 쓰네

황성하

길을 쓰네

길을 쓰네

넓게 드리운 새벽안개 감으며

광복거리 처녀들이 길을 쓰네

만경대 갈림길을 생각 깊이 들어가네

날마다 새벽이면 쓸고쓰는 길

하루같이 정성다해 쓰는 갈림길

오늘은 처녀들 무거운 마음안고

말없이 이 길을 쓸고 또 쓰네

간밤도 건설장과 더불어 날을 썼건만

그날처럼 수령님 자욱이 새겨져

깊은 마음 안고 사는 광복거리 건설자처녀들이

이 아침, 갈림길에 깊은 생각 없어가네

차창가에 쌓이는 흰눈조차 지겨웁던

전후의 그날

1 만톤 강재를 무겁게 안으시고

강선으로 가시던 수령님 모습

작은 가슴들에 자꾸만 사무쳐와...

다시는 그런 심려 안으시고

이 길을 걸지 마시라고

쓸고 또 쓰네 뜨거운 마음들은

어서 빨리 광복거리 완공의 축포 울려

부디 이 길이

우리 수령님의 기쁨의 길 되라고...

길을 쓰네

길을 쓰네

연붉게 퍼져오는 노을속으로

광복거리 처녀들이 길을 쓰네

마음의 이 길을 생각깊이 들어가네

해쑤는 언덕에서 외 1편

문동식

흰눈이 날리는 계절에도
봄날인양 꽃들이 피어나는 언덕
우리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시는 동녘 저 멀리
하늘이 열리고
해는 솟아오른다

인류가 생겨
몇만년 세월이 흘러갔더니
인간의 피눈물에 젖으며
지구의 날과 달로 얼룩지던 해는
오직 그이의 손길에 떠받들려
저리도
찬란히 솟아오르나니

오, 또 하루 해를 안고
해빛을 안고
화창하게 열리는 광명한 세계여
새들이 날으는 가없는 창공에
《하느님》에게 애소해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의 자유의 날개가 퍼덕이고
누리엔 창조의 열매를 가꾸는
기쁨의 아지랑이 피어올라라

긴긴세월
쇠고랑과 채찍이 울던
그 사막우에 신생의 거리를 세워가는
깊은 장글속에 억년 잠자던
보석을 캐내는 그 얼굴들엔
어둠과 불행을 영영 가셔버린
삶의 환희
만발하게 꽃피어나라

해빛처럼

앞길은 빛나고
노을처럼 생활은 아름다워
걸음마다 넘치는 새힘과 존엄이여
전체의 성벽들과
사원의 제단들을 갈아엎은 땅우에는
운명의 주인된 인간들의 새세계
저 솟는 해처럼 솟아오르나니

오, 만수대언덕
수수천년
무산자의 머리우에 군림한 폭군들이
제것이라 자부하던 저 해를
순종과 굴종으로 얼굴들지 못하던
인민에게 안겨준
자주의 언덕이여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고 또 바뀌리
허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민의 머리우에 우주를 여시며
천만년
여기에
서계시리

영원히
인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로를 펼치시며 높이 드신 손길로
우리 수령님 안겨주시리
대대손손 인민의 가슴에
해쑤는 아침
해쑤는 아침만을
오, 무궁한 세월은 그 해빛속에
주체시대로 길이 빛나리

력사

한순간의
애국과 매국은
한세대로
끝나는게 아니더라

곤장의 회오리에
육신은 티끌되어 사라졌어도
력사에 길이 빛나는것은
애국에 불타던 렬사의 녀이더라

나라를 팔아 한때
험한 세월
칼바람 모르고 살았어도
력사에 남아 대대로 심판을 받는것은
요사한 역적의 죄악이더라

렬사의 애국충정은
나라의 복이 되고 꽃이 되어도
매국노의 사대굴종은

민족의 가슴에 치욕으로 남거니

오 천년전 애국자는
오늘도 애국자
한세대 역적은
만년후에도 역적

숨길수도

감출수도

지울수도 없는 력사앞에

누구든 자신을 세우라

후세에 길이 욱됨이 없도록

명제해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인 계급교양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성을 견지하고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고수하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 과정은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그 전 과정에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계급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계급교양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인것만큼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계급교양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반영하는것이다.

문학예술에서 계급교양의 내용은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늑새바람》 등에서와 같이 지난간 력사적 시대의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반영될수도 있고 또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 단계의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반영될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반영의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문학예술이 계급교양의 내용을 실속있게 반영하자면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거기에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깔아주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교양의 내용을 심도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

수령관의 견지에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 계급적 처지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비로소 지난날의 불우한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털어버리고 오늘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으로 되었다. 따라서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우리 인민의 계급적 처지에서의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사랑과 수령님과 당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숭고한 감정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특히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와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주건설시기와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우리 인민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따른 강毅한 투쟁정신과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 래야 우리 인민이 간고한 생활과 투쟁 속에서 키워온 철저한 계급의식과 혁명적 자각을 심도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그 높은 표현으로서의 혁명적 수령관을 심원하게 형상화할수 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교양의 내용을 깊이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한 대비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형상수법과 방도를 적극 탐구하여 그것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의 형성발전과 그 적극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게 지향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적극 확인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 《혈육》 등은 대비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남조선사회에 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깊이있게 밝히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작가들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교양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3 대혁명전위들에 대한 노래

리광근, 변흥영

이 땅
들끓는 강산
내 어디를 가나
스스로 마음 이끌리고
스스로 마음 터놓고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시 만나도
떨어지고싶지 않고
잠시 헤어져도
그리워지는
정답고
미더운 사람들

부럽도록 정열에 넘친
그 모습
한생을 같이 하고싶은
그 마음들
우리의 3 대혁명소조원들이여

때로 긴긴 려행길에서도
그들과 자리를 같이할 때면
문득 오랜 친우를 만난듯
사연많은 이야기,
놀랍도록 한 일에
가슴 뭉클히 머리 숙어진다

먼 산촌
이름모를 두메의 발언덕에도
창과만리
망망한 대양의 배머리에도
하늘의 이름없는 별들처럼
무수히 빛나는 모습들

그 어떤 남다른 보수와
변죽이는 공훈의
이름 높은 표창을 바라는것이라
그대들은 오직 하나
당과 수령의 믿음보다
더 큰 영광을 몰라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깨를 들이밀며
언제나 앞장에 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사람들을
앞장에 내세워주는 그들

그 믿음만을 안고
그대들은 입김이 얼어붙는
아슬한 철탑에 남먼저 날아올랐고
그 믿음 있어
불속에도 뛰어들어 로벅을 쌓아
쇠물을 끓이지 않았던가

깊은 밤 폭우속에서
어떻게 강냉이포기들을 살려냈는가
묻고 또 물으면
머리 다소곳이 얼굴 붉히며
기특하다
소조원처녀 하는 대답
-온 여름 농장원들이 흘린 땀이
정말 아까웠어요

나어린 방직공에게
새 순회법을 익히주며
필필이 비단필을 늘어온 나날
년간계획을 넘쳐낸 그 처녀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그 마음을 물으면
귀여운 얼굴에 함박 웃음을 담고
-그처럼 기쁜 때가 없었어요

사랑스럽다
우리의 소조원들
미덥다
그대들의 소박한 그 말
수령님과 당에 바친
속깊은 충성심은 묻어두고
사람들의 충성의 마음을 앞세워주는
아름다운 소행이여

태어난 고장도 아니건만
그대들처럼 사랑하는 일터는 없고
함께 자라난 사람들도 아니건만
그대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없어
아, 한마음 고스란히
그대들께 정을 바치고싶다

소박한 그 차림
진정이 어린 그 마음을 두고

머리 희숙한 오랜 일군도
꼭질많은 길을 걸어온 기술자도
스스럼없이 따르고
스스럼없이 배우며
얼마나 젊어지는것인가

그 어디, 어느곳에 가도
정다운 그들
그대 3대혁명소조원들이 있어
그 언제 누구를 만나도
그 모두가 열정에 넘치고
그 어느 마을 어느 일터에 가도
밝고 청신한 빛이 흐른다

늘쌍 걷는 길
늘쌍 사는고장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건만
소조원들과 함께 있는 나날
길은 길마다 더 넓어지고
일터는 일터마다 혁신으로 뚫고
사람은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자라는 나날

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밝혀주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의 길에
앞서가는 그대들을 따라
얼마나 몰라보게 펼쳐지는것인가
전변하는 강산
젊어지는 사람들

그 무슨 힘이 있어
세기가 이룰수 없었고
인류가 알수 없던
3대혁명 초행길우에
그대들은 평범한 한사람한사람을
그토록 정열에 넘친 인간으로 키우고
이 땅의 하루하루를
이토록 거대한 전변으로 불러가는것인가

아직은
나이도 경험도 어린
과학기술의 깊은 세계도
다는 알지 못하는
그대들은 청년지식인들

행복하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안은 녀은
주체의 녀

높뛰는 심장들에 간직한
깨끗한 그 녀을 믿어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은
세상 처음으로 밝혀준 길
3대혁명 앞길에
그대들을 내세웠나니

멀리 떠난 자식들이 보고싶으신듯
들길, 구내길을 찾으실 때마다
맨 선참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에도
언제나 먼저
불러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속에 있다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들

그 어떤 남다른것이 있어
그대들 남몰래 눈물도 흘리며
남모르게 몇밤 지새우면서도
나어린 그 가슴들이
어제날의 고생 많던 어머니들처럼
사람들앞에선 언제나 웃고있는것인가

자랑차다
당과 수령의 믿음으로
청춘의 심장을 뚫이고
당의 눈빛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낯고 침체한것들을 불사르고
생신한 새 바람으로
하늘 땅 가득 채우며
나래치는 불새

흰눈파도 같이 깨끗한
주체형의 붉은 피로
천만 심장을 뛰게 하고
주체위업의 한길로
천만 걸음을 일떠세우는
불같은 사람들이여

바라보노라
깊숙이 발목이 잠기는
간석지에 새겨지는 그대들 발걸음에
누런 벼단을 안아올리는 처녀들의 웃음을
일떠선 새 군들의 불밝은 창문들을

얼마나 웅장할것인가
솟아나는 거리와 거리
흰 구름이 내려앉는 지붕들과
아득한 제철지구에 피는 쇠물의 노을
강물이 폭포쳐내리는 언체들우에
무겁게 드리워지는 고압선들

아, 뿔어번지는 모든 일터에
사람들을 앞서 이끌어주며
떠밀어주고 내세워주며
당과 수령이 바라는데로
3대혁명-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음걸음 헤쳐가는
우리의 소조원들이여

이 땅
들끓는 나날에
말없이 소문없이
그대들 바쳐가는 그 충성
놀랍도록 이룩해가는 그 위훈을 두고
조국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하고
인민은 시대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나라 하늘땅 열리어 몇천년
세계가 펼쳐져 그 몇십세기
수많은 나라, 수백년을 두고
력사여 말하라
위대한 주체시대의
혁명전위-3대혁명소조원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지닌 사람들
세상 어느곳, 어느때에 있었던가

크나큰 자랑이여
행복한 세대여

다시 또다시 불러 가슴뜨겁다
3대혁명소조원
수령님과 당중앙의 전사들
다시 또다시 불러 사랑스럽다
미더운 그 모습을

노래하노라
뚜렷한 목표
뚜렷한 지향을 안겨주며
보람찬 3대혁명의 한길로
천만 대오앞에 기발을 높이 든
3대혁명소조원들을

3대혁명이
공산주의 언덕에 비낀 노을이라면
3대혁명소조운동
이는 그 언덕으로 가는
지름길!

아, 길이 빛나리라
만발하는 주체의 대화원에
지지 않는 충성의 꽃으로
붉게 피며
열려지는 공산주의 하늘가에
시대의 별로 빛을 뿌리며

평양역을 떠나며

최정기

정깊은 속삭임
유정한 웃음소리 끝없는 역구내에
문득 울리는 안내원의 목소리
-평양발 평강행 열차
정시로 출발합니다

때 맞춰
역사의 탑에서 울리는
은은한 시계종소리
출발을 재촉하는
열차의 기적소리

아, 새 명령을 받아안은 병사처럼
서둘러지는 마음 다잡으며
배웅나온 벗들의 손을 잡으니
한생의 맹세도 새롭게
마음속에 다시금 다져지누나

아마도

안내원의 그 말이
내 심장벽을 두드린것 아닌가
동해의 크지 않은 부두가에서
내 날마다 가슴 설레게 하던
정시 출항의 그 구령소리도
저 목소리에 이어진 메아리가 아니던가

우리 달리는 풍어의 배길을
언제나 휘황히 비쳐주는
그 빛발이 시작되는 평양이기에
또다시 새 진군명령 받아안고 떠나는
이 마음속에 레사롭지 않은
정시 출발의 저 목소리

아, 내 한생 가고가는
충성의 궤도우에
뒤질가봐 늦을가봐 다잡는 마음속에
드림없을 삶의 구령소리처럼 들려오는
정시 출발의 목소리여

내가 생각하는것

새해에는 무엇을 쓰겠는가?

편집부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지만 나는 그것을 시대와 인민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었다.

사람이란 태어나자부터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그 삶을 마련해주는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복무할 의무를 지닌다.

평범한 나날에는 조국앞에 지닌 그 의무가 범상한 일로 표현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이렇다할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지만 조국이 어려운 때는 매개 사람들이 지닌 의무가 자기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그 사람의 삶의 길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당과 수령 앞에 지닌 의리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의무에 대한 성실성의 징표인 그 흔적은 각자의 심장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며 심장에 영원히 기록되어 생활의 계기마다에서 그를 기쁘게 혹은 괴롭게 만들며 삶을 락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대하도록 추동하기도 한다.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독자들에게 자기의 삶의 흔적을 생각하게 하고싶고 앞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자기가 남긴 생활의 흔적을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라고 호소하고싶다.

나의 사색이 얼마나 형상으로 옮겨지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중편소설 《생활의 흔적》을 올해안에 완성하려나.

소설가 김흥무

약속

공화국창건 마흔돌이 되는 이 뜻깊은 해를 맞으며 저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누구나 신년벽두의 각오는 크고 높은것이지만 경사로운 9월의 명절을 맞을 이해의 각오는 더욱 류다른것으로 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하기에 어머니조국의 기념일에 공민으로서, 작가로서의 남부끄럽지 않은 선물을 마련해야 할 자각을 가슴깊이 느낄수록 어깨 또한 무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지도일군들의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숭고한

자세와 위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새 중편소설 《자기 위치》를 세상에 내놓으렵니다. 아울러 단편소설 창작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단편작가로서 독자들과 더욱 친숙해보렵니다.

의심할바 없이 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길래야 어길수 없는, 조국앞에 드리는 아들의 결의이며 독자들에게 한 철석같은 약속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겠습니다.

소설가 박찬은

심장의 속삭임

새해를 맞는 아침, 생각은 깊어진다.

건설자들은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애쓰고 농장원들은 더 풍만한 낱알을 걷어들이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솟눈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어떤 좋은 작품을 써야 시대와 혁명 앞에 기여할수 있을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이 요구하는것을 쓰는것이 바로 당의 작가라고 말씀하시었는데 나는 과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작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게 써왔던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기에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다소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는 시와 노래, 우리 당이 요구

하고 바라는 훌륭한 작품을 쓰기 위해 우리 작가의 심장이 있고 필봉이 있고 나래치는 지혜가 있는것이 아닌가.

불태우자 심장을,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보탬을 드릴수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 펜과 원고지를 안고 들끓는 현실속의 산 인간들을 찾아가자.

새해에는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더 좋은 시와 노래들을 내놓기 위해 순간순간도 편차없이 정보로 걸어갈 결심이다.

시인 이정술

새로운 주제의 중편소설을!

지금까지 나는 주로 현실주제의 작품들을 많이 다루어왔다. 발표된 두편의 중편소설은 물론이고 단편소설들도 거의나 다 현실생활을 취급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새해에는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써볼 생각이다.

요람속에 태어나 오로지 행복만을 알고 자란 우리의 새세대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야 할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될수록 많이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지난날에 대하여, 혁명선렬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하여...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응당 많이 말해주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이제는 거의나 다

해방후에 태어나 자란 새세대들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현실생활만 붙들고있어서는 안될 아동문학작가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나는 새해에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아동중편소설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필요한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쓰는 일만이 남았다. 새로운 생활이라 쓰는 과정에 고충이 없지 않을터이지만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나의 새해결심 또한 여느 때없이 높다는것을 나는 숨기지 않는다.

아동문학작가 리준길

평론다운 평론을 쓰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가슴에 마쳐오는 생각은 문학발전에 이바지하는 평론, 사람들에게 읽히우고 도움이 되는 평론다운 평론을 쓰고싶은 것입니다.

평론은 꺼질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의 산물이며 하나의 독자적인 창조의 세계입니다. 참다운 평론에는 시대의 깊은 철학과 아름다운 미학이 있어야 하며 평론가의 새로운 예술적 발견과 그에 고유한 억양을 타고 울리는 절절한 호소가 있어야 하는줄 압니다. 평론가의 얼굴과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평론》으로 독자들을 난처한 립장에 놓이게 하고싶지 않으며 문학애호가들과 마을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이상으로 더 새롭고 뜻이 있는 말을 들려줄줄 모르는 《평론가》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

정입니다.

지금 평론에 대한 당의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있음을 저는 깊이 깨닫고있으며 어깨우에 실리는 무거운 짐을 또한 심장으로 받아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평론다운 평론을 쓸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여주고있으며 당적인 평론문학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고있습니다.

저는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을 안고 올해에 평론가의 뿔이 있고 그 얼굴의 표정조차 비껴있는 글, 그리하여 작가와 독자들의 다정한 벗이 되고 친근한 길동무가 되는 참으로 평론다운 평론을 써보려는 속다짐을 하고있습니다.

평론가 오승련

순천으로!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도도한 강물의 흐름처럼 온 나라의 마음이 굽이쳐가듯, 순천은 오늘 인민의 마음속에 기쁨과 미래라는 말처럼 자리잡고있다.

철따라 자식들의 옷감을 고르는 너인들속에서, 위문편지묵음을 안고 체신소로 달려가는 나 어린 소년단원들속에서 문득 듣게 되는 순천이란 말속에는 시대의 한결같은 마음이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9년까지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앞에 나선 전망목표를 제시 해주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한 온 나라는 또다시 크나큰 격동과 흥분 속에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의 완공을 위한 총진군운동에 펼쳐나섰다. 시대의 이 장엄한 숨결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호흡하고 대진군의 대오속에 뛰어들것은 우리의 시인들이었다.

열정의 노래를 안고...

창조와 위훈의 북소리 진군의 대오앞에 높이 울리며...

시인들이 만나는곳

지성 어린 지원물자며 여러가지 규격의 관들, 크고작은 기계들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의 행렬속에 섞여 순천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빠스안에서는 떠나면서부터 화제에 오른 비날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줄 모르고 이어졌다. 벌써 하늘가에 흰 연기를 뭉게뭉게 피워올리고있는 화력발전소굴뚝이 바라보이는 순천갑문어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비날론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1 단계 생산공정을 성과적으로 완성한 기세로 10 만톤능력 조성을 위한 총돌격전에 들어간 건설장에 들어서는 우리의 가슴은 더욱 흥분으로 부풀어올랐다.

《대동강물을 보장하기 위한 연 55 리 구간의 공업용수개통공사 완공!》

힘있는 전투속보의 글발들은 가는곳마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대동강을 끼고 련포벌과 룡암벌의 넓은 구간에 하나의 큰 도시처럼 자리잡은 모든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자면 며칠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것처럼 넓은 건설장구내에서 시인들을 만나기란 쉬운일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는 비날론구역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방사직장 트라스조립장에서 시인들의 현지창작을 위해서 나온 조선문학창작사 문학지도일군들인 김성조, 리동후 동무들을 만났다. 이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들의 불철주야 경제선동과 현지창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벌써 여러차례의 시랑송모임과 시인의 밤에 출연한 시인들이 잠시후 있게 될 휴식시간에 또다시 시랑송모임에 출연하게 되었다는것이 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설장을 바라보니 령장을 달고 군보를 쓴 군인건설자들과는 다른 작업복차림의 《건설자》들을 알아볼수 있었다.

그들이 바로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인 시인 리정술동무와 시인들인 백하, 전병구, 변홍영, 김만영 동무들이었다. 낯익은 얼굴들만 아니었다면 알아볼수 없는 모습이었다.

목에 걸친 수건, 땀배인 작업복에 통장갑을 끼고 건설장의 한뼘을 맡아 능란한 솜씨로 일해 나가고있는 그들역시 건설장의 주인들이었다.

잠시후 우리는 단 몇달동안에 방사직장건설에 진입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한 동무들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친 치하의 교시를 받은 조선인민군 김창영동무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과 나란히 앉아 감동적인 시세계에 심취해버렸다.

흐린 하늘에서 금시 눈이 쏟아질듯 음산한 날씨였으나 누구 하나의 얼굴에서도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수 없었다.

흰 머리오리가 드리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얼굴을 높이 들고 쾌기있게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며 시인 백하동무는 열정적인 시를 읊었다,

...

여기선 밤이 깃을 퍼지 못한다
한가닥 찬서리도 내리지 못한다
온 공사장이 불이 되고 열풍이 되고
어둠의 장막을 막아선듯
바귀는 계절도 막아선듯

오, 하늘이 소리치고 땅이 소리친다
희한스런 소식을 온 세상에 웨친다
울 겨울엔 련포벌에
비날론 눈이 내린다오
사랑의 숨눈이 내린다오 !

시랑송에도 재청이 있었다. 시랑송이 끝나자마자 터져오른 요란한 박수속에 몇명의 군인건설자들이 달려나와 시에서 받은 감동을 터치며 새로

운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를 요구했다.

텔레비존방송기자들은 이 격동적인 화폭을 련속 화면으로 기록했고 록음했다.

뒤이어 전병구동무의 시 《온 나라가 바라보고 있다》를 비롯해서 변홍영동무의 《들끓는 땅》, 김만영동무의 《순천이여, 그대의 이름은》, 리정술동무의 《하나의 신념》, 리동후동무의 《무지개》 등 짧은 휴식시간에 읊은 모든 시들은 건설자들을 흥분시켰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무대아닌 무대로 달려나왔다. 맹세도 새롭게 다지고 잊지 못할 영광의 날도 추억하면서 그들은 고동구호도 힘있게 웨쳤다.

온 건설장이 또다시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마치 터친 물목처럼 기세충천한 돌입이었다. 사랑송이 끝나기 바쁘게 시인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전투구역》으로 흩어져가 건설장의 분위기에 휩쓸려버렸다. 불과 몇십분이 지나서부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알리는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투속보들이 나붙었다.

우리도 건설자들속에 어울려 한동안 땀을 흘리고있는데 바로 옆에서 반가운 상봉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같은 작업복차림의 또 한패의 시인들이 나타났던것이다.

시인 차승수, 최장수, 정영호, 권강일, 강남섭동무들이었다. 그들은 화력발전소와 다른 구역들에서의 경제선동을 마치고 공사의 마감단계에 들어선 여기로 오던 걸음이었다. 오래간만에 잡아보는 손들에 정이 엉키는듯 한참씩 장알진 손들을 마주잡고 유쾌한 룡담도 주고받았다. 《건설자가 다 됐구만.》, 《저기 나붙은 시인들에 대한 특보만 아니었다면 알아보지 못할번했네.》...

또다시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룡담들...웃음소리...

그들의 상봉은 한순간이었다. 처음 만나는 병사들과도 구면처럼 격식없는 통성속에 어느덧 그들모두는 들끓는 순천의 거창한 흐름속에 잠겨버렸다.

이들이 떠난온 고장은 서로 달랐다.

허나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의 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령도밑에 대비날론기지로 일떠서는 보람찬 시대의 이 장엄한 현실속은 이들의 《창작실》이었으며 어느때나 만날 수 있는곳이었다.

불빛은 밤에 더 선명하다

밤은 어제와 다름없이 어김없는 그 시간에 어둠을 안고 왔다. 그러나 순천의 하늘가엔 지지 않는 해가 떠있는듯 어둠이 깃들지 않았다.

아슬한 합성탑 꼭대기며 높이 솟은 강철 추녀마다엔 창조와 건설의 불빛이 밝았다. 끝간데 없

이 이어진 자동차행렬의 전조등 불빛이며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용접의 화광... 경제선동대원들의 힘있는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건설장은 어둠과는 인연이 없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순간순간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여기 대비날론기지건설장엔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야간교대 나오는 건설자들속에 끼워 로 동체말기에서 지상확대식 원통말기를 대담하게 받아들여 한달이 걸린다면 로 동체조립을 단 7일동안에 해제긴 공사속도를 또다시 4 배로 앞당긴 카바이 드직장 건설장에 들어서던 우리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의 큰 체육관을 방불케하는 큰 지붕아래서 귀에 익은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왔기 때문이었다. 멀리서도 우리는 그 목소리의 입자들을 알아보았다. 마치 합창시를 하듯 시인 차승수, 최장수, 정영호, 권강일, 강남섭 동무들이 나란히 서서 건설자들을 위한 시인의 밤 무대를 펼치고있었다. 원고지도 들지 않고 한손에 작업모를 움켜쥐고 즉흥시를 읊는 모습은 열정에 상기되어있었다. 철사다리우에서 쏟아지는 용접불꽃들은 마치도 그 목소리와 활기넘친 손저음에 날리는것 같았다.

...

오, 노래하노라

아버이수령님 기다리고계시는

비날론 꽃송이 쏟아질 그날을 앞당겨

깊은 한밤에도 날새벽에도

아슬한 트라스를 내릴줄 모르는

저 용접공의 불꽃처럼 타는 그 진정음

...

대형기중기들과 각종 기계들의 동음도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것 같았다. 우리는 건설자들속에 둘러싸여있는 여러 시인들도 볼수 있었다.

건설자들은 그들의 자작시침을 빌려 자기들의 땀배인 수첩에 소중히 시를 옮겨베끼고있었다.

쓰다가는 웃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흥분을 진정할수 없는지 소리내여 읊어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시인에게 악수도 청했다. 참으로 감명깊은 화폭이었다. 얼마나 시에 감동되었으면 보람찬 건설의 나날 자신들의 티없는 마음과 잊지 못할 사연도 적었을 그 귀중한 수첩들에 저렇듯 한줄 한줄 가슴에 새기며 적어넣겠는가, 시인들이 보여주는 한편한편의 시들에서 우리는 시대의 가수로서의 시인들의 불길같은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불타는 심장의 호소가 맥박치고 희망에 넘친 열정의 글발들이 조업의 꽃보라가 날릴 기쁨의 그날을 안겨주기도 했다. 현지에서 창작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진실로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방침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열광적인 박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우리는 다시금 앞을 바라보았다.

시인 권강일동무가 마이크앞에 나서고 있었다.

그는 시랑송에 앞서 제가 《영웅소대》원들속에서 체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제가 쓰게 된 시 《영웅소대》의 창작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시의 결구에서 그는 순천의 대비날론기지 건설자 모두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힘있게 웨쳤다. 때를 같이하여 몇명의 제대군인건설자들이 일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보람찬 시대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이 건설전투장에서 모두다 위훈의 창조자, 건설의 영웅이 되자고 힘찬 고동구호를 웨쳤다.

수백명의 건설자들이 주먹을 주켜들며 이 구호에 화답했다. 이 승고한 군상들속에는 시인들도 주먹을 높이 들고 함께 서 있었다. 높이 든 그 주먹들에는 땀만이 아닌 기어이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신념의 맹세가 어려 있었다.

순천의 하늘가에 창조와 위훈의 불빛이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바로 이들 모두가 건설장의 밤을 밀어낸 거창한 불빛의 주인들이었다. 그 불빛속에서 우리는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화학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될 황홀한

광경을 신심 넘친 가슴마다에 흐뭇이 그려볼 수 있었다.

그렇다. 열정의 노래, 혁명의 북소리 높은 순천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쁨과 행복의 대명사로 아로새겨질 것이다.

온 나라에 차고넘칠 그날의 웃음소리를 안고 순천의 밤은 더욱 행복한 조국의 새 아침을 안아 올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장에 타오르는 거창한 창조의 불길은 조국의 하늘가에 뚜렷한 빛발로 새겨지고 있었다.

×

전당, 전국이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을 제기일만에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의 모든 작가들과 시인들은 오늘도 이 벽찬 건설전투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보람찬 건설장의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간 우리의 작가들과 시인들은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건설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모든 작가들과 시인들은 앞으로도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더욱더 특색있고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명작창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일규

무 지 개

리동후

약동하며 설레이며
련포벌이 들끓는 비날론건설장에
소리없이 내리는 비방울 비방울...

내리는 찬비를 어깨우에 맞으시며
힘찬 진창길 몸소 헤치시며
건설자들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

현장마이크 손에 드시고
해빛밝은 미소를 보내시며
몸가짜이 불러주신 은정깊은 그 음성

이 땅우에 비날론공장을 만년대계로
우리 함께 어서빨리 일떠세우자고

그리도 간곡히 말씀하실제

다함없는 그 믿음에 가슴들먹이며
위대한 모습 우리르는 얼굴마다
흐르느니 비물인가 눈물인가

순간 내리던 찬비는 가신듯 멎고
아슬한 함성탑, 트라스 저너머
령룡한 무지개 하늘가에 비졌을 때

아, 우리는 보았더라 분명히!
온 나라 인민을 감싸안을 비날론 꽃무지개
아버이 그 사랑 어려있는 행복의 무지개를

오 실 때 에 는...

리정술

오실 때에는
우리 수령님 오실 때에는
순천땅 넓은 련포벌에
비날론공장의 화려한 전경도가
드문드문 서있었을뿐...

다시 찾아오시여
수령님 걸으실 때는
여기저기 파헤쳐진 흙무지들과
하나둘 일어난 기둥들이 있었을뿐...

아직은 없었다 모든것이
초소를 떠나 달려온 군인들도
언제한번
석회로를 본적 없는
나어린 전사들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꿈은 컸어도
그 꿈을 나래펼칠줄 몰랐던
생소한 땅의 나어린 전사들이었다

허나 그날에... 눈빛들은 빛났다
수령님 걸으시는 자욱자욱 따르며
그들의 마음 한콧으로 흘렀고
그들의 생각도 한콧으로 깊어져갔다

안개비 맞으시며 걸으시는
수령님의 한걸음 한걸음이
천만자욱의 무게로
전사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우리 수령님 찬비를 맞으시며
손수 마이크를 손에 드시고

당은 동무들을 믿고 비날론공장을 세운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실 때

전사들은 느꼈다
제 가슴에 안고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뜨거운것을...

전사들은 보았다
늘 딛고 살며 바라보던 이 땅이
허허벌판이 아님을
건설장에 세워진 비날론전경도가
한갓 아름다운 그림이 아님을...

아, 그날에 안겨주신 그 믿음
전사들의 피가 되고 숨결이 되고
그날에 펼쳐주신 황홀한 그 미래
전사들의 가슴에
비날론 무지개로 피어올랐거니

우리 수령님
떠나가실 때에는
전사들의 가슴엔 숨쉬고있었다
대비날론공장의 장쾌한 동음소리...
방사직장의 은빛지붕들이 ...
전사들은 보고있었다
온 세상이 바라보는
주체조국의 빛나는 그 모습을...

아, 우리 수령님
한번 걸으신 그 자욱우엔
빈터에도 기념비 솟아나고
한번 손들어 사람들의 가슴 쓰다듬으시면
그들모두가 무적의 영웅이 된다는것을
전사들은 알았다, 력사의 그날에 ...

나는 만나보았노라

백하

나는 만나보았노라
동암벌 런포벌
벌과 벌을 걷고 또 걸으며
신문에서 그리던 그 사람들을

나는 만나보았노라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그 억센 손을 쓸어도 보았노라
허허벌판에
대비날론기지를
안아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구상을
백리 무쇠지붕으로 이어가는 사람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담대한 결심을
강철기둥의 숲으로
벌가득 일떠세우는 사람들

그대들의 용접봉끝에서
끝없는 비단폭포가 시작되리
그대들의 번개치는 일손에서
천리 황금물결이 일어서리
이 땅의 만년채부가 꽃피나리

용접면을 가리고 불물을 잇는 동무여
그대도 보여달라, 그 자랑넘친 눈빛을
까마득히 강철보우에 선 연공동무여
그대도 보여달라, 그 궁지에 찬 미소를

다 보고싶다, 그대들의 얼굴을
아, 머나먼 두만강 기슭에
아득한 서해의 한끝에,

정든 집을 두고 애인을 두고
여기서 해와 달을 보내며
순천벌의 눈비를 다 맞고선 그대들이여

다 보고싶다, 조국에 바치는 진정이 습벤
그 소금발 돋은 작업복을
다 보고싶다
화려한 유보도도 꽃길도 아닌
건설장의 눈발에 색날은
기증기공처녀의 그 머리수건을,

자랑하노라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자기의 심장을 이어놓은 그대들
우리 당의 위대한 창조물에
보람찬 삶을 기초로 묻은 그대들

나는 보았노라
몇해후이면 벌써
이곳에서 찾을수 없을 숨은 영웅들을
비날론숨을 온몸에 받으며
사람들 황홀한 동경속에
전설같이 그려볼 기적의 창조자들을

오, 나는 만나보았노라
우리의 후대들 끝없이 이곳에 찾아와
세상의 만복을 다 받아안고
목매여 부르고 또 불러볼
순천비날론 건설의 영웅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린 충성의 별들을
나는 오늘 만나보았노라

온 나라가 바라보고있다

전병구

아름다운 나래를 활짝 펼치는듯
은빛지붕을 엮는 순천이여
그대를 바라보는것은
즐거운 려행길의 차창너머로
가슴 흐뭇이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들바람에 가버이 옷자락 날리시며
어버이수령님 여기에 오시던 날

맹세의 보고를 올리던 그 병사들의
감격의 소식을 받아안던
교향집의 그 어머니들만이 아니다

런포벌 연연 수십리-
삼동추위 혹한을 밀어제끼며
콩크리트 첫기둥이 아슬히 일어설 때
순천이여 온 나라가 감격에 설레며 바라보았다

찬란한 래일의 꿈을 안고 바라보았다
 등실 떠가는 흰구름장을
 비날론숨으로 안아내릴듯
 하늘을 스치며 합성탑이 머리쳐들 때
 비날론천 필필이 쌓여진 매대앞에서
 행복에 웃음지을 그 마음들이 바라보고있다
 순천으로 떠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텔레비존화면으로 아이들이 바라보고있다

순천으로 강철을 보내며
 순천으로 세멘트를 보내며
 순천으로 펄펄 끓는 동해의 물고기를
 긴긴 렬차에 실어보내며
 그대 건설의 소식에 잠 못들던 그 마음들이
 바라보고있다

꿈 아닌 행복이 꽃피는 이 땅우에
 뜨거운 숨결을 내뿜으며
 얼마나 거창하게 일어서는것인가
 조국의 자랑! 순천이어

온 나라가 바라보고있다
 사랑하는 조국을 비날론으로 덮으며
 기세충천한 순천의 기상
 심장속에 불을 달고
 뜨거운 진정을 바치는
 순천사람들의 불굴의 모습을

날과 달이 흐를수록 더욱 꽃피는
 가지가지 위훈의 이야기
 무지개발 비날론에 새겨갈 그날
 준공테프를 눈앞에 그려보며
 나라의 앞장에서 달려가는 순천이어!

비날론을 보고싶어
 비날론 꽃천을 만져보고싶어
 순천과 함께 황홀한 미래의 꿈을 꾸는
 온 나라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며
 어버이수령님 순천을 지켜보고계시여라
 순천의 비날론을 기다리고계시여라

하늘이어 땅이어, 우리 사는 세계여

차승수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입술을 벌리고
 흐르는 대기를 한껏 빨아들이려는듯
 굴뚝같이 긴 목을 하늘높이 추켜든
 공기흡입탑을 바라다보며
 왜 이리도 눈시를 후터워지는가

억년 퍼올리고 퍼올려도 못다올릴
 저 석회석의 산악을 통채로 들어삼키려는듯
 거창한 손길을 뻗치며 뻗어가는
 벨트콘베아의 무쇠기둥에 가슴을 대이며
 왜 이리도 목메는 걱정을 누를길 없는가

세상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진 그날로부터
 인간의 머리우에 무료로 흘러가던 그 공기

인간의 발밑에 말없이 잠자던 그 돌무지

인민들의 온몸을 포근히 감싸줄
 비단숨으로 고이 안아내리시고
 인민들의 식탁우에 풍성하게 고여줄
 행복의 무게로 귀중히 받아들여올리신
 우리 수령님

이제 더는 머리우로
 순간도 흘러보냄이 아까우시여
 이제 더는 발밑에
 한자옥도 밟고감이 아까우시여

오시였구나 우리 수령님
 허허벌판 풀대만이 무성한 여기로
 사나운 강바람에

휘뿌리는 모래밭 헤치시고

오시였구나 우리 수령님

대대로 버림받던 외진 섬의 갈숲을

비단섬으로 안아오신 그 걸음으로

대대로 값없이 흘러가던 강물을

행복의 호수로 안아오신 그 걸음으로

여기다 자리를 정하자고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히 말아두셨다고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흐뭇이 둘러보신 수령님

무료히 흘러가던 하늘의 공기도

세기로 버림받던 땅속의 돌무지도

우리 행복의 억만 재부로

소중한 《생명선》으로 이어주시였거니

그 사랑으로

지구우에 빛을 잃었던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이

인민의 행복 위해

소생의 뿌리 내리고

속절없이 흘러가던 무심한 강물도

구슬처럼 방울방울

인민의 기쁨으로 아롱지며 샘솟는 이 땅!

그 은덕으로

검은 연기 토하던 굴뚝마다

희망의 흰구름 피워올리고

설레는 잎새마다 피어나는 꽃송이마다

꿀같은 향기를 풍기고

뽑아올리는 분수의 무지개로

삶의 희열을 수놓아가는 저 하늘!

오, 그 끝을 모르는

수령님 사랑으로 열리고

그 기슭을 모르는

수령님 은덕으로 펼쳐진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 사는 세계여

너는 그대로

아버이수령님의 넓은 품

너는 그대로

만복을 누리며 인민이 살아갈

영원한 주체의 세계이여라 !

한마음

강남섭

해저물녘이면

건설장에서 만나는 그 동무

그도 나처럼

지원 나온 동무

뜨는 달 웃는 별도

예서 바라보며

비날론합성탑도 함께 세우고

배관도 함께 묻은 그 동무

그 동무는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그 동무는 어찌나 열혈청년인지

눈바람 맴판 겨울밤엔

모닥불도 마다하고 땀을 흘리던

그 동무는 통장갑 낀채로

하모니카도 끈질 부는 동무

때로 밤전투 벌리다

마지막 통근차를 놓쳐

총총 밤길을 걸어

함께 순천다리 건너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런 밤 그런 걸음이

왜 그리 즐거웠던지

그럴 때면 왜 자꾸 눈앞에

비날론 꽃무지개가 어려왔던지

그도 그랬대요

그렇듯 서로가 한생각이니

마음도 건설장에 바치고만싶은

지원의 한마음

우린 한번도 여기 오자고

서로가 약속하고 오는것 아니예요

그는 그대로 제 좋아 오고

저는 저대로 제 좋아 오고

제 좋아서 자꾸만 달려오는

백사람 천사람 만사람

뜨거운 그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

순천땅에 비날론공장이 일떠선다오

땅을 넓혀가는 사람들

리수용

렬차는 여전히 기세 좋게 달리고 있었다. 흰눈이 덮인 논밭들이 차창밖으로 끝없이 흘러갔다. 마치 대지는 포근한 이불속에 고요히 잠들어 풍년씨앗을 움티울 새봄을 꿈속에 그리는 듯했다.

나는 예정보다 빨리 취재를 끝낸 다음 현지에서 원고집필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칸은 복잡하지 않았다. 나는 기사원고를 다시금 풀어볼 생각으로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들었다.

아까부터 나에게 자리를 권하며 친절히 대주던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한다는 아버지가 눈이 둥그래서 원고를 들여다본다.

아직까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기사들은 많이 읽었어도 원고가 활자화되어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곡식을 가꾸는 것처럼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는 인민학교 학생들의 학습장 모양 가로세로 줄을 친 원고지에 갈겨 쓴 원고에 무척 호기심이 동한 모양이었다.

《땅을 넓혀가는 사람들》 하고 그는 소리내어 읽었다. 그바람에 주위의 못시선이 나에게 쏠린다.

《신문에 낼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 그거야 보나마나지요. 글이란 제목을 보면 내용까지 짐작할 수 있단말입니다. 제목이란 글의 얼굴이니까요, 아마도 우리 간석지건설자들을 소개한 실화나 방문기나 그러루한 것이겠지요.》

맞은편에 앉은 청년, 평북도의 어느 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지금 결혼식을 하고 오는 길이라고 반죽종게 자기 소개를 하던 그 청년이 간석지건설자의 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 한마디 끼여든다.

《모르는 소리, 간석지를 막는 사람들만 땅을 넓히는 줄 아나? 우리 농장에서든 지난해에 술한 땅을 늘렸어.》

《물론 강쪽을 막고 돌각담을 들어내서 얻는 땅도 새땅인것만은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땅을 넓힌다고 할 때는 바다를 막아야야...》

《차, 이 사람이 바다를 막는 일에서 통이 커졌다구 몇평은 땅으로 치부도 않누만. 진짜 실속있게 땅을 늘리는 것이 농군들이야. 아무 말이나 탕탕...》

그들의 싱갱이질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면서도 시선은 나에게 묻는 듯했다.

《내 말이 맞지요?》 라고.

《동무도, 아버지의 말씀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주인공은 간석지건설자도 농장원도 아닙니다.》

《? ? ...》

한동안 내 얼굴만 쳐다보던 청년이 말했다.

《기자동지, 실례지만 원고를 좀 볼 수 없습니까.》

나는 좀 망설이다가 의견을 듣고 싶어 원고를 넘겨주었다.

말하자면 기사합평이 시작된 셈이다. 그는 읽는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은 포성이 없는 하나의 대격전장이었다. 자주 찾는 건설장이지만 번마다 새로운 감동과 흥분을 안고 신심과 용기와 희망으로 가슴이 부르는 건설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이곳 건설자들의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는 건설장, 혁명의 목소리 높이 울리며 날마다 새로이 창조되는 기적속에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건설장에 들어서니 며칠전만 하여도 기동만 솟았던 곳에 충막이 없혀지고 벌써 강철들보를 조립하고 있었다.

제 51 건설사업소 현장지휘부에서 만난 이곳 책임일군의 안내를 받아 비날론건설장구역의 주건물인 방사직장건설장에 이르니 나의 주인공 연공작업반장 왕지문동무는 한창 강철보조립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청년은 읽기를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

《아니, 간석지건설장이 아니라 비날론건설장의 연공작업반에 대한 이야기군요?》

나는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다. 그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기중기처럼 꺾두룩한 키, 검실검실한 철색의 얼굴, 40 대의 체구는 강철로 빚은 것처럼 단단했다. 한손엔 기발을 들고 입에는 호각을 문채 전투를 지휘하는 그 동작은 20 대의 청년 못지 않게 날렵했다. 가늘게 쪼프러 뜬 그의 눈은 멀리서 볼 때에는 웃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매눈처럼, 강철보중심에 날카롭게 겨누어져 있었다.

황황 불타는 듯한 그 눈에는 그 어떤 드림없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의 손은 불로크장처럼 크고 넓었으며 기둥이라도 올려놓을 만큼 두툼했다. 그 손으로 이따금씩 턱밑을 쓰다듬으며 생각을 굴리기도 했다. 마치 연공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의 수리개 같았다.

20 대에 룡흥벌에 2.8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운 연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아마도 그때부터 여직껏 연공으로 일해온다고 했다.

부쩍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에게 다가섰다.

강철보에 박혔던 눈길이 나에게 돌려지더니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그것도 한순간이다.

다시 울리는 긴 호각소리, 기발든 오른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다가 핵 내려진다. 또하

나의 강철들보가 제자리에 들어선것이다.

뒤이어 강철들보 랑쪽끝에서 용접불꽃이 쏟아져내린다.

《미안합니다. 건설장이란 이렇게 손님도 몰라보는 때가 더러 있답니다.》 연공작업반장은 어쭙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참, 건설속도가 빠릅니다.》

《웬걸요. 조업기일이 늦어질가봐 걱정입니다.》

역시 연공다운 겸손한 말이다.

《우리 연공들은 지금 조국의 땅을 넓혀가고있다는 긍지를 안고 저렇게 일손을 다그쳐대고있습니다.》

어떻게 조립속도를 높일수 있었는가 하는 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 그는 제자랑은 몰랐지만 건설장자랑은 곧잘 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땅을 넓힌다면 새 땅찾기나 간석지건설을 생각할것이다. 이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도 땅을 넓히고 있다.

그것도 굉장한 새 땅을!

거창한 규모로 건설되는 대화학공업기지, 이것이 완공되면 여기서 한해에 생산되는 비날론숨을 목화숨으로만 환산해도 알곡생산에서 손꼽히는 문덕이나 숙천, 평원같은 큰 농업군을 수십개나 얻는것으로 된다.

그러니 이곳 건설자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넓히고있는것인가 ! 이만하면 땅을 넓힌다는것이 사실이라는것을 리해할것이다.

그러니 가슴부푸는 희망찬 앞날이 눈앞에 펼쳐있거늘 건설자들의 신심과 용기가 어찌 높지 않으랴 ! …

《참 굉장하구만요. 우리 간석지건설자들 못지않게 땅을 넓혀가고있군요.》

청년은 읽기를 멈추고 다시금 탄성을 지른다.

말싱개이질을 하던 농장의 작업반장도 주위사람들도 놀라운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청년은 기사를 계속 읽는다.

…연공작업반장대신 책임일군이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참으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작업반장뿐 아니라 작업반원전체가 한분새랍니다.》

이렇게 말꼭지를 뽀 주필동무의 이야기도 흥미가 있었다.

온 연공작업반은 휴식시간에도 좀처럼 땅에 내리기 아쉬워했다.

어느날엔가는 멀리 신양군 평원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자기교장 약수를 떠가지고 달려왔을 때에도 약수통을 기중기로 올려 층막우에서 마시며 일손을 다그쳤다.

건설속도가 빨라지자 조립에서 약간의 불균형이 조성되었다. 강철들보를 올려놓자니 층막까지

다 없어놓은 조건에서 현재의 기중기능력이 모자랐다.

조립순서대로 하면 층막을 없지 않은 조건에서 기둥사이에 16 톤기중기를 들여놓고 강철보를 올리게 되었는데 조립속도가 빨라 층막까지 올려놓으니 기중기가 들어설수 없게 되었다. 층막을 해체하느냐 70 톤급기중기를 새로 가져다 조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 기중기를 가져오자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야 했다. 그렇다고 층막을 해체하고 16 톤기중기로 강철들보를 올릴수도 없었다.

강철보의 무게는 25 톤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왕지문작업반장은 그 투박한 손으로 검실검실한 턱밑을 만지며 생각을 굴렸다.

한참만에야 무릎을 치며 일어난 그는 반원들에게 자기의 착상을 설명했다. 랑쪽기둥에 권양식도를 설치하고 강철들보를 올리자는것이였다.

착상은 기발한데 30 메터높이의 기둥우에 삭도는 어떻게 설치하며 조립은 또 어떻게 한단말인가? 일부 사람들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작업반장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추호의 동요도 몰랐다. 그의 결심대로 전투는 시작되고 이제 방금 보고온것이 바로 그 권양식 삭도에 의한 25 톤짜리 강철들보조립광경이라는 것이였다. 그들은 석달에 할일을 오늘까지 닷새 동안에 해체끼게 되었다.

왕지문연공작업반장-그는 이런 사람이였다.

그처럼 놀라운 일도 평범한 일로 여기고 그처럼 장한 일을 하고도 만사람들앞에 나설줄 모르는 사람,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 곳곳에 이런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 세일수 없이 많기에 건설속도는 이렇듯 빠른것이 아닌가 !

그렇다! 그들이야말로 순천의 대건설장에서 조국의 새 땅을 넓혀가고있는 사람들이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날 조국의 새 땅을…

청년은 기사원고의 마지막장을 덮어놓았으나 말이 없었다. 농장의 작업반장도, 다른 사람들도…

미더운 순천의 건설자들의 모습과 함께 머지않아 쏟아질 비날론폭포를 눈앞에 그려보는듯…

렬차는 쉽없이 달리고있었다.

원고속의 주인공도, 간석지건설자청년도 그리고 협동농장의 나이지숙한 작업반장도 모두가 기름진 옥로를 조국땅에 펼쳐가는 사람들이였다.

승강대기로 시작되였던 려객들의 대화는 한판으로 흘러갔다.

렬차는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자랑과 벅찬 희망을 싣고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리고있었다,

법칙

-한 로탄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정창윤

(제 3 회)

제 2 장 기쁨과 슬픔의 기록

라선동발의 첫 테 첫토막이 박히었다. 탄광은 혁신갱의 8번채탄장을 현모의 시험현지로 내맡겼다. 혁신갱의 본선 좌측구역에 넓은 탄폭으로 뻗어나간 채탄장이다. 갱장들은 자기네 채탄중대나 굴진중대들에서 낱과람있고 든든할뿐아니라 눈치 빠르고 손놀림이 정확한 청년들을 한사람씩 엄선하여 협조로력으로 보내주었다. 라선동발이 성공하여 갱마다에서 도입할 때엔 이 청년탄부들이 중심인물로 될것을 타산했었던 것 같다.

나는 이들로 조직된 시험작업반의 반장이며 시험채탄장의 총책임자였다. 허지만 북종질서상 연구사 리현모의 시험계획에 따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작업을 조직해주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켜보는 속에서 라선동발의 첫 테 네토막이 뚝 떨어졌다. 쥐여짜면 기름방울들이 줄줄이 흘러내릴것만 같은 일등급 탄맥의 주향방향을 따라 첫 돌과원이 뚫린것이다. 시험채탄장으로의 라선동발 전진각도는 수평이고 그 최종정지거리는 30미터이다.

이 구간에 라선갱도를 형성하고 전진속도, 채취률, 갱도의 안전성 그리고 지압에 의한 동발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게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주의를 집중하여 보아야 될것은 석탄층자체의 가축현상이다.

리현모는 동발을 다루거나 갱내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 서툴었다. 로친네가 집에 있는 나의 새 여벌 작업복을 아침에 입혔건만 점심참이 될 무렵엔 탄으로 매닥질을 해놓아서 우리 작업복이나 똑같이 되었다. 오래동안 갱일을 하지 않다가니 옛날 일처리를 하던 숙련된 동작들의 흔적은 있었으나 로동의 그 기민하고 룰동적인 박자는 잃고만것이다. 그런가 하면 축전지 혁띠를 맨거나 조명등이 달린 비닐안전모를 쓴것모두가 자리잡힌 느낌을 주는거란 하나도 없었다.

첫날이어서 탄광기사장 전성교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였다. 시험 첫날의 전진속도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V형강토막들을 런결조립하는 방법에서 요령이 체득되지 않아서 반복작업을 하노라고 떼였다 붙였다 하는것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그러는사이에 하루가 흘러가고 일주일이 흘러갔다. 굵은 속도였다. 하면서도 우리는 1미터 1미터씩 전진하여들어갔다. 생탄발이어서 넓은 폭에 비쳐지는 불빛들은 눈이 부시게 반짝이였다.

나는 수없이 많은 생탄발속을 헤치며 땅속길을 개척한 로탄부였다. 내 손에 의하여 처음으로 뚫린 기본굴진갱도들과 채탄갱도들은 그 연장거

리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만큼 길다.

그렇기때문에 지하의 자연풍경을 놓고 이렇게 할 새로운 기분에 잠겨보는 때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라선형의 동발을 세우면서 지하의 심연속으로 전진해나간다는것으로 하여 일하는 기분은 새로웠다.

나뿐아니라 시험작업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화된 채굴기재로 작업하는것때문에 전보다는 전혀 다른 기분이였다. 그래서 지치는 사람이란 없었다.

우리는 일하고 또 하였다.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였다. 북산속의 변쩍이는 황금탄발속을 헤치고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아득한 태고적에 무성했던 석송식물이나 고사리식물지대를 지나는가 하면 걸썩식물지대나 알씨식물지대를 지나갔다.

지금은 비록 석탄형성의 기원물질로밖에 달리 불리우지 않는 당시의 이 모든 식물들의 형태나 분포상태를 머리속에 그려본다는것은 황홀한 일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강물처럼 뻗어나간 탄맥의 주향방향을 따라가며 라선동발의 전진미터수를 늘쿠어나갔다.

시험작업반은 초기와는 다르게 3 교대로 편성되어 속도전을 벌리였다. 누구나 인제는 라선동발을 다루는데서 처음과 같이 서툴지 않았다. 현모와 나는 거의 24 시간을 작업장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압게도 탄층은 변덕을 모르고 고르롭게 뻗어나갔다. 배타는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가는듯하였다. 라선동발의 시험전진로상에는 적은 량을 품고있던 물웅덩이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째버럭이 막아버린 구역이나 진탄구역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라선동발의 시험성공을 바라서 변화많은 탄맥도 좋은 얼굴만 내밀어주는듯하였다.

그러나 현모는 매 시각 시각을 초긴장속에서 지내였다. 한메터한메터를 전진할 때마다 전연에 그 어떤 이상징조가 나타날 위험을 당장 느끼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였다. 라선동발의 안전상태가 담보되고 지질적 안전이 담보되고있음에도 그의 긴장은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특히 라선동발의 전진거리가 15미터를 지나게 된후부터는 약간의 지압변동이 와도 신경을 곤두세우곤하였다.

현모는 먹는것 잠자는것도 현장이였다. 자신의 건강같은건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라선동발의 시험전진도상에 그 어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였다. 시험기간에 현모의 얼굴은 몰라보게 축이 갔다. 살

이 쪽 빠진 얼굴은 턱끝이 뽕죽해질지경으로 변해버렸다. 입술은 말라터지고 전날의 조용하고 깊이있던 사색적인 시선은 초조때문에 집중력을 잃을 때도 많았다. 멀리 어데선가 고굴의 빈 공간을 향하여 우뢰가 울듯 지압에 밀린 산속의 어느 한 모퉁이가 허물어지면서 우르르 꺼져내릴 때면 라선동발이 모조리 짓눌리거나 넘어질가봐 앞과 뒤, 좌우 양옆을 살피며 공포에 질리곤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마디씩 하곤 하였다.

《안심하라구. 저건 먼 구역이야. 우리한테는 큰 짐이 오지 않고있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나 역시 현모 못지 않게 근심되곤 하였다. 아직은 아무런 파악도 없는 비행기나 땅크나 군함을 타고 캄캄한 어둠속을 가고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모보다 몇배나 더 큰 불안을 안고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모보다 땅속의 위험성을 더 많이, 더 잘, 더 깊이 알고있는 백전출병의 로콜이었기 때문이다. 뼈도 굵기전부터 탄을 캐면서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땅속의 위험이란 위험은 겪지 않은것이 없는 나였다.

물통이 터져서 강물처럼 된 갯도를 헤엄쳐나온 일도 부지기수였다. 천정이 무너지고 편결갱도들이 주저앉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몸이 되거나 쏟아져내린 탄속에 묻힌 때도 헤일수 없으리만치 많았다. 그때마다 생명을 구원해준것은 오직 내가 의지하고있는 동발들뿐이었다.

동발-이것이 곧 탄부들의 생명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나였다. 하거늘 그 누구에게도 파악이 없는 라선형 동발을 박으면서 벌써 깊은 구간까지 뚫고 들어온 지금에 와서 땅속의 조화놓음에 대하여 안심할 내가 아니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지압이 우리쪽을 향하여 공격이동을 하지 않아서 모든것이 무사하다. 동발의 변화상태도 안전상 특별히 기록할만한 현상을 보여주지 않고있다. 전진 전면에 위험이 나타날 징후도 보이는것이 없다. 현재상태는 매우 좋다. 그러나 래일도 좋으리라고만 생각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탄부들의 배심그대로 그때에 가서 처리할 일거리다. 다만 유감스러운것은 현모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것이다. 현모는 매 걸음걸음 극도의 조심속에서 전진하더니 25메터구간에 이르자 드디어 정지구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전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라선동발의 첫 테를 박았던 출발지점으로부터 25메터를 전진해왔으니 앞으로 5메터만 전진하면 계획된 거리로서는 종착점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 5메터 돌파를 그가 주저하고있는 것이다. 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코밑과 턱 밑에 수염이 길다랗게 돌아난 현모는 우울한 기색으로 전진을 멈춘채 서있는 라선동발전개구간의 구석구석을 간간히 살피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는 전진을 멈춘 현재의 구간에서 자기가 시험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현상들을 관찰하였고 그 관찰결과를 일지에 적어넣었다.

그 어느 하루의 일지기록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라선동발의 형태변화는 없다. 라선동발의 특징을 이루는것들중 하나로 되는 지압의 분포담당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라선동발의 기초원리로 되는것 즉 동발자체가 아니라 석탄자체가 가축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소에서는 그에 대하여 묻는 전보가 오늘도 왔다. 벌써 네번째 전보다 ...

현모는 바로 이것때문에 라선동발의 전개구간 벽면들을 센치미터 단위로 쪼개면서 관찰하고 또 하였다. 연구소내의 실험실 갯도에서 높으로 정밀주조한 라선동발에서는 명백하게 볼수 있었던 그 자신의 발견원리를 이곳 현지시험장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는 미치고말것 같은 인상이었다.

후일에 이르러 어느 한 박사가 학보에 《그는 바로 이것으로 하여 대단한 발견을 하였던것이다.》라고 쓴바 있는 그 《역가축》원리인것이다.

현모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잊으며 동발의 테와 테사이에 다리가 뻗뻗해질 때까지 서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처음에 3번테와 4번테사이에서 이 현상을 보게 되었고 5번과 6번사이에서 그다음은 전구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것을 보게 된것이다.

현모가 그것을 보게 된 첫 순간은 얼마나 사람처럼 동발의 어느 한 모서리를 붙잡고 멍청하니 서있었다. 내가 다가갔을 때 그는 내쪽으로 얼굴을 한번 돌렸는데 그때의 그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님,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벽면을 바라보았다. 그곳 3번테와 4번테사이의 벽면에서는 석탄층의 변화현상이 눈에 띄게 알리고있었다. 석탄벽이 부풀어오르는듯하면서 껍질이 벗겨지려 하였다. 그 껍질이 벗겨지면 그리로는 석탄이 폭포처럼 무리로 빠져나와 첩곤베아우에 실릴것이다.

《자넨 큰일을 하였네.》

나도 눈물이 나올듯만싶어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현모는 그날 연구소일군들에게 지급전보를 날렸다.

...발견함...

그리고는 갯내의 한쪽구석에 쭈그리고 앉더니 두무릎을 세우고 그 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들어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현모가 것처럼 달게 자는것을 보았다.

우리 집 로친네가 여느때처럼 먹을것들을 함지에 담아이고 시험쟁으로 들어왔으나 현모를 깨울 생각을 못하였다. 그동안 로친네는 자기의 《종합목장》에서 살진놈들을 차례차례로 현모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없애치웠다.

극성스러운데다 드살이 보통이 아닌 로친네는 현모가 입맛을 잃어서 수저를 놓을라치면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가 그릇을 비우고말도록 하고야말았다.

이런 로친네도 이 저녁만은 현모가 너무 달게 자는것이어서 흔들여 깨울 생각을 못하고 측은한 눈으로 현모의 죽간 물골을 바라보았다.

나는 로친네를 끌고다니면서 라선동발의 한끝에서 한끝까지의 벽면들에 나타난 변화현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었다.

《이걸 발견하노라고 현모의 한 일생이 바쳐진 거요.》

로친네는 겹질이 벗겨져서 당장 쏟아질것만 같은 벽면의 석탄층들을 보면서 신기하여 눈이 커진채 작아질줄 몰랐다.

《조심하우다. 누가 장난삼아 쇠장대로 건드리기만 하면 막 쏟아져나오겠수다.》

사실 그때엔 견잡지 못하게 탄들이 쏟아져내려서 실리는통에 쟁줄이 끊어지고말것이였다.

평양에서 연구소 소장이하 다섯명으로 구성된 과학자집단이 내려왔다. 번대머리의 의젓한 소장파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위풍이 당당한 박사와 그외의 권위있다는 학자들이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시험채탄장을 하나에서 열까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나서 그들을 안내하고 다니는 탄광기사장이나 현모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련속적인 질문을 들이대고 그 대답을 심중하게 들었다.

그리고는 밤늦게까지 탄광의 사회의실에서 현모와 탄광기사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현지시험정형을 청취하였다. 우리들 시험작업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군하였다.

다음날은 그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시험쟁에서 차시간이 되기까지 다시금 라선동발의 현지시험상태들을 관찰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번대머리의 의젓한 소장파 배가 불룩하니 나온 위풍있는 박사사이에 많은 말이 오고갔다.

《우리가 신행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이 인제는 명백해진것 같습니다.》

소장이 곁에 붙어다니는 박사에게 하는 말이였다.

《무연탄 채굴에서 붕괴와 방출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과서와 전문학교 교과서들도 다시 써야 하겠군요.》

《우리가 얼마나 모색해오던 끈이 풀렸습니까? 채취물문제도 해결되고 굴진선행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현모선생이 우리 연구소와 채굴공학자들의 체면을 세워준셈입니다.》

소장은 현모를 가까이 오라 하더니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과학적 발견입니다.》

박사도 선배로서의 사랑을 담은 미소를 짓고 현모를 기쁘게 해주었다.

《전진중심이 좀더 깊은 상태에서 관찰결과가 지금처럼 훌륭했으면 더 좋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라선동발의 성공을 세상에 공포하기엔 충분합니다.》

《인차 결속하는 방향에서 일을 다그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결속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들은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날엔 현모의 안해가 우리에게로 왔다. 중앙급기관의 한개 국을 책임지고있는 키크고 갈람한 몸매의 이 부인은 이슬비가 내리는 새벽에 진회색비옷의 깃을 세우고 나타났다.

자기 남편의 짧은 한 시절이 흘러갔고 오늘은 또 세계적 명성을 얻도록 해준 탄광지구에 온 이 점잖은 부인은 나와 로친네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인사성 밝게 처신하였다.

놀랍게도 도시에서 자랐으며 탄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언만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갯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작업복을 얻어입고 시험현장으로 들어갔다.

현모의 안해는 이틀을 묵고 갔는데 하루는 남편과 함께 갯안에서 보냈고 하루는 우리 집 옷방에서 남편의 작업일지도 읽고 청소도 하였으며 빨래도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 집 로친네의 《종합목장》을 구경하며 애들처럼 신기한 기분으로 유쾌히 지내었다. 수도에서 나서자란 이 지식인 녀성에게 우리 집 로친네는 정신이 나갈 지경으로 훌쩍 반해버렸다. 떠나갈 때는 자기 남편의 친누님이상인 우리 집 로친네에게 정도이상의 사

례를 표하였다. 로친네가 그동안 자기의 《종합목장》에서 현모를 위하여 축낸것쫘은 문제도 되지 않을만큼 크게 보인 빛깔음이었다.

정중하고 례절을 지켜 사람들을 대할줄 아는 이 도시부인은 자기 남편의 성공이 확실하다는것을 알고 탄광에서의 2 일간을 기쁨속에 지내다가 떠나갔다.

현모도 안해가 와있는 기간만은 밝은 기분이었다. 웃기도 하였고 큰소리로 떠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안해가 떠나자부터 눈에 알리게 우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더구나 우리모두에게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준것은 그가 현재 차지한 계선에서 더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것이였다. 그는 시험갱안에 붙어있기는 하였으나 벌써 전과 같이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미 전개된 25 메터의 라선동발 전개 구간에서 석탄층과 동발상태들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정도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탄광기술과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자료철들을 가져다놓고 깊이 연구하였다. 특히는 탄광의 수문지질자료들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바쳤다. 물론 그 자료들엔 우리 탄광의 자연수문지질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탄광의 탄맥들이 뻗어나간 방향과 지하수량과 그 흐름 분포 등이 상당한 정도로 신뢰성있게 반영되어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규칙성도 없이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암석들의 틈으로 흐르고있거나 일정한 물주머니를 이루고있는 지하수의 류동에 대해서는 세부조사의 완성된 자료들이 없었다. 바로 그 완전히 알수 없는 그 지하수들에 대하여 현모의 관심은 집중되어있었다.

나는 현모가 무엇때문에 전진을 멈추고 이따위 자료들만 들여다보는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현모는 자기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나머지구간에서 그 어떤 위험현상을 보았거나 감촉한듯싶었다. 그때문에 그는 이 위험이 어느정도일것인가를 연구하고있으면서 우울속에 동요하고있었다. 리해되는것은 만일 나머지 얼마 안되는 구간에서 물통이라도 터지게 되면 현재까지 얻어놓은 성과마저 모조리 잃어버릴것이였다. 현모로서는 이것을 두려워하고있었다. 현모는 인제 자기가 현지 시험갱에서 얻으려고 하

였고 또 증명하려고 하였던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가설은 그동안 실내 실험과정을 통하여 해명하여 확증하였고 또 현지자연조건에서 그대로 재현되는가 하는것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시켰다. 이제는 라선동발이 공업적으로 운영되는가 못되는가 즉 생산에 실제적으로 도입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은것이다. 그런데 그마저 거의 확실해진것이다. 가장 단순한,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그가 증명하였던것이다. 이 발견원리를 형태학적으로 구현하여 제작된 라선형 동발 역시 현재상태에서는 나무랄바없이 훌륭한것으로 평가되였다. 이것이 만천하에 인정된 이상 현모는 위험이 예견되고있는 그 어떤 구간으로 전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것이다.

모름지기 현모는 이제 곧 현재선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려고 할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라선동발에 의한 면 붕괴식 채탄으로 종래와는 대비도 될수 없는 량을 캐낼수 있다는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였다.

채탄이 시작되면 메터당 출탄량이 측정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라선동발의 우월성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그다음엔 현모가 이곳을 떠나게 될것이다. 연구소로 돌아간 그는 개선장군의 자세로 기록해가지고 온 시험수치들을 펴놓고 논문을 쓸것이고 그 논문으로 하여 일약 일류급 학자들의 계열에 끼여들게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립장에 서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는 그 우리란 곧 석탄전선의 일선에 서있는 채탄공들이며 굴진공들이고 현장지휘성원들인것이다.

조국이 그처럼 부강해지기를 바라서 아글타글 탄을 캐내고있는 당의 전사들인것이다. 그 우리가 바라는것이란 논문과 명예를 위한 라선동발이 아니라 탄폭이 전개된 전구간에 전개되어 오래동안 채굴갱도를 유지하면서 그 구역의 마지막 한 톤까지를 퍼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동발인것이다. 탄폭이 전개된 전구간이란 뜻은 25 메터가 아니다. 현모에겐 자기를 위하여 그 거리면 만족하지만 우리에겐 그 거리는 입구에 불과한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것은 험악한 자연현상과의 격투에서 견디어낼수 있는 그런 라선동발인것이다. 하거늘 현모가 전진전방에 나타날 위험을 피

하는데 결코 동의할수 없는것이다.

또 하루가 지나갔지만 현모는 여전히 동발들의 상태변화와 벽면 탄층들의 현상변화만 관찰하면서 탐측자료들만 연구하고있었다. 그동안 나하고는 여러번 마주앉아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건너지 않았다. 묵묵히 자료철들만 뒤적이고있었다. 표정 역시 우울하였다. 나로서는 현모의 이 우울한 표정에 대하여 얼마간 의혹이 없지는 않았다. 어째서 이 사람의 얼굴색이 밝지 못할까? 성공한 사람의 환희와 만족과는 우울이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표정은 언제나 무겁다. 무엇때문일까? 나의 이 의문은 두가지로 하여 풀수 있었다.

그 한가지는 그가 시험갱 휴계실의 탁상에 퍼놓은채 자리를 비운 틈에 본 일지의 구절들이다.

...자료들은 이제 내가 돌파해야 될 나머지 5미터 구간에 암석들이 있고 그 암석들의 균열을 타고 물이 흐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자료들에 의하면 그 수량은 보잘것 없다.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는 수량만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내가 무서워하는것을 그것이 뜻밖의 큰물일수도 있다는것이다. 지하자연의 조사자들의 오인때문에 저질러진 불행은 대단히 많다. 그런 경우에 나는 무사하며 라선동발은 무사하겠는가? 그렇다 하여 전진을 멈춘 이 상태에서 손을 뗀다는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동요하고있다. 그리고 량심의 고통때문에 가벼운 기분을 지닐수 없다. 어쩔것인가? 나는 모대기고있다. ...

또 다른 한가지는 우리 집 로친네의 고발질에 의하여 내가 알아낸 사실이다.

현모부부가 우리 집 옷방에서 주고받는 소리를 로친네가 들은것이다.

안해... 앞으로 5미터구간은 안전한가요?

남편... 그렇지 못하오.

안해... 그렇다면 결심을 바꿀수도 있지 않아요.

남편... 량심때문에 주저하오.

안해... 자신을 변명할 말은 이 세상에 많아요.

남편... 량심을 변명할 말은 없소.

안해... 량심을 변명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것을 변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남편...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지는 않소.

안해...그건 당신의 훌륭한 품성이예요. 그렇다면 동요는 무슨 동요예요.

남편...나의 비겁성, 운명, 라선동발의 생활력, 우유부단성때문이요.

안해...거기에 자신의 명예와 안해의 기쁨도 포함시켜야 해요.

남편...당신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리로 온거요.

안해...미안해요.

현모가 전진을 멈춘 이유를 이이상 더 명백히 알수는 없다. 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압박으로 금시 그 어떤 모진 말이 튀어나오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러자니 온몸의 피가 머리에 모여들어 세차게 소용돌이쳤으므로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리현모-나는 지금도 이 사람을 옳은 길에 들어서게 하는데 홀린 나의 땀과 나의 발바닥이 겪은 수고를 잊을수 없다. 이 사람 이후에도 많은 애군들을 데리고 일해왔지만 그들중 아무도 이 사람처럼 내속을 썩인건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이 사람을 내 혈육처럼 사랑하고있는지 모른다. 로동계급의 참된 녀를 이 사람의 심장속에 심어주노라고 나는 피곤에 물려서 눈을 뜨기조차 싫은 시각에도 별의별 교양사업을 다하였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법에서... 하건만 나와 헤어져 산 기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것이 아닌가.

나는 배신당한 감정때문에 더는 참을수 없어 현모를 찾았다, 현모는 휴계실의 텅빈 방 한복판에 놓인 널상우에 시험일지를 펴놓고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나는 그와 좁은 널상을 마주하고 바투 붙어있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글만 쓰던 그는 자기앞에 와서 앉는 나의 숨소리가 달랐던지 긴장해지며 얼굴을 들었다. 순간 그는 나의 눈에서 격노한 기색을 보고 손에 쥔 만년필을 놓더니 시선을 널상우에 떨구어버렸다.

《너무 오래 끄네. 오늘부터 전진을 계속하자는 내 결심을 말해주려고 왔네.》

《...》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고있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계속 나갈텐가 그만둘텐가?》

《...》

현모는 침묵으로 나를 대하려고 생각했던지 조용히 앉아있을뿐이었다.

《자네가 만일 움직일 생각이 없다면 우리들자신이 전진하겠네.》

이처럼 현모의 목을 바싹 조였지만 그는 오래 동안 대답을 피하였다. 그러더니 뻥뻥하고 피기 없는 얼굴로 나를 한번 올려다본후 침착하게 짧은 말을 하였다.

《과학에서 시험계획은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린 집어치워. 자네는 생각이 달라졌어. 자네는 지금 전방에 나타날 실오리같은 물줄기를 무서워하고있어.》

《탐사문헌자료는 그렇지만 그것이 뜻밖의 큰 물줄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그래도 돌파해야 하네.》

《그러다가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나의 드센 입심을 견디여내려던 현모도 인제는 더이상 참기가 어려웠는지 일대일 응수였다.

《책임... 그런 경우에도 책임은 네가 져야 해. 너를 내놓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

나의 철담벽같은 우김질앞에서 현모는 더는 눈을 뜨고있을 기력조차 잃은듯 눈을 감아버렸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나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야 해.》

《...》

현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있었고 나는 갯내휴계실의 낮은 천정이 무너질듯이 큰소리로 반복하였다.

《죽더라도 나가야 하네. 만일 자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끌고라도 나갈테야. 우리에게 필요한 동발은 물창에도 건디여내고 바위투성이에서도 건디여내는 그런 꼬떡없는 동발이야. 짐이 무거워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우면서도 뻥치고 서있는 그런 동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네의 동발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좀더 고향을 지르고싶었지만 뉘엿는 맥박과 고르롭지 못한 숨결때문에 말을 이을수 없었다.

《...》

현모의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얼굴엔 경련이 일었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금 나타나곤 하였다. 눈도 뜨지 않았다. 그가 많은것을, 아주 많은것을 생각하고있어 심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감촉을 직선상에서 받는 나였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도 가라앉고 맥박도 고르로

와지며 복잡한 생각속에 말려들었다.

인제는 멀리 흘러가서 세월의 갈피속에 파묻혀버려 잊혀졌던 일들도 눈앞에 떠올랐다.

...정전직후의 어려운 형편에 있던 탄광, 그때엔 지나가는 길손의 조력도 그림던 때였다. 로력, 로력, 로력을 달라고 소리치는 소대장들과 중대장들의 목소리때문에 로동과사무실과 회의장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먹을것이 부족하던 식당, 착암기 한대 없던 막장, 모든것은 등짐과 함마와 삽과 곡괭이로 처리되었다.

사람들은 갯에서 자고 갯에서 일어났다. 탄광은 힘들게 탄부들을 모집하여왔다. 모집되어온 탄부들속엔 장사군과 건달군들도 많았다. 그들속에 전쟁고아 리현모도 끼여있었다. 19 세의 불량청년, 이 불량청년과 련결된곳들은 많았다. 장마당, 정거장, 기차칸, 분주소들... 그의 소대장은 그 청년이 단속되어 분주소에 붙들려 가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려야만 하였다. 소대장은 본인이상의 지독한 욕설과 모욕을 받으며 수없이 많은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서도 참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리고 또 떠올랐다.

...늦가을의 음산한 바람속에 잔물살이 일던 읍거리입구의 깊은 폭탄웅덩이, 어느날 소대장은 아침도 굶고 밤도 꼬박 밝힌 몸이언만 악이 치받 칠대로 치받친 뒤끝이어서 그 불량청년의 목살을 휘감아 틀어쥐고 그 폭탄웅덩이속으로 떨어져들어갔다.

《너는 량심도 없는놈이야. 그러니 사람질을 할수 없어. 여기 들어가 죽어야 한다. 나도 너를 책임진 소대장으로 지휘관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당원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니 여기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 이놈아, 어델 빠져보려고 발버둥질이야.

여기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사람의 기억이란 어찌면 그리도 모진것인지 그때의 고통스럽던 일들이 그대로 살아났다. 진한 색깔로 그린 그림장들처럼 한장씩한장씩 번져지면서 자기 색깔뿐아니라 자기 형태까지도 그대로 눈앞에 나타났다.

모름지기 내가 이런 추억을 더듬는 사이 현모 역시 똑같은 그 추억을 더듬었을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때와 조금도 다른없는 말을 주고 받기때문이다. 한사람은 늙은이가 되고 한사람은

중년의 과학자가 된 오늘에 와서조차 그때의 일이 또 한번 재현된다는것은 몹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추억은 계속되고있다.

...그후엔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도 집도 잃고 거리를 방황하던 그 불행한 청년을 소대장은 친 동생처럼 제 팔에 끼고 자고 먹고 하였다. 사람에게겐 량심이 있어야 한다. 량심이란 뭔가 하면 사랑과 증오야. 그리고 의무와 높은 로동정신이야. 이걸 지주나 자본가나 순사나 모리간상배 같은것들한테는 없는거야. 량심과 의리가 없으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도 있을수 없고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의 산과 들, 바다와 땅 밑의 금은자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수 없어. 네가 오늘 내 말을 명심해듣지 않으면 거품같은 초라한 인생이 되거나 결만 번지르한 기름취새끼가 될수 있다. 량심이 없으면 명성이나 열자고 협잡질도 하고 돈을 탐내어 사람이 못할짓도 할수 있어.

《내가 이제 한 말들을 한번 외워보아. 지금.》
그러면 소대장이 들려준 말을 청년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외우곤하였다.

청년은 그후 로동생활에서도 모범이였고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었다.

《너는 지금 량심적으로 살고있다. 난 아주 기쁘다.》

《그건 형님처럼 살기때문이야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오늘까지 소대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고있다.

하지만 내가 것처럼 힘을 넣어 심어준 로동계급의 량심만은 어지러워졌다. 내 손으로 대학추천문에 수표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대학으로 가면서 울었다.

《형님, 믿어달라요. 공부를 잘해서 량심적이고 성실한 기사가 되겠어요.》

그 청년은 맹세대로 공부를 잘해서 최우등생이 되었다. 그다음은 과학원의 연구사가 되었다. 실패하고 또 실패만 하면서도 동발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옛 소대장은 동정과 련민과 안타까움과 믿음이라는 혈육의 정으로 그를 생각하며 그리워하였다. ...

그러했던 현모가, 아직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있는 동생이 지금에 와서 나를 가슴아프게 하다니... 나는 이 한 순간이 지나가자 허탈상태에 빠지면서 울고싶었다. 그래서 이 달라져버린 중년의 겹쟁이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자리를 차고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다음호에 계속)

행복의 나라

최장수

푸른 하늘가에
몽게몽게 타래치는 흰 연기 바라보니
따스하고 부드러운 비날론숨을
불에 비벼보는 마음이어라

숨결 높은 합성탑의 위용을 안고
로는 로마다
탑은 탑마다
하나같이 소리치는 승엄한 동음
피끓는 심장벽에 와 닿을 때
크나큰 힘을 얻게 되리라

가슴뜨거워라
드넓은 련포벌
비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던
수령님 그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이 키를 쏘구고

철새들 날아에는
대동강 푸른 물을
다시금 바라보시며
천년 잠자던 지하의 억만재부
이 땅우에 모두 안아내시던 은덕속에

조국의 위용이 키를 쏘구는 순천이어

그날이 있어
병사들 첫 배낭을 풀면서도
돌격대원들 첫 기동을 세우면서도
그날에 벌써 온 나라는
희망찬 조국의 래일을 보지 않았던가

철따라 안아볼 사랑의 옷감이며
만풍년을 안아올 비료가 쏟아지는
식의주문제의 더 높은 대문을
오늘에 열어가는 크나큰 궁지여

아, 수령님의 사랑으로
우리 당의 신념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세월을 당겨 올라서는 희망찬 봉이어서

아, 아슬하게 솟은 굴뚝마저
뿔어올리는 깨끗한 흰 연기로
하늘높이 날리는것 아닌가
우리 가슴속 크나큰 행복의 나라를

그대가 가닿을 끝은...

정영호

이마에 손채양을 하고
아-소리쳐부르면
아슬한 첩탑우에서
한참만에야 듣고받기는
그대는 하늘의 수리개

볼수록 슬기롭다 그 걸음걸음
일떠서는 대비날론공장
하늘가 첩탑들을 징검돌인양
성큼성큼 넘겨짚으며
그대 부르는 노래 나는 듣는다

산악같은 구조물들을
척척 통채로 들어올리는 그 손길
해월에 그슬린 그 얼굴
내 언제면 가까이 볼수 있을까

아, 폭풍우 사납게 울부짖던 그밤
충충 첩탑을 들어올리며
번쩍 내려쬐히는 번개불마주
싱긋이 웃음짓던 담찬 그 모습

비개인 하늘가에 무지개비끼면
쏟아져내릴 비날론꽃비단 같다고

말없이 담배불마져 비벼끄고
자리차고 일어서던 미더운 그 모습

이 땅우에
키솟구는 대기념비들과 함께
더 높이 하늘높이
아슬하니 멀어져가는 연공
그대가 가닿을 끝은 어디냐

드넓은 편포벌을 덮어갈
은빛지붕들을 지나
날마다 뻗어가는 배관들의 끝을 지나

우리 수령님 환히 미소하시며
드높은 환호성속에 준공의 테프 끊으시어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이, 행복이 안겨질
영광의 그 아침에 달아있나니

아, 그 언제나 하늘가에 살며
오늘도 더 멀리 날아올라라
날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이 땅을
온 세상 하늘높이 반들어올리고싶어
그대는 나래쳐올라라 끝없이 끝없이...

《영웅소대》

권강일

영웅은 여기 한명 없는데
돌격대장도 대원들도 그 가슴엔
북무의 나날이 준 군공메달뿐인데
건설장 어디서나 자랑차게 부른다

숨장갑 누벼온 순천거리 너인들도
금요로동 하루를 바치는 일군들도
그리워 보고싶어 먼저 찾노라
《영웅소대》와 함께 일하겠다고

만나면 수수한 건설자들이건만
마중오는 하루하루 모든 나날을
기적으로 가득 채울 결심 뜨겁고
높이 세운 소대의 목표는 희망차

앞장서 나가더라
어디서나 보이더라

치솟아오르는 저 붉은 도표처럼
합성탑에 아득히 퍼덕이는 기발처럼

단 하루 걸음도 드터질세라
쏟아붓는 비발속을 헤쳐나가고
아름찬 철기둥도 끝끝내 안아
해저무는 하늘가에 일떠세우는 그들

자랑찬 소대의 이름은
밤과 함께 있다
낮과 함께 있다
기적을 떠안고 솟아오르는
저 아름답드리 첩관우에 빛난다

두고온 고향, 나이는 서로 달라도
당의 뜻 받드는 심장은 하나
그 마음이 모이면

엄청난 강철트라스도
단숨에 들어올려 하늘을 덮고

한걸음 옮기면
진펄을 메우고
산악도 헤쳐
지평선 한끝까지
은빛 배관들을 늘어가거니

아직은 정령으로
그대들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
온 세상 소리높이 불러주지 않았어도
그대들의 노래

그대들이 들고가는 기발을 따르며
자랑차게 부르는 그 이름 《영웅소대》

오, 조국의 빛나는 래일을 안고 들끓는
영웅들의 일감인 비날론건설장에
그 이름 어울리는구나
《영웅소대》!

수령님을 받들고 당을 따르는
단합된 집단속에
집단의 위훈속에
여기선 누구나 영웅으로 태어나는구나!

순천이여 그대의 이름은...

김만영

그 무슨 사연이 있어
그리도 뜨겁게 울리는것이냐
나서자란 고향도 아니건만
그 무슨 인연맺어
그리도 자랑스러운것이냐

밤에도 낮에도
들려오는 그 이름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희망넘치게
안겨오는 순천!

그대의 이름은
날마다 밝아오는
조국의 아침과 함께 빛나고
조국의 미래와 함께 고동치여라

그대의 이름은
학교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속에
초소를 지켜선 병사들의 눈빛속에
달리는 화물열차의 음향속에 빛나거니

나는 벌써 보노라
하늘가에 피어나는 흰 연기를
필필이 쏟아지는 비날론
사람들 얼굴마다에 어리는
기쁨의 미소를...

하여 그대의 이름은
더 풍족한 래일의 생활이란 말로
아름다운 미래란 말로
가슴이 후덥게 울리나니

그대의 이름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그날로 내닫는
내 조국의 맨앞에 있고
위대한 건설의 첫자리에 오르는것이여라

그대의 이름은
우리 식이라는 존엄의 상상봉에 있고
무조건성이라는 신념의령마루로 솟고
자력갱생이란 구호로 높이 올려라

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토록 소중히 외우시는
그대의 이름!

정녕 그대의 이름은
좋은날 기쁜날은 우리에게 주시려
한평생 마음쓰시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이름
백전백승하는 우리 조국의 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이름
온 나라가 감격으로 받아안을 이름이여라

현실속에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에는 저녁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이곳에 현지파견되어온 조선문학창작사 남포창작실 소설가 현능교동무를 찾아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저녁식사후 현장으로 나갔다는것이다. 눈부신 밤하늘, 밤하늘에 번쩍이는 용 접불빛, 들끓는 밥, 대고조의 밤이다.

우리는 군인건설자들속에서 그들과 함께 땀흘리며 일하고있는 현능교동무를 찾을수 있었다.

그는 무척 반가와했다. 그리고 공지에 넘친 말도 많이 했다. 우리도 기뻐다.

기자, 현실속에 들어와 생활하니 어떻습니까?

현능교, 여러 말을 많이 할수 있겠으나 우리 작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에 와보니 로동계급을 형성한 일부 작품들이 우리 시대의 호흡과 흐름을 잘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사람들의 말이 결코 근거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자,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자세와 립장 문제인데 지금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능교,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들의 새로운 품격, 그것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밝혀내는 풍모를 갖추는것일겁니다.

제 경우 지난날 현실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현실을 예돌다가는 글을 쓰는 일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결국 《탁상문학》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질적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학도 질적으로 변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그러자면 우리 작가들이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로 되고있는 로동으로부터 그들의 사상정서, 특히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고있는 사상정신적 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할것입니다.

현능교, 옳습니다. 당의 작가는 전진하는 우리 시대를 안고 뜨겁게 숨쉬어야 하며 80년대 혁신적성격들과 함께 세차게 전진하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간단치 않은 힘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운이 치솟는 일입니까. 저는 군인건설자들을 형상한 좋은 글을 쓸 결심입니다.

...

우리는 그의 창작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바라

면서 그와 헤어졌다. 수많은 용접불빛으로 하여 순천의 밤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

우리가 단천시의 협동농장에 나가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소설가 로정법동무를 찾아간것은 다소 추위가 한창인 어느날 오후였다.

백설이 뒤덮인 밭에서는 분수식 발판개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관물기와 땅파기가 승벽내기로 벌어졌다.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날이 딱딱 부딪쳤지만 가슴을 꿰이는 그들의 정열이 언땅을 뚫고 뚫어내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았다. 우리는 여기서 소설가 로정법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들을 더운방에서 몸을 녹이라고 팔을 끝었다. 그러나 들끓는 대지를 두고 몸이나 녹일 우리들이 아니었다.

《정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풍만한 서정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하자 로정법동무는 소 한짝이 없어 사람이 가대기를 끝던 이고장에 오늘은 트랙토르가 밤낮을 이어달리고 해마다 대풍이 드는것이며 계곡을 따라 양떼가 흐른다는 자랑을 공지에 넘쳐 하였다.

우리가 그에게 현실속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생각되는게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현실속에서 강하게 느낀것은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정신적높이가 글을 쓰는 사람인 내가 가지고있는 <척도>로서는 도저히 따를수 없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있는 그 <척도>와 현실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정신적높이와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느끼게 될 때마다 자신의 준비정도를 통절하게 느끼였습니다. 말하자면 작가들이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리는 문제가 그 작품이 사람들의 사상교양에 복무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본문제로 되기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한 그는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배워준 생동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주체농법관철을 위하여 애써 일하는 농촌기술일군을 형상화한 단편소설 《비오는 들에서》를 탈고하여 출판사에 보냈다고 했다.

《달밝은 밤에 자라나는 곡식들의 키돋움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는 나의 심장에도 열정의 샘이 피이고피여 충성의 물결을 일으킨답니다. 이런 때엔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요 허허...》

우리는 행복한 꿈을 안고, 래일의 크나큰 전
망을 안고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로정범동무가 한
없이 부러웠다.

우리는 그의 단편소설창작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을것을 진심으로 기대하였다.

본사기자

아름다워지자!

허수산

《영광》 -

《부흥》 -

새로 일어난
지하역에 들어서니

내 나서 처음
아름다움을 느껴보는듯
내 처음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듯

여기에 들어서니
축포가 오르던
수도의 그 명절밤에
서있는듯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지고

한아름에 안을수 없는
커다란 벽체앞에 서니
에서 수도의 전모를 볼수 있어
마음은 마냥 장쾌하구나

마음도 비칠듯
거울같은 대리석우로 거니는
저 청춘남녀들의 모습
현란한 형광등 불빛에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와라

아, 참으로
인간의 마음
끝없이 아름답게 해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어!

그 어느
위대한 손길이
이처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의 세계
높이도 이끌어올렸는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
물려주시기 위하여
석수 떨어지는 지하막장까지 뚫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뜨거운 자욱에 이어
쏟아지는 물줄기도 어깨로 막으며
로동당시대의 아름다움 창조한
위훈많은 청춘들
천이던가 만이던가

아, 진정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을 낳았구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지자!
그 위대한 손길에 받들리어
강산도
우리의 마음도 -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은
우리 대에서 태어나는구나

나의 고향

림길명

나는 오래간만에 옛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나의 고향은 북방의 어느 한 산골광산마을이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다니던 부모들이 그곳에 머물러 나를 낳았었다.

내가 광산마을에서 자란것은 몇해안된다. 미 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그때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당장 의지할데가 없어 고향을 뿔었다. 나도 그런 전쟁고아들중의 한사람으로 철이 들무렵에 광산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던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학원생활을 마친 뒤에 군사복무도 하였고 제대되어 대학을 졸업한 나는 중앙광업설계연구소의 연구사로 되었다.

나는 변화한 도시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수많은 이웃들과 사귀었다. 생활은 나를 도시사람으로 만든것이다. 그러나 나는 웅글진 발과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고 돌가루냄새를 풍기는 광석을 싣고 난장을 달리는 전차를 쫓아다니며 뛰놀던 어제날의 산골광산마을을 한번도 잊어본적이 없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그곳에는 내가 어릴 때 큰아버지라 부르던 박아바이가 살고있었다. 나의 일신상에 생긴 불행으로 하여 슬픔을 겪던 시기에 나를 데려다 키워준 마을사람이다. 나의 잊을수 없는 인생의 첫 은인인 박아바이까지 사위를 따라 먼곳에 간지 오래고 지금은 아무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고장으로 되어버렸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땅에 가있었던것이다.

파연 수수한 산골광산마을이 무슨 힘으로 그렇듯 자석처럼 나를 이끄는지는 자신도 다 알수 없다.

봄이면 나리꽃이 붉게 피는 나의 부모들의 넋이 묻혀있는 마을어구의 그 이름모를 산언덕인지, 아니면 나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여있는 깊은 산골짜기의 벌등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어느 갭구인지, 아니면 내 어릴적에 매미잡이를 하던 고굴앞의 가지 부러지고 폭연에 끄슨 그 늙은 느티나무인지, 아니면 종일 광석을 캐다가 막장에서 나오면 의례히 실눈을 짓는 아

버지들처럼 내 이마우에 손바닥채양을 해두고 쳐다보곤하던 파란 하늘가의 그 정다운 매지구름들인지... 나는 산골광산마을의 그 질은 정서에 묻혀 살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 고향마을광산에 내려가기로 결심하였다. 연구소에서도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탐구사업을 하려는 나의 희망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광업연합기업소에 들러 금천광산으로 내려갈 수속을 다 끝낸 나는 즉시 역으로 나갔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행열차가 방금 떠나간 뒤였다.

다음차를 타자면 하루밤을 묵어야만 하였다.

나는 조급중에 사로잡혔다. 한시바삐 고향땅을 밟고싶은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할수없이 광업연합기업소 합숙으로 되돌아오고말았다. 그런데 접수에서 방금 연합기업소 당비서동무가 나를 찾더라고 알려주었다. 마침 금천광산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하여오던 굴길확장 공사를 끝냈다는 전화가 와서 당비서동무가 승용차편으로 내려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였다는것이였다.

나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이윽고 승용차에 몸을 실은 나는 한여름의 시원한 동해바다가기슥을 따라 달리였다.

승용차가 산세 험한 내륙지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나는 점차 새로운 기분에 휩싸여들었다. 고향땅이 가까와오고있었던것이다.

어디선가 훈훈한 산바람이 차창으로 쓸어들어와 나의 얼굴에 진한 숲냄새와 돌가루냄새를 풍기였다. 나는 고향의 류다른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래도록 차창밖에 눈길을 주었다. 멀리 하얀 구름덩이들이 떠있는 령마루의 산밭은 은백색 가루를 뿌린듯이 아련하게 바라보이는데 한마리의 수리개가 그 누군가를 반기듯 빙빙 선회하고있었다.

나는 걸잡기 어려운 환희와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였다.

승용차는 신록이 짙은 산허리에서 숨박꼭질하듯 불쑥불쑥 나타나군하는 굽인돌이를 하나하나 뒤로 미루며 검덕령을 오르고있었다. 구름발이

맹기처럼 휘감겨도는 령마루에 올라서자 아득히 골바닥에 자리잡은 광산지구가 축소판모형처럼 안겨왔다. 지붕으로 뒤덮인 계단식선광장, 그옆에 탑모양으로 우뚝우뚝 솟은 저광사들, 골짜기의 허공을 가로질러간 벨트흐름선들, 맞은편 산경사지에 층층이 들어앉은 주택마을들...

나는 멀리서 변모한 광산지구의 새거리들과 새 집들을 바라보았고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아니 광산마을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곤하던 고굴을 더듬었다.

우리 마을의 골짜기막바지에 광산에서 제일 오래된 고굴이 있다. 나는 그 고굴을 아주 어릴적부터 알고있다. 그때 우리 꼬마들은 그 고굴을 가리켜 《지옥의 굴》이라 부르곤했다. 마을어른들이 그렇게 불렀던것이다. 옛날 그 굴속에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있는곳이라고들 하였다.

그 고굴은 언제나 입을 하 벌리고 마치도 그 누구와 말을 하는것 같이 보인다. 자기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있다고 할가. 아무때건 고굴앞에서 《어!-》 하고 소리치면 여러가지 목청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메아리쳐나오는것이다. 처음에는 거의 제소리나 같은 쩌랑쩌랑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뒤따라 황소의 영각같은 웅글진 소리가 나오고 조금있다가 입김같은 소리가 여운처럼 길게 울리는데 마치 귀에 대고 무엇이라 속삭이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어느 결굴에서 발파할 때면 고굴은 폭풍에 몸부림치듯하며 뽁뽁 울부짖어댄다. 잠풍할 때면 그 고굴속에서 착암기소리, 발파소리, 락팡지는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린다고들 했다.

그런데 나는 여러번 고굴입구에 숨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았지만 한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하도 이상하여 한번 마을어른들 앞에서 그건 거짓말이지요? 하고 물었더니 《에끼너석!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우리 광산마을에 큰아버지밖에 없느니라.》 하며 내 귀를 슬쩍 잡아당겨주고는 웃고마는것이였다.

나는 처음에 큰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저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마을골목길에서 키가 꺾투룩하고 얼굴이 바위돌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긴데다가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는 절름발이아저씨를 피뚝 만났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애야! 큰아버지다. 어서 인사를 해라!》 하자 나는 무서워서 아버지뒤에 숨어버린적이 있었을뿐이였다.

나는 그후에 다시 절름발이아저씨를 보지 못했지만 큰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했다. 마을어른들까지도 우리 꼬마들이 길가의 꽃을 꺾거나 매미를 잡으려 고굴앞의 느티나무에 오르는것을 보면 누구든지 《이너석들아! 썩 내리지 못하겠니? 큰아버지가 오신다!》 하고 발을 구르며 올려메곤했던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절름발이아저씨만이 고굴과 말을 한다는것이다. 왜 그럴가? 고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애들아! 우리도 <고굴>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러 가자!》

언젠가 나는 송아지동무들과 함께 고굴앞에 앉아 조용히 귀를 강구였다. 그러나 굴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에-<고굴>이 잠을 자는게 아니야?》

《글쎄, ...우리 깨울가?》

《그래그래...》

우리는 일제히 굴속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였다.

《잠꾸러기 <고굴>아! 어서 입을 열어라!》

어둠속으로 총알같이 날아든 돌맹이들이 굴바닥에 떨어져 부딪치며 굴러가는 소리가 쿵튀듯했다.

우리는 그것이 재미나서 자주 돌을 던지였다.

그때 갑자기 굴안에서 《돌을 던지는게 누구냐? 이놈!-》 하고 웨치는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뒤따라 버럭돌을 마구 걷어차며 쫓아나오는 사람을 보고 나는 그만 기겁을 할뿐했다. 뜻밖에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절름발이아저씨였던것이다.

《큰아버지다!-》

어느 앤가 녀이 나간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모래볼에 물이 숨새듯 삽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나도 신발을 벗어천체 정신없이 마을쪽으로 뚫다 뛰었다.

《이너석! 너 병감의 아들이였됐구나!... 게 서지 못하겠니!...》

절름발이아저씨는 으름장을 놓았을뿐 다리때문에 더 따라오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런 일이 있은후부터 나는 절름발이아저씨를 피해다녔고 다시는 고굴앞에 갈 엄두를 못했다. 그 아저씨가 나를 붙잡으려고 매일 고굴앞에 지켜서있는것 같아서였다. 나는 점차 겁잡해났고 은근히 절름발이아저씨가 밍살스러워졌다.

나는 참다못해 고굴입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개암나무숲에 숨어서 정말 고굴앞에 절름발이아저씨가 나타나는가를 살피였다. 그런데 아닐세라 절름발이아저씨가 노상 들고다니는 지레대를 메고 마을과 잇닿은 산협의 오솔길을 절뚝거리며 걸어오더니 다리섬을 하려는듯 느티나무밑에 걸터앉아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머리우에서 사부랑거리는 일사귀들을 한참 쳐다보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무엇이라 혼자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굴속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저 아저씨는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은 얼씬 못하게 하면서 자기만 <고굴>로 자주 들어가는것일까?... 정말 굴속에서 싸운 사람들이 그리워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 들어가는걸까?)

그때 철모르던 나의 어린 생각이 얼마나 허무했었는가. 미신적인 개념조차 모르던 나였지만 그때 내게도 그 고굴이 오래된 폐갱이여서 사고가 날까봐 마을어른들이 것처럼 무시무시한 이름을 달아놓고 누구도 얼씬 못하게 단속하는것이라고 생각 되였었다.

그 단순한 리치를 알게 되였다고 하여 나는 조금도 웃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신비한것으로 여겨지는 그 고굴에 대한 유년시절의 인상을 잃지 않았다. 유년시절의 인상이 사람들에게 각별히 소중한때문인지 아니면 채굴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나의 직업상의 특성으로 해서인지 설계를 하다가도 가끔 추억을 불러내곤하는 고굴이다.

(그 <고굴>을 이제 보게 될가? 마을에 빨리 가닿았으면. 그리고 추억 많은 <고굴>앞에 시름놓고 앉아 어릴 때처럼 굴안에서 올라나오는 소음을 실컷 들어봤으면...)

《연구사동문 고향이 광산마을이라구 했지요?》

문득 곁에 앉은 나이지국한 광업연합기업소 당비서가 말을 걸었다.

나는 고향마을을 떠날 땐 울창한 수림뿐이던 검덕령어귀의 도로연선에 새로 생겨난 중소광산들과 마을들에서 눈길을 떼었다.

《네. 30 년만에 찾아오는 고향이랍니다.》

《참 잘 왔소. 고향마을광산을 한번 본때있게 건설해보시오. 그곳 광산로동계급들이 여간만 통이 크지 않소.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새로 확장한 굴길이 굉장하다오. 한쪽으로는 장거리벨트가 흐르구 다른쪽으로는 대형광차들이 썩썩 달리구... 아마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수 없을거요.》

그렇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가.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 나는 고향땅에 와서 과거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저...새로 확장한 굴길이 어느 갱입니까?》

나는 것처럼 전변이 일어난 지하막장을 알고싶었다.

《본갱이라구... 혹시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날거요. 》

《아!- 본갱 !...》

나는 저도 모르게 혼자입속으로 나직이 되뇌었다. 그 갱이 바로 해방되어 이곳 광산로동계급들이 자기의 손으로 설계하여 뚫어놓은 기본갱이다. 이 광산의 《모굴》이나 다름없는 본갱을 현대적인 굴길로 확장하였다는것이다.

《그 본갱곁에 <고굴>이라 부르는 폐갱이 있었는데...》

나는 불현듯 굴길을 확장하면서 그 고굴을 없애버렸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졌다.

내가 불안해하는것을 보고 당비서가 걱정스레 물었다.

《혹시 그 <고굴>이 앞으로 연구사동무의 설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어보였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기구한 운명과 련결되어있는 그 고굴에 대한 생각을 좀처럼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저기 보이는 갱구가 바로 새로 확장한 굴길입구라오. 》

나의 눈길은 당비서의 손을 따라가다가 천나무가 빗살처럼 뻗뻗이 들어선 골안 맞은켠 싸리꽃이 하얗게 핀 산기슭언덕에서 멎었다. 순간 나는 갑자기 숨이 멎는것 같았다. 그곳 류달리 큰 갱구옆에 내 고향마을을 떠날 때 전쟁의 상처를 가시지 못한 앙상한 가지에 몇잎 붙어있는 잎사귀를 가볍게 살랑대던 그 늙은 느티나무가 삼단같이 무성해진 우듬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던것이다. 모진 세파에 비탈리우고 폭격에 한가지를 문형 잘리웠어도 터실터실한 밑동아리를 억세게 박고 서있는 느티나무를 보자 불현듯 가슴이 찢르르 울리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다. 준엄한 시절의 슬픈 여운이 그 느티나무의 설레임처럼 나의 가슴에 파도쳐왔던것이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시작된 그해에는 첫눈이 하염없이 내렸다. 평화롭던 그날엔 좋아라 뛰노는 온 동네 조무래기들과 강아지들의 머리우에서 재물을 피우며 내리던 눈이 왜 그리도 쓸쓸해보였던지.

나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 미군놈들이 불잡아다가 빨찌산에 들어간 아버지의 행처를 대라고 악착하게 고문하던끝에 총살했던것이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은 놈들은 마을사람들의 품에서 나까지 빼앗아내여 《빨갱이새끼》를 살려주는 사람은 총살한다고 쓴 폐말을 목에 걸어 갱구옆의 느티나무밑에 잡아두었다. 철없는 나는 무슨 글이 씌여진줄도 모르는 그 폐말을 꼭 붙잡고 어머니를 부르며 엉엉 울었다. 그러자 탄약창고앞에서 어슬렁거리던 미군보초놈이 징글스럽게 이마살을 찢프리더니 나를 향해 총구를 돌려대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툭 끊었다. 순간 양갈진 총성과 함께 나의 귀뿌리를 스친 탄알이 갱구앞벽에서 불꽃을 튀기었다. 나는 땅에 머리를 박고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다.

이제는 울수도 없었다. 놈들이 울음마저 빼앗아간것이다.

눈보라가 울기 시작했다. 저녁무렵의 맵짠 추위는 혈벗은 나를 사정없이 얼쿠고있었다.

어스름이 깃들자 골짜기마을은 숨을 죽인듯싶었다. 집집의 창문들에 가스등불이 켜지고 오불 꼬불한 굴뚝들에서 싸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있

었다.

아, 추운 겨울날 얼음지치기에 정신이 팔린 나를 따뜻한 온돌방으로 불러들이던 어머니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왜 들려오지 않는가요? 갯에서 돌아오다 눈싸움에 지친 나를 불러 닭의 뺨처럼 빨갛게 언 두귀를 비벼주던 아버지의 사랑어린 손길은 어디로 갔는가요?

어느 집에서도 나를 데리러 나오지 못했다. 탄약창고 옆에서 그 징글스러운 미군보초놈이 왔다 갔다 하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집의 창가마다 하얗게 불린 성에를 입김으로 녹인듯 동그랗게 그려진 자리들이 타는듯 이쪽으로 불빛을 뿜고있었다.

폭격에 가지 부러지고 불에 그을어서 거무튀튀해진 고굴앞의 늙은 느티나무의 앙상한 가지에서 바람이 웅웅 울고있었다.

추위에 얼다못해 정신까지 흐리마리해진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어머니와 산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꿈을 애타게 찾으며 허우적거리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석집한 목소리로 《승택아! 어서 이리로 들어오나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싶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다보았다. 시커먼 갯구가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굴속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다. 순간 어둑컴컴한 굴안에서 웬 사람의 그림자가 획 달려나오더니 나를 덥쳐 안고 허둥지둥 굴속을 향해 달려들어가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뜻밖에 당한 일인지라 나는 기겁하여 새된 소리를 치며 발버둥쳤다. 그러자 그 사람은 돌가루냄새가 풍기는 커다란 손으로 나의 입을 막았다.

그런데 나의 외마디소리에 놀랐는지 갑자기 밖에서 미군보초놈의 호각소리가 미친듯이 울렸다. 뒤이어 고굴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놈들이 굴속을 향해 총탄을 난사했다. 허연 불줄기가 뱀의 혀바닥처럼 날름거리며 내열을 스치었다. 순간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희롱하듯 흘러갔다.

고굴속으로 깊이 들어간 그 사람은 총탄에 맞았는지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며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눈먼 참새가 담벽에 부딪쳐 떨어지듯 이쪽저쪽 갯벽에 이마를 짓쫓고 나딩굴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어쩐지 나를 상하지 않게 하느라고 더욱 우악스럽게 꼭 끌어안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숨가쁘게 헐떡거리는 그 사람의 몸에 운명을 맡긴채 까딱않고있었다.

뒤를 쫓아오던 총소리도 군화짝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자 그 사람은 캄캄한 굴속 어딘가에 나를 털썩 내려놓았다.

(도대체 누구일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불안고 어둠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살피려고 애썼다.

그 사람은 한참동안 몸을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는것 같더니 성냥을 켜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불이 켜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절름발이아저씨였던 것이다. 나는 광산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며 피해다니던 아저씨가 이렇게 느티나무밑에서 열고있는 나를 지켜보

다가 굴속으로 끌어들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허리춤에서 절랑거리던 간데라에 불을 달아놓고서야 아저씨는 아직도 겁에 질려있는 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 주름잡힌 눈가에 자애의 빛이 어리는것을 본 순간 나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큰아버지!-》 하고 목메어 부르며 와락 품에 안겨들었다.

《원 녀석!...》

큰아버지는 터실터실한 손으로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의 아버지가 《애야! 큰아버지다. 인사를 해라!》 라고 하였을 때 큰아버지를 피했던 일이 어린 가슴에 맺혀있었던 것이다.

《였다!》

큰아버지는 성급히 호주머리를 뒤지더니 구운 감자를 몇알 꺼내주었다. 감자익은 냄새를 맡은 순간 나는 큰아버지의 손에서 감자알을 빼앗듯이 집어들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삼키었다.

《목이 메겠다.》

큰아버지는 식곤증에 취해버린 나를 업고 절뚝거리며 어디론가 굴속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캄캄한 굴속을 자꾸 걸어가자 나는 겁이 났다.

《큰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밖으로 나간다.》

《키다리 보조놈이 있는데루요?》

《원, 녀석! ...이 땅속에 굴길이 하나뿐인줄 아나?... 나무뿌리처럼 얼기설기 뻗었지...》

나는 안도의 숨을 호- 내그었다.

《너두 크면 아버지들이 일하던 굴을 손금보듯 하게 된단다... 암 그러구말구... 목을 꼭 붙잡아라.》

문득 우리앞에 울리굴이 나타났다. 우에서부터 석수가 비처럼 쏟아져내렸다. 나는 비를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웅송그리며 큰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큰아버지의 후더운 입김이 내 얼굴을 덥혀었다. 큰아버지는 숨이 차했다. 그러면서도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옷자락으로 내 다리를 감싸쥐었다.

아! 그때 간데라를 입에 물고 수직갱의 고삭은 사다리를 한칸한칸 툭아오르던 큰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일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그처럼 간고하던 전쟁은 마침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었다.

광산은 몹시 파괴되었다. 당장 폭격에 허물어지고 물이 찬 갯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갯을 복구하는 일에 온 광산마을이 떨쳐나섰다. 그런 시기에 나는 학교에 입학하였다. 나는 큰아버지네 집에서 살았다. 큰아버지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멀었다. 고개 하나를 더 넘어 아래마을에 학교가 있었던 것이다.

사나운 겨울이면 큰아버지는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주었고 돌아올 때는 고굴앞에서 기다리게 했다. 간 막장에서 나오는길에 들려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곤했다.

그날은 눈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허리를 쳤다.

고개넘어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걱정했다. 이럴 때면 의례히 큰아버지가 두툼한 동화를 새끼줄로 엮기설기 동이고 산비탈에 락타의 등처럼 쌓인 눈무지를 헤치며 길을 내였고 그뒤에 꼬마들이 뒤따라갔다.

《공부가 끝나면 혼자 령을 넘지 말구 여기서 기다려라, 알겠느냐?》

큰아버지는 광차들이 썩썩 다니고 광석을 캐는 광부들이 드바빠 돌아치는 본갱입구앞에서 놀지 말고 늘 사람들이 얼씬하지 않는 한적한 고굴앞에서 놀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나는 약속대로 송아지동무인 학빈이와 함께 고굴앞에서 큰아버지를 기다리며 눈사람만들기놀음을 했다. 그러다가 이내 손이 시려나서 그만두었다.

우리는 빨강계 언 손을 호호 불며 고굴안으로 가까이 들어갔다. 그곳은 바깥보다 훨씬 훈훈한 감이 들었던것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토하고 겨울이면 더운바람을 내보내는 이상한 굴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학빈아, 우리 <고굴>에 들어가볼까?》

《너 정신있니?...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큰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무 뿌리처럼 뻗은 굴들이 다 련결되어있기때문에 나올수 있대.》

《흥!...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알면 큰일나!》

《갱장이면 다야?》

《그럼 널 길러주는 큰아버진 가만 놔둘것 같으니?》

나는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언제부터 내가 살아온 고굴에 한번 들어가보고싶었던지라 나는 굽어들지 않았다.

《좋아! 그럼 내 혼자 들어갈래!》

나는 언제나 가방안에 넣고다니는 윤이 나는 간데라를 꺼내들었다.

《너 정말이가?》

학빈이도 할수없이 내뒤통을 따라들어왔다. 이렇게 우리의 고굴탐험은 시작되었었다.

결굴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간데라를 비출 때마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광석빛이 마치 그 무슨 《도깨비불》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갱벽에 드러난 바위돌이 움쭉움쭉 마주 걸어오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히곤했다. 굴속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앞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였다. 물기 번들거리는 동발기둥들에 더미더미 피어난 하얀 버섯꽃들, 바위돌짚으로 주절대며 흐르는 샘줄기들, 운동장같이 넓은 채굴장들...

나는 큰아버지의 잔등에 업혀 굴속을 정처없이 걸어갈 때 미처 몰랐던 버섯꽃이며 샘줄기며 아득한 공간들을 다시 보게 되는것이 신비로웠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이런 굴속에 들어와 과연 누구를 그리워한단말인가?

나는 갱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아찔한 채굴장

의 공간속으로 간데라불을 비추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속에서 그저 웅웅 소리가 났을뿐이다.

《тол랑! ...》

갑자기 어디선가 락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물방울소리에 이끌리듯 간데라불을 비추며 소리가 난쪽으로 달려갔다. 물이 고인 수직갱에 락수가 떨어지고있었다. 그 중력에 허리 끊어진 사닥다리가 드리워져있었다.

《야, 무시무시하구나. 이젠 나가자!》

학빈이가 졸랐다. 그러나 나는 그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생각했다.

여기에 왜 물이 차있을가? 중력에 드리운 사닥다리는 왜 허리가 끊어져있을가?

그때 얼마 멀지 않은곳에서 갑자기 와르르 땅이 꺼져내리는듯한 굉음과 함께 폭풍이 휩 불어왔다. 그바람에 놀란 우리는 들어오던 길을 되돌아서 냅다 뛰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만 돌부리에 걸쳐 넘어지고말았다. 손에 들었던 간데라까지 데굴데굴 굴러서 어느 채굴장에 떨어져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젠 다 죽었어!... 내가 뭐라던. 들어오지 말자구 했는데두나...》

학빈이의 울먹울먹한 목소리였다. 나도 겁이 났다.

밖에서는 잃어진 두 아이를 찾느라고 온 광산이 소동을 피우고있었다. 다행히도 갱을 복구하느라 결굴 가까이에서 폭파작업을 하던 마을어른들이 우리를 발견했었다.

마을어른들은 혀를 찼다. 어떤 아버지는 어벌중해 큰 녀석들이라고 하면서 껄껄 웃었고 어떤 아버지는 하마트면 죽을번했다면서 아이들때문에 아버지들한테 문제를 단단히 세워야겠다고 울려퍼졌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내가 말썽을 부려 큰아버지한테 말을 듣게 하였다는 죄송스러움에서였다.

나는 속이 한줄만해져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일은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이튿날 아침에 학빈이가 혈떡거리며 나를 찾아왔다.

《승택아! 야단났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오늘 당장 <고굴>을 폭파해버린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큰아버지가 것처럼 아끼는 고굴을 폭파해버리다니.

나는 정신없이 폭파현장을 향하여 뛰어갔다. 그때는 벌써 고굴앞에서 광부들이 폭약을 장치할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그런데 고굴입구에 큰아버지가 바위돌처럼 떡 버티고 앉아있지 않는가.

갱장인 학빈이의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설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까짓 폐갱이야 없애버린들 뭐랍니까... 알

으로 광산의 갱들을 확장할 때면 쓸모없는 폐갱을 그냥 두지도 않겠는데...》

큰아버지는 두눈섭을 독수리날개처럼 곤두세우고 갱장을 쏘아보기만 했다.

《여기에 더 현대적인 굴길이 건설되면 될수록 이 고굴은 있어야 하네.》

《아니, 그러다 사고라도 생기면 어쩔니까. 어저께 두 집의 아이가 들어가서 야단했는데...》

《물론 나두 <로동안전원>으로서 잘못을 비판하겠네. 하지만 고굴은 절대 폭파 못하네.》

《허, 참!...》

학빈의 아버지는 멋지게 입을 다시며 돌아서고 말았다. 큰아버지는 끝내 고굴을 폭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는 고굴을 폭파하러 왔다가 코방을 때우고 가버리는 광부들의 뒤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걱정했다. 나때문에 복잡해지고 심각해진 고굴폭파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저녁에 광산사무실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큰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껴있었다. 아마 지배인한테 가서 아이들을 단속 못한 자기의 잘못을 비판하고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큰아버지를 보기가 죄스러웠다. 모든게 다 내탓이다. 내가 고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게 아닌가.

그러던 어느날 멀고 먼 도시에서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신사롱의 사나이는 나를 보자 대뜸 눈물이 글썽하여 말했다.

《네가 병갑의 아들이냐? 난 네 이모의 사촌인데 널 데려러 왔다.》

나는 이모의 사촌을 서먹하니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굽을 훔치더니 큰아버지를 간청어린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전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 친척이라곤 나뿐이 아닙니까. 지배인한테도 다 말했으니 이 엘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모의 사촌이 며칠전에 나를 찾아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 그래 그때 큰아버지는 그렇게 수심에 잠겨있었었구나.)

큰아버지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가구말구 하는거야 애한테 물어보구려...》

《그래 가겠느냐?》

이모사촌이 물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다가 큰아버지의 눈길과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다. 큰아버지의 얼굴빛이 새하얘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변화한 도시가 나를 유혹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큰아버지한테 더는 걱정을 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였다.

그런데 그날밤에 친척벌되는 사람앞에서 사정하는 큰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얼마나 놀랐던가.

《이사람, 물론 내 정성이 친척보다 못할수도 있네. 하지만 제발 저 엘 데려가지 말아주게... 저 애는 내 심장의 한쪽이나 다들바없네. 그러니 어찌겠나. 저 애가 깨어나면 따라가겠다고 할텐데 제발 이밤으려 여길 떠나가주게나, 응!...》

그때 옷방에서 흘러나오는 큰아버지의 갈린 음성을 들으며 나는 친척을 따라가겠다고 맘먹었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멀리 시집보내고 외로이 살다가 나에게 애오라지 희망을 걸어온 큰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을 내가 건드려놓았던 것이다.

(큰아버지!... 나는 절대루 큰아버지결을 떠나지 않을래요!)

견잡을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라 나는 그만 흐느끼고야말았다. 내 어린 마음에도 큰아버지에게서 없어서는 안될 혈육의 가치를 느끼었던 것이다. 나는 울음소리를 감추려고 이불깃으로 입을 꼭 틀어막았다....

회상에서 깨어난 나는 조용히 물기에 젖은 눈을 습벽이었다. 승용차는 여전히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안개 흐르는 령길을 더듬어가고있었다.

골짜기아래 어느 갭에선가 발파소리가 둔중하게 울려왔다. 그 발파의 여운이 나의 가슴에 추억의 파도를 일으키며 멀리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금 회억속에 잠겨들었다. 돌이켜보면 인간생활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다. 길지 않은 나의 생도 돌발적인 사변으로 이어졌었다.

...그이듬해 봄. 구름봉은 일찌기 흰 고깔을 푸른 고깔로 바꾸어썼다. 여기저기서 골계수가 소리치며 흘러내렸다. 로은등판에 환영같은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 푸른 잎새를 하느적거리는 숲에서 온갖 새들이 우짖어댔다. 류다른 봄이었다. 전쟁의 상처를 털고 일어난 광산마을골짜기에서 울리는 발파소리도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었다.

나는 송아지동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매일 학교에 다니었다. 우리가 넘나드는 로은등판은 봄의 아름다운 옷을 펼쳐입고 언제나 우리를 반기었다. 구름도 쉬여가는 이 높은 더기에 어딘지 멀고먼 고장에서 오는 두루미들이 내려앉아 신기한 세계에 놀란듯 긴 목을 뽑고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요란한 목청으로 우리를 놀래우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곤했다. 우리는 떠나는 두루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풀판을 달리고 달리었다.

다정다감한 봄과 함께 나는 더욱 명랑해졌다.

큰아버지도 무슨 좋은 일때문인지 새옷을 갈아입고 자주 군에 갔다오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큰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불러앉히었다.

《애야! 너는 래일 학원으루 가게 됐다.》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만 같았다. 큰아버지가 그때문에 매일 군에 다녔음을 알았을 때 어쩐지 섭섭한 감정을 금치 못했다. 큰아버지

는 자신의 한쪽 심장이나 갈다던 나를 어찌하여 그리도 쉽사리 고향을 떠나보낸단말인가?

그러나 나는 큰아버지앞에서 그런 내색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부모를 잃은 나를 데려다가 키워준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큰아버지의 마음에 그들을 지울수가 없었던것이다. 철없는 나의 심중을 벌써 환히 꿰뚫어본듯 큰아버지는 온밤 잠 못 이루는 나의 머리맡에 앉아 담배만 풀풀 태웠다. 내가 새벽잠에 잠깐 들었다가 깨어나보니 큰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보지도 않은채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오직 큰어머니만이 나의 길떠날 차비를 하느라고 부엌에서 바빠 돌아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큰아버지를 찾아 밖으로 나갔다. 아침안개가 자오록히 서린 골짜기마을은 아직 포근한 이불속에서 잠을 자고있는듯싶었다. 이따금 저멀리 저광사쪽에서 광석을 부리는 광차의 덜커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어느 켠에선가 쿵쿵! 지실을 울리는 발파소리에 이끌리듯 새벽이슬에 바지가랑이를 적시며 고굴로 달려갔다. 고굴앞에 이르러 나는 그만 우뚝 멈춰섰다. 뜻밖에도 큰아버지가 고굴옆에 서있는 미국놈들의 폭격에 아지를 몽텅 찢리우고 파편에 찢겨진 그 늙은 느티나무의 상처에 진흙을 두렵게 발라주고있었던것이다.

나를 보자 큰아버지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빙그레 입가에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이젠 됐다. 이제 이 느티나무에두 잎이 무성해질거다.》

나는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폭격에 타다남은 앙상한 가지에 몇개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이슬에 함함이 젖은 눈길로 나를 반기는듯싶었던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속살거렸다. 너는 어찌면 그렇게도 우리와 꼭같니. 하지만 걱정 말아. 우리 나무일도 무성해지고 너도 이제 큰사람이 될거야 하고...

큰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느때 그렇게도 엄격히 단속하던 고굴이며 버럭처리장이며 광산의 곳곳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다시 본갱입구앞에오니 역전으로 나가는 광산빠스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날 시각이 눈앞에 온것이다. 나를 바래주려고 마을어른들도 나왔고 송아지동무들도 찾아왔다. 나는 그들과 눈물을 머금고 작별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큰아버지는 먼산만 쳐다보고있었다. 출발을 알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려서야 큰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쓸어만지며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나두 널 떠나보내고싶지 않다. 하지만 너는 가야 한다. 네가 조금만 컸더라면 다 알구가련만... 앞으로 큰사람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고향을 잊지 말아라.》

나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내가 어떻게 이 정든 광산마을을 잊을수 있단말인가요.

그렇다. 나는 학원에 와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늘 꿈에서 그리보곤했다. 그때마다 큰아버지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고향마을에 한번 가보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어쩔수가 없었다. 나는 끝내 어느 일요일날 휴식차를 리용하여 가까운 동무한테만 알린다음 학원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잡아탔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기차를 한번밖에 타보지 못한 나는 그만 역을 헛갈려 기차들이 잘 서지 않는 한적한 산골역에 내리고말았다. 나는 할수없이 산골역에서 다음차를 기다리며 이틀밤을 자야만 하였다. 나는 걱정스러웠다. 학원의 규률을 위반한 자신의 죄가 점점 커가는데 불안을 느꼈던것이다.

날이 저물자 나는 텅빈 역전의 장의자에 웅크리고 누워 잠들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서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깨웠다. 나는 와들 놀라며 일어났다. 내앞에 뜻밖에도 큰아버지와 함께 학원 원장 선생이 전지불을 비치며 서있었던것이다. 분명 내가 없어진것때문에 학원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고 전화를 받은 큰아버지가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온것이였다. 나는 열결에 《큰아버지!-》 하며 와락 품에 안기려다가 그만 손을 움츠러뜨렸다. 순간에 큰아버지의 되박만한 주먹이 내가 앉은 의자를 탕! 소리나게 내리쳤던것이다.

《이녀석! 선생님들이 애타게 찾아 해매고있는데 네가 이게 무슨짓이나?》

나는 것처럼 무서워진 큰아버지를 처음 보았다.

원장선생이 나의 잔등을 어루만지였다.

《기차를 타고싶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할것이지...》

《선생님, 전 사실 큰아버지가 보고싶어 고향에 한번 가보자구 하다가 그만...》

큰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이내 고개를 외로 돌리였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모질게 삼키는 소리를 냈다. 나를 학원에까지 데려다준 큰아버지는 하루 쉬어가라는 원장선생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산에서 갱을 복구하고 한창 광석을 캐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쉬겠는가하고 하면서 떠나갔다.

《애야! 고향땅에 묻힌 너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 너는 부모들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큰일을 하게 될 때라야 나두 너희 부모들앞에서 떳떳하게 아니냐!》

비내리는 그 새벽 다리를 절뚝거리며 역전으로 되돌아가다가 따라서는 나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하던 큰아버지의 그 갈린 목소리...

(큰아버지!... 더는 나때문에 힘든 걸음을 시키지 않을래요!)

나는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비발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큰아버지의 품에 매여달리듯 가로수밑등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삼키였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당비서동무의 목소리에 나는 회억에서 깨어났

다. 승용차는 갱구가 바라보이는 난장어구에서 몸을 가볍게 들추며 발동을 꾀다.

승용차에서 내린 순간 나는 그자리에 못박힌 듯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말로만 들어온 웅장하게 꾸러진 굴길입구와 구내선들로 가득찬 난장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된것이다. 광석을 듬뿍듬뿍 싣고 수전기불꽃을 뿜꺸거리며 꼬리를 이어 달리는 대형광차들, 여기저기서 차갈이를 하며 호각을 불어대는 승차공처녀들의 날렵한 모습들, 장거리벨트를 타고 나와 저광사에 쏟아지는 광석 폭포, 영양제식당으로 향하는 교대광부들의 흥겨운 웃음소리...

내 어릴적에 돌가루냄새를 풍기며 달리는 광차를 쫓아다니며 푸른 꿈을 키우던 여기에 이렇듯 놀라운 전변이 일어나다니.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나를 보고 당비서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감상이 어떻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모든것이 변했으니...》

《하지만 변하지 않는것두 있지요.》

《?...》

나는 의아쩍은 눈길로 당비서를 쳐다보았다.

이때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새로 확장된 굴길입구에서 가까운곳에 서있는 늙은 느리나무밑에 소년단넥타이를 맨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아마 경제선동을 나온 광산마을학교 소년단가창대 대렬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광산일꾼들이 달려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배인동무, 연구사동무랑 왔는데 굴길을 좀 구경합시다.》

련합기업소 당비서가 광산일꾼들앞에 나를 소개하고나서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이제 교대시간이 되면 통근열차를 타구 들어가기로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럼 연구사동무, 그사이에 우리 저 학생들한테 가봅시다.》

나는 이상하게도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당비서의 뒤를 따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서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늘밑에 모여선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안은듯 무성한 잎새를 펼치고 선 느리나무앞으로 다가가던 나는 그만 잠짝 놀랐다. 그 한옆에 새로 확장된 굴길입구와 대조되게 옛날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고굴을 보았던것이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향땅에 와서 옛날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서 뻥해지기까지 했다.

《광산에서는 이 폐갱만은 그대로 보존하기루 했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말이요.》

당비서의 정색한 어조였다.

《아이들이요?! ...》

나는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내 어린 시절에 단순히 호기심만을 가지고 대했던 이 고굴이 오늘 광산마을아이들의 훌륭한 교양터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고향땅에 변하지 않는것이 있다고 하던 당비서의 말이 단지 고굴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그속에 새겨져있는 무엇인가 더없이 귀중한것을 나에게 안겨주는것만 같았다.

나는 알뜰하게 손실했고 조명등까지 켜놓은 굴속으로 학생들과 함께 들어섰다. 일순간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어릴 때 큰아버지가 나를 업쳐안고 놈들의 총탄이 비발치는 굴속을 향해 마구 덩굴며 뛰어들어가던 일이 되살아나서였다.

저벅저벅 울음에 지친 나를 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석수 쏟아지는 고굴속을 어디론가 정처없이 걸어가던 큰아버지! 지금 여기에 큰아버지가 계신다면 내 큰아버지를 업고 이 굴길을 다시 걸어가련만...

나는 문득 수직갱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 어제날의 그 모습대로 허리 끊어진 사닥다리가 드리워져있었다. 학생들이 그앞에 빙 둘러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있는 허리 끊어진 사닥다리 ...

《비서동지, 학생들에게 이 수직갱에 깃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애젊은 처녀소년단지도원이 당비서에게 간절히 부탁하였다.

《들려줍시다.》

당비서는 학생들을 빙 둘러보고나서 입을 뗐다.

《학생동무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때에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서 싸웠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미군놈들이 도망가면서 우리 광산을 없애버릴 심산밑에 광산의 중심부였던 이 수직갱에 폭약을 장치한다음 마을사람들까지 갱속에 가두어놓았지요. 그때 빨찌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내려온 한 젊은 광부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막장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광부는 이 광산의 오랜 로광부와 함께 마을사람들을 다른 굴로 빼돌린다음 자기 혼자서 수직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광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사닥다리를 몽청 끊어놓고 언젠가 막아놓은 지하수구멍을 터쳐 폭약을 몽땅 물에 잠그어버렸지요.》

젊은 광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길로 혼자 들어갔다는것을 눈치챈 로광부가 뒤쫓아왔을 때는 수직갱에 물이 차있었습니다... 젊은 광부는 다시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애국의 녀은 오늘도 살아서 막장마다에 광석처럼 빛나고있답니다... 그 젊은 광부가 바로 이곳 광산마을사람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리병갑이라고 부르는 영웅광부입니다.》

(리병갑?!... 내가 잘못들었는가?)

순간 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가슴에 메아리쳐오는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의 이

름이 아닌가.

나는 뜨거운것을 모질게 삼키었다. 내가 고향 마을을 떠날 때 큰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고굴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그 짧은 광부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때 큰아버지가 떠나가는 어린것의 마음을 아프게 할것만 같아 내앞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주었다는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오늘 내 추억속에서만 그려퇴던 아버지앞에 나를 다시 세워준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쿵쿵 심장을 박동하게 하며 나의 귀가에 메아리쳐오고있었다.

학원의 깊은 밤, 요람속에 잠들 때면 조용히 꿈결에 들려오곤하던 저벽저벽 석수 쏘아지는 캄캄한 고굴속으로 나 엮고 어디론가 정처없이 걸어가는 큰아버지의 귀에 쟁쟁한 발자국소리, 군사복무의 나날 아이들이 뛰노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들려오곤하던 네가 조금만 컸더라면 다 알수 있을것이라고 앞으로 큰사람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고향만은 잊지 말라고 하던 큰아버지의 그 간절한 목소리, 콧은비 내리는 날 대학의 창가에 마주서면 문득 가슴을 치곤하던 네가 큰사람이 되어 고향에 돌아올 때면 나도 너희 부모들앞에서 뿔뿔이 머리를 쳐들고 일할게 아닌가고 잘못을 타일러주던 큰아버지의 그 준절한 음성, 아늑한 설계실 도면앞에 마주앉아 굴길을 설계하다가도 문득 추억을 불러내던 그 고굴속의 갖가지 음향들...

아! 바로 그것들이 나를 것처럼 강렬히 이끌 어준 고향의 부름이었고 넋이 아니었던가...

고굴참관을 마친 학생대렬이 밖으로 나오자 당비서는 그옆에 웅장하게 건설된 본관을 가리켰다.

《학생동무들! 저길 좀 보시오. 얼마나 굉장합니까. 동무들은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일터에서 일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광산이 현대화되면 될수록 동무들은 이 고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아바이도 동무들이 조국을 위해 생을 바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추억하도록 하기 위해 고굴을 이처럼 잘 꾸려놓았습니다.》

《아니 박아바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나는 박아바이란 소리에 귀가 번쩍 띄여 다급히 물었다. 그러자 연합기업소 당비서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광산에서 <로동안전원>으로 일하는 아바이요. ...혹시 박아바이를 아시오?》

《제가 아는 박아바이는 오래전에 사위한테루 갔는데...》

《바로 그 박아바이요. 사위가 억지로 모셔갔었는데 아바인 끝내 돌아오고말았대요.》

《그런데 아바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임광부들을 데리구 막장을 돌아보기 위해 첫 통근열차를 타구 들어갔대요.》

당비서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꿈을 꾸는것 같았다.

(큰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다니...)

순간 나는 그만 걸잡을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올랐고 그 걱정을 참을수가 없어 고굴앞의 느티나무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세월의 풍파에 터갈린 늙은 고독의 밀등을 쓸어안고 어깨를 흔들었다. 느티나무는 고향의 품에 안긴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듯 삼단같은 우듬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는 머리우에서 무엇이랴 속살대는 푸른 잎새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 느티나무는 어쩌면 이리도 큰아버지를 련상시키는것인가.

그렇다. 큰아버지는 참된 인생의 영원한 길잡이처럼 고향땅에 뿌리를 박고 광산의 후대들을 키우고있는것이다. 그렇듯 억센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새세대들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조국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느티나무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자 뜨겁게 중얼거렸다.

(너희들은 이 나무의 그늘밑에서 서늘함을 느낄때면 머리우에 드리운 수천수만의 잎새들에 감사를 드릴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땅속의 자양분을 한껏 빨아 이렇듯 무성한 잎새들을 떠받들고 피워주고있는 이 나무의 깊은 뿌리에 대하여 다는 모를것이다.)

서컨하늘에 저녁노을이 빨강게 불타고있었다. 하늘이고 마을이고 느티나무의 무성한 잎새들이고 자지빔 물감을 풀어놓은듯싶었다. 앞을 막아선 구름봉의 산릉선으로 넘어가는 해를 마지막으로 물들고있는 구름덩이들이 여광에 지지우고 달아서 큰 쇠물남비를 련상시켰다. 그 고열이 지금 나의 가슴을 활활 불태우는것만 같았다.

이윽고 열차원의 야무진 호각소리가 울리자 굴길안에서부터 첫 통근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나오고있었다. 열차가 서서히 난장에 벗어나자 안전모를 쓴 젊은 광부들이 떠들썩거리며 내렸다. 그들속에 끼워 땅에 내려선 허리 구부정한 로인이 버릇처럼 실눈을 짓고 매지구름이 떠도는 하늘가를 한참 쳐다보고 서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아이적 목소리로 《큰아버지!--》하고 목메게 부르며 그옆으로 달려갔다.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1 회)

안내의 말

뛰어난 문장가가 되는것, 이것은 문학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루의 희망으로 된다.

문학의 길에서 한생을 걷는 사람이나 이제 첫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나 뛰어난 문장가가 되려는 일루의 희망에서는 다를바가 없다.

력사에 남은 훌륭한 작품들이 레외없이 뛰어난 문장가들의 산물이라는것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누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를 희망하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정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언어수련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성은 처음에는 어휘를 수집하고 명문장을 발취하는 단순한 단계로부터 점차 개성적인 문체를 연구하는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는데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개성적인 문체가 다른아닌 작가의 문체이다.

작가의 문체는 문학-예술문체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에 생겨난 개념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문체는 문학-예술문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개별적인 특성을 두드러지게 가진다.

작가의 문체에 나타나는 문학-예술문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형상성의 표식이라면 개별적인 특성은 개성의 표식으로 된다.

이 두가지 표식가운데서 개별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날수록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생생히 살아움직이며 숨쉬게 된다.

여기로부터 작가의 문체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성은 그 문체의 예술적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문학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한 목표로 지향한다는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고 하여 그 목표로 가는 길도 같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험은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한 목표로 가는 길이 서로 각이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을 추리해보면 지름길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멀리 에돌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길을 찾지 못한채 헤매고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한 목표에로 가는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하여 필자는 《작가의 문체》라는 표제아래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작가의 예술적 환상과 문체,

작가의 미학적 리상과 문체,

작가의 말투와 문체라는 순서로 뛰어난 문장가들이 걸은 길을 열어보이려고 한다.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은 무엇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렇기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하는것은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이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우선 개성적인 문체가 가지는 표현성의 기본이 바로 형상성, 생동성, 호소성, 정서성에 있기때문이다.

깊은 뜻과 생동한 표상, 높은 격조와 절절한 느낌은 문체의 표현적 질로 된다.

이것은 형상성, 생동성, 호소성, 정서성이 개성적인 문체가 가지는 표현성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무엇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하는것이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또한 작가적 재능의 바탕이 바로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에 있기때문이다.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이 있다는것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에서 대상, 현상을 뜻이 깊게, 생동하게, 격조가 높게, 느낌이 절절하게 포착하는 버릇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남다르게 보는 이런 버릇이 생겼다면 그것은 소질로 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상, 현상을 남다르게 보는 그러한 소질은 작가적 재능의 바탕으로 된다.

이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깨닫지 못한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로부터 의견과 함께 작품을 돌려받은 한 문학통신원은 서운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다.

《나한테서 작가로 될수 있는 재능은 보임니

까?)》

편집자는 이런 질문을 한두번만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뜻 대답한적은 없었다. 《없다》는 대답뒤에 올 그의 실망때문이다.

그렇다고 《있다》는 대답으로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편집자는 별수없이 수백번도 더한 강의를 다시 하여야 하였다.

《인간과 그 생활을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을 키우라》고...

편집자는 세월이 흐른뒤에 두가지 류형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의 류형은 작가로 자라난 사람들을 보는것이고 다른 하나의 류형은 종적을 감춘 사람들을 보게 된것이다.

이와 같이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적 재능의 바탕을 마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그것은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그러면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은 작품에서 명문장과 그 수량으로 헤아려볼수 있다

명문장은 그 작품의 사상에술적 가치를 대변하는 결정체로 된다. 그것이 비록 작품의 어느 한 장면이나 대목에 있는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는 작품의 무게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작품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뜻을 가진 문장으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으로, 격조높은 문장으로, 감정이 절절한 문장으로 다시 곱씹게 하는것은 명문장들이다.

그러나 작품마다 명문장의 분량은 같지 않다.

작품마다 명문장의 분량이 다른것은 그 작품의 사상에술적 수준과 관련된다.

명문장이 많은 작품으로서 졸작이 없고 명문장이 적은 작품으로서 명작이 없다.

이것은 현실을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이 명문장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말뒤에 말이 있다. 말뒤에 큰 뜻을 담을줄 아는 재능은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나라별줄 아는 작가들에게서만 볼수 있다.》 (《영화예술론》, 114~115 페이지)

깊은 뜻을 담은 문장은 명문장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명문장에는 깊은 뜻을 담은 문장과 함께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도 있고 격조높은 문장도 있으며 느낌이 절절한 문장도 있다. 그가운데서 깊은 뜻을 담은 문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이란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한 진리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과 감화력은 대단히 크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김병훈)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장들이 있다.

참답게 뉘우칠 힘이 있다면 참답게 살아나갈 힘도 있는것이다.

이 문장은 참답게 사는 사람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 내용을 담고있다.

참답게 사는 사람의 특질의 하나는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이다. 레사로운 일로 스쳐버릴수 있는 잘못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깨끗한 마음,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것이다.

《참답게 뉘우칠 힘이 있다면 참답게 살아나갈 힘도 있는것이다》에는 바로 이런 깊은 진리가 밝혀져있다.

《참답게》와 《참답게》, 《뉘우칠》과 《살아나갈》, 《힘이》와 《힘도》, 《있다면》과 《있는것이다》가 짝을 이루고있다는 측면에서는 대구법이며 두가지 내용이 대비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대비법이다.

이 두 수법의 어울림으로 같은 류형의 구조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내적 운율을 조성해주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을 뚜렷이 알수 있게 해주고있다.

이것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간결한 문장을 짜는 하나의 방도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주로 시문체에서 널리 리용되는 대구법을 소설문체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필자의 자기투로 되며 언어구사의 솜씨로 된다.

힘이라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거지 팔다리에 있는게 아니래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에 대한 관찰)

사람이 육신이 못견더 죽는게 아니라 마음이 못견더서 썩는다오. (체력과 정신력에 대한 관찰)

이 두 문장 역시 생활의 철리를 담고있다.

생활의 깊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이 문장들에는 부정법이 리용되었다.

부정법은 진짜 표현하려는 사상이나 내용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그와 련관된 다른 사실을 부정하는 수법이다.

첫문장에서는 힘이 《마음속에》 있다는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팔다리에 있는게 아니》라고 부정하였으며 둘째 문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이 못견더 썩는다.》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육신이 못견더 죽는게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소설가 김병훈의 이런 말투는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눈물이란 슬픔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맑고 그윽한 감정의 북받침이기도 한모양이다. (인간의 눈물에 대한 관찰)

여기서는 눈물이란 《맑고 그윽한 감정의 북받침이기도》하다는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슬

품만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이것은 문장에 깊은 뜻을 담는 또하나의 방도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필자의 자기다운 관찰과 언어구사의 솜씨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아, 이승과 저승의 얼마나 멀다더냐, 눈을 뜨면 이승이요, 감으면 저승인데 어찌하여 한번 간 사람은 오지 못하며 한번 보낸 사람은 다시 찾아볼길 없이 된단말이냐! (운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한 관찰)

이 레문은 삶과 죽음의 량극단처럼 먼거리는 없다는것, 인정과 망각의 량극단처럼 먼거리는 없다는것, 여기서는 《멀다더냐》, 《된단말이냐!》와 같이 겹친 수사학적 물음법의 리용으로서 눈물로는 다 씻어내릴수 없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절통함을 표현하고있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그 거리가 눈을 뜨고 감는 그 사이인데 왜 가면 못오는가고 다시 물음으로써 감정적으로 더욱 물들어지면서 호소성, 정서성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물음을 던지면서 높은 감정적 호소를 나타내는 수사학적 물음법의 리용으로써도 깊은 뜻을 담는 문장을 짚수 있다는 다른 방도를 가르쳐주는것으로 된다.

표현수단측면에서 보면 앞에 감탄사 《아》와 부사 《어찌하여》가 놓여서 문장전체의 표현적 질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즉 높은 격조와 강한 음악을 울려주고있다. 《아》와 《어찌하여》를 빼고 다시 읽어보면 그 차이를 인차 감득할수 있다.

소설가 김병훈의 이러한 언어구사의 솜씨는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남행렬차가 연착된 역에서

박원종

남으로 향한 역 명판에

있어야 할 이름이 없는 개성역

살같이 달려온 남행렬차

더 가지 못한채 멎어선다고

개성은 종착역이 아니다

떠나가지 못한 렬차

어서 떠나보내자고

농민들 오곡을 숲처럼 땅우에 자래우고

용해공들 쇠물노을 하늘을 물들인다

오, 아이들도 《조국통일 달리기》라

아침저녁 목소리도 정찬 역

처녀총각의 사랑도

남행길 열차는 약속으로 불타는 도시

어버이수령님 찾아오시여

남녘에 고향든 사람들 먼저 만나주시는

아, 개성은 종착역이 아니다

분렬된 조국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뜨겁게 말씀하신곳이어

여기서 서울은 지척이라고

시간까지 헤아려보시던 개성역

백두산천지에서 푸른 하늘 이어지고

백두산줄기에서 강토가 이어진 내 조국

단 한순간의 연착도 허용 않는 우리 인민

마흔해가 넘는 긴긴세월

지리한 연착의 고통 어이 참으랴

남으로 향해

발차 신호 울리기 위해

서두르는 역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다

아, 개성

남행렬차가 연착된 역이어

계급교양과 동화창작

오정애

계급교양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것은 동화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혁명적 동화문학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 자각,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후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동화문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1972년 1월 24일 아동교양을 위한 영화를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동화나 우화같은것을 가지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많은 동화작가들이 주체의 관점, 로동계급의 관점에서 어린이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창작에 낮을 돌렸으며 그 과정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그러나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수들과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이다.

현시기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침략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그에 따라 로동계급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들이 침습할 우려가 커지고있는 사정과 직접 관련된다.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 청소년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동화작품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동화작품이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내용을 아이들의 정서와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보다 생동하고 흥미있는 형상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급적

자각을 키워주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요구는 동화적 내용을 반영하고 형상을 창조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동화는 그 특성으로 하여 선한것과 악한것,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을 내용으로 하여 의인화의 수법으로 형상을 창조하는것만큼 여기서는 특히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이 중요하다. 비록 의인화된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일지라도 그리고 동화적인 옛이야기의 반영일지라도 인물과 사건 하나를 설정하고 세부 하나를 그려도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에서 보고 분석평가하며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은 세계관의 골격이 서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계급교양에 유해로운 작용을 하게 된다.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에 설데 대한 원칙적 요구가 철저히 관철될 때 동화작품은 어떠한 내용을 반영하든 그것이 새세대들의 계급교양을 비롯한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로동계급적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현시기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면 할수록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동화적 형상으로 생동하게 구현하는 문제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바로 인식하며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은 그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적 자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 《달나라 만리경》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동화적 형상으로 보여준 본보기작품이다.

동화는 달나라 만리경에 비쳐진 남북간의 괴이한 현상을 통하여 남조선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동화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는 달나라 계수나무와 절구질하는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면서 달나라 토끼가 진귀한 약초를 구하러 땅에 내려왔다가 썩고 병든 남반부와 행복의 노래 차민치는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목격하고 공화국북반부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는것을 직접 느끼게 되는 과정으로 그리고있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것을 보여줄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제에 맞게 동화적인 내용과

인물형상을 창조하고있으며 흥미있는 사건들을 설정하고있다.

동화에는 달나라에 조상때부터 금절구와 함께 전해져내려오는 빨간 보석렌즈가 달린 만리경으로 긴수염토끼가 지구를 굽어보는 장면이 있다. 이 만리경으로는 아무리 먼곳도 가까이 당겨볼수 있고 아무리 작은것도 크게 볼수 있으며 지어 먼곳의 냄새도 맡고 소리까지 들을수 있다. 동생토끼에게 먹일 약을 구해올 고장을 찾으려고 만리경으로 지구를 굽어보는 긴수염토끼앞에는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북쪽땅과 남쪽땅이 펼쳐지는가 하면 숨이 막히도록 무더운 열대지방이 지구의 한복판에 안겨오기도 한다. 그러다가 사흘만에 경치 아름답고 꽃향이 넘치는 토끼처럼 생긴 맑은 아침의 나라를 찾게 되며 마침내 이 나라 북쪽에 가서 불로초와 산삼을 얻어다가 동생토끼를 살려낸다.

동화에서는 우선 펼쳐진 동화적 화폭을 통하여 그 어디에도 비할수없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맑은 아침의 나라의 전경을 제시하고있으며 맑은 아침의 나라에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자리잡고있음을 형토끼가 북과 남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사실과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인 재빛토끼, 사슴 등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동화에서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즐겨부르는 구전동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의 민족적인 정서를 타고 끌려들어가게 되는 계수나무동산, 여기서 사는 흰토끼형제 등의 생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흥미있는 사건들과 신기한 금절구, 백가지 병을 낫게 하는 《월계향》약, 신기한 만리경 등 동화적 환상들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동화적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동화에서는 토끼들이 달나라에서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를 만리경으로 들여다보는 시점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인민의 지상락원이 펼쳐진것은 《지구의 자랑이요, 온 우주의 영광》이라고 레찬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청소년들을 고무하고있다.

동화는 풍부한 환상과 특색있는 의인화수법으로 온 나라 인민이 행복의 노래부르며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만이 차례지는 남반부의 현실을 대비적으로 뚜렷하게, 심도있게 보여줌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로 하여금 남반부에 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인식할수 있게 하며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 각오를 가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동화 《달나라 만리경》은 이처럼 달나라에서의 우리 나라에 대한 관찰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으로 밝힘으로써 독창적인 형상세계를 빛나게 개척하였다.

우리 동화작가들은 동화 《달나라 만리경》의 창조경험을 본받아 우리 나라 사회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다양한 내용과 형상수법으로 적극 반영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기존틀이나 고정된 수법이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동화적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동하게 그려낸 보다 새롭고 참신한 동화세계가 탐구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옹계 구현하는것과 함께 또한 행복하면 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깊이있게 밝히는것은 계급교양주체의 동화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제국주의 압박도,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오직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란 청소년들은 오늘의 이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지난날 부모들의 쓰라린 과거에 대해 잘 모르고있으며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본성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고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은 조그마한 시련도 참아내지 못하고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동요할수 있으며 따라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없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행복하면 할수록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을데 대한 내용을 동화적 형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 문제는 동화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지 않을수 없다.

동화작품창작에서 과거를 잊지 말데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수법의 하나는 대비수법과 회상의 수법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오늘의 행복이 지난날의 비참한 생활과의 대비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감수될수 있는것과 함께 대비교양이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알맞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또한 동화적 형상창조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수법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동화작가들은 계급교양주체의 동화창작에서 대비의 수법에 많이 의거하여왔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비적 수법에 의하여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말데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지난날의 비참한 생활을 제시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줄수도 있고 회상의 방법으로 지난날과 오늘날을 대비할수도 있으며 지난날과 오늘날을 동시에 동화적 화폭에 담아 그 차이를 뚜렷하게 제시할수도 있다.

이러한 대비수법, 회상수법에 의한 동화적 형상창조의 훌륭한 모범을 우리는 혁명동화 《머느리와 줌다래나무》, 《봉선화》 등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보여준 작품들에서 생동하게 찾아보게 된다.

빛값으로 지주집에 끌려간 머느리가 갖은 천대와 멸시만 받아오다가 나중에는 《죽도적》으로 물러 펄펄 끓는 죽에 허바닥이 절반이나 데어 하

양게 되었고 그 원한이 서리어 무덤가에 잎사귀가 절반이나 하얀 좀다래나무 한그루가 솟아났다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 울밀에 처량하게 편 봉선화를 두고 지주놈의 등쌀에 건디다 못하여 물에 빠져죽은 착하고 불쌍한 봉선의 원혼이라고 보는 《봉선화》.

작품에 형상된 좀다래나무와 봉선화는 지난날 우리 여성들인 겪어온 고통과 불행, 비참한 운명에 대한 상징적 형상이다.

이 상징적 형상에는 지난날 우리 여성들의 쓰라린 생활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함께 그러한 악을 낳게 한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이 어리어있다.

동화들은 억압자, 착취자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정신도덕적 미를 간직한 머느리와 봉선 등 근로여성들의 성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행복할수록 지난날 부모형제들이 당한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잊지 말고 계급적 자각을 높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동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 《봉선화》는 동화의 사상주제적 특성에 맞게 동화적 성격과 환상을 창조함으로써 천대받고 압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악착하기 그지없는 지주놈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있다. 어질고 착한 머느리가 먹으면 새 힘이 부쩍 솟게 하다가도 지주놈이 먹으면 허가 떨어지게 하는 좀다래나무, 봉선이가 빛으면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꽃방울처럼 고와 지다가도 주인너편네가 빛으면 움부꺼비처럼 되는 환상 등은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동화들은 동화적 특성에 맞는 동화적 형상들의 창조와 동화의 내용에 기초한 여러가지 특색 있는 생활들과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생활 화풍들도 생동하게 재현하고있다.

그리하여 동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 《봉선화》는 그 내용의 심오성과 형상의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자라나는 세대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동화작가들은 지난날 우리 부모들이 겪은 비참한 생활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동화적 형상으로 감명깊게 재현한 이 동화들을 본보기로 하여 과거를 잊지 말데 대한 내용을 더욱 깊이있고 전면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동화 작가들은 지난 시기 생활을 그대로 돌이켜보는 회상의 방법이나 대비의 방법과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며 제도의 우월성과 과거를 잊지 말데 대한 내용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대하는 주체의 관점을 바로세우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과거를 잊지 않을데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이에 계급교양을 옹계 안반침해줌으로써 로동계급적 관점에서 동화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게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지난날과의 대비 속에서 오늘의 행복을 보여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것이 더 많은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이 두드러지게, 작품전반에 차고넘치도록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동화적 내용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급교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동화적 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동화적 성격을 떠나 동화작품의 내용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사상예술적 성과에 대하여 논의할수 없다.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에서 동화적 성격은 무엇보다먼저 철저히 계급적 선에 선, 로동계급적 선이 뚜렷한 성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에서 창조된 성격은 계급적 선이 모호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범벅이가 아니라 계급적 선이 똑바로 서고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뚜렷이 체현한 성격으로 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청소년교양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다.

동화 《황금덩이와 강낭떡》,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 나오는 동화적 성격들은 철저히 로동계급적 선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계급적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는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계급교양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에 구현된 동화적 성격은 또한 인민들의 리상과 지향, 희망과 꿈을 체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적 성격은 인민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구현한것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자신뿐아니라 착취받고 억압받는 모든 피착취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은 근로인민대중의 리해편계와 근본적으로 합치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동계급의 리상과 지향은 곧 인민대중의 리상과 지향의 반영이며 인민들의 희망과 념원은 로동계급의 희망, 념원과 일치된다고 볼수 있다.

동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의 주인공 머느리와 동화 《봉선화》의 주인공 봉선이같은 인물들은 착취받고 압박받으며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하면서도 량반들과 부자놈들이 따를수 없는 정신적 미와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고있다.

머느리와 봉선이는 갓은 천대와 멸시를 받다가 종당에는 비극적 종말을 고하면서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려는 지향과 념원만은 버리지 않는다.

동화는 바로 이러한 인민적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동정을 느끼게 하며 량반, 지주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동화적 성격 창조에서 인민적 리상과 지향의 반영은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 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 원칙의 하나이다.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작품에 구현된 동화적 성격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급적

원썹들의 반동적 본질과 착취성, 악랄성을 형상적으로 그리는것이다.

계급적 원썹들의 반동적 본질과 착취성, 악랄성을 예리하게 그려야 청소년들에게 놈들을 미워하고 계급적 원썹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게 한다. 그러자면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증오가 가게끔 동화에 나오는 부정인물을 밋고 추하고 교활한것으로 그리며 놈들에게 환상이 가지 않도록 그 착취자적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동화적 형상으로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동화적 성격들을 창조하려면 다양한 묘

사 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동화의 고유한 의인화수법뿐아니라 예술적 과장, 동화적 환상, 형상적 상징, 해학, 풍자 등 여러가지 동화창작 수단들과 형상수법들을 능숙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계급교양주제의 동화적 형상의 특성에 맞게 특색있게 잘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동화문학은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대로 세세대들의 계급교양에 더 잘 이바지하는 혁명적 동화문학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해창나루

황인섭

강화도로 오가던 짐배들 어디 가고
나루가의 사공들도 보이지 않고
밀물만 썰물만 속절없이 드나드는
해창나루 해창나루 끊어진 배길

물결우에 둥둥 물오리떼 모여들면
그날의 짐배들 다시 떠서 오는듯
구레나룻 사공들 돛목을 당기며
배따라기 구성지게 부르며 오는듯

이런 때면 마음속에 그 모습들 보여와
해창나루 물결우에 마음 실어보느라면
아, 보내야 할 짐들이 너무도 많구나
굶주리는 남녘땅형제들 위해
해를 두고 마련한 이 땅의 재부

논뚝을 묻으며 설레이는 이삭의 물결
쌓으면 벼랑가리 산이 되어 솟으리
가지마다 휘도록 주렁진 감알은
실어가고 실어가도 끝을 모르리

경적소리 울리며 달려온 자동차는
남녘땅 형제들뚝을 더해 실었다고

무늬고운 비단필, 부엌세간들
매대가 넘치도록 부리워놓았구나

지난날엔 배사공들 하루만 쉬어도
나루터가 비좁도록 물동들 쌓여지고
온 마을 젊은이들 펼쳐나와야
가는 짐 오는 짐 다 싣고 부리더니
몇몇해를 거듭하며 사공들 쉬고있나
몇몇해를 거듭하며 재부는 덧쌓였나

굶주리는 남녘땅형제들 생각하며
작년에도 풍년가을 앞당겨온 이 땅
올해는 쌀더미 더 높이 솟았으니
이 많은 짐들을 언제 다 보내나
풀먹던 젖소들도 걱정인듯
언덕우에 우뚝 서서 나루터만 바라보네

아, 미제가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아래
오가던 배길마저 막혔어도
막힐수 없는 혈육의 마음은
해창나루 물결처럼 하나로 이어져
배길을 재촉하네
통일을 재촉하네

건축가의 점과 선

한용결

간밤을 새워
한점
한선을 그었노라

점이여
선이여
너 정녕 뿔이길래
이리도 내 온 뉘를 안아
한밤을 새우게 하느냐

쉽게 생각하다가도
무겁게 여겨지는것
점이여라
선이여라

생각난다
진눈까비 내리는 건설장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을 위하시는 그 숭고함을
점과 선으로 깨우쳐주신
잊을수 없는 그자리

바쁘신길 멈추시고
한점, 한선을 그으실 때
흐르는 시간속에 타드는 송구함
마음의 자책

그날부터였구나
점이여
선이여
너는 내 량심의 대문을 흔들며
나를 일으켜세워준 열정의 불씨

너는 때로 나를
환상의 룡마에 태워
꿈같은 미래를 안아오게 하였고
너는 때로 나를
창조의 희열속에 잠기게 하였나니

너는
진지한 탐구속에 안겨드는 기쁨
너는
새집들이 웃음 넘친 그 창가
마주보는 신혼부부의 정겨운 그 눈매

토성랑의 거적촌
집 한칸이 소원이던 눈물겹던 그 사연에
너는
행복의 꽃분수로 솟아나는 아름다움

내 한생을 다하여
너를 사랑함도
내 한점, 한선을 위해
내 한생을 다 바쳐감도

그때문이여라
점이여
선이여
오선지우에 새겨가는 악보처럼
너는 내 설계탁우에서 태어나
건설의 교향곡으로 울려퍼지거니

너는
위대한 향도성을 받들어
공산주의어로 향해 가는
내 심장의 노래
내 온 뉘의 뜨거운 속삭임

그 무엇에 건주랴
너를 그으며 사는 기쁨
버꽃이 피었다고
좋아라, 손뼉치며 달려오는
농장원처녀들의 맑은 목소리도

보일락말락
시야에 안겨드는 포구를 바라보며
만선하고 돌아오는
어로공의 기쁨도
여기에 비길손가

아, 나의 기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영광의 그날을 안고사는
나의 행복이여
빛나는 세월과 함께 영원히
삶의 전부로 추억될
건축가의 점과 선이여 !

나리꽃

원종주

1

산중턱을 타고왔은 거인처럼 덕지대의 후미진 골짜기들과 높고낮은 구룡들을 굽어보는 대선광장의 은백색지붕우에 9 월의 따뜻한 해별이 자글자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선광장 맞은편의 밋밋한 비탈면을 따라 은실같이 드리운 실개울을 사이에 두고 일매지게 줄지어선 알쭉한 새 살림집 마을은 선광장지붕이 던져주는 은빛 후광을 받아 전에없던 활기로 들끓고있었다. 며칠전에 선광장조업식이 끝나자 건설단지취부에서 산하 각 련대와 대대들에 배속된 일부 지원돌격대들에 곧 철수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있던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휴식일로 선포되었다.

덕지대등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다녔다. 여기저기에서 중대와 중대간 그리고 소대와 소대간에 소박하고 다양한 종목들로 준비한 《작별오락경연》이 벌어졌다.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온 등판이 떠나갈듯했다.

《작별오락회》란 말을 듣고 웬간해서는 집울타리를 나서지 않던 제대군인광부의 새각시들도 들혹은 셋씩 짝을 짓고나섰다. 엇그제 생남을 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처녀적의 수집음을 채 가져버리지 못해서인지 그들은 하나와 같이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포근히 가리우고 조심스레 걸음을 저저덜고있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워보이는 그들의 걸음새에는 어딘가모르게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엿보인다. 실은 선광장건설의 마지막 전투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와 낯도 변변히 익히지 못한 애아버지들이 《작별오락회》라는 그 희한한 장소에서 과연 어떻게나 놀고있는지 혹시 남들보다 짝지지는 않는지 몹시 궁금해서이리라...

나지막한 둔덕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는 오숙은 가슴이 뿌듯하게 깊은 감회속에 잠겨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1 년전에 오숙은 선광장굴착을 위한 첫 도화선에 불을 단 척후대로 여기 덕지대등판에 오른 처녀돌격대원의 한사람이었다. 오숙은 원래 공업도시인 《ㅎ》시의 어느 한 연구소의 분석공으로 일했었다. 선광장건설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꾸려준 배낭을 벗삼아 홀로 연구소의 아

늑한 창가를 떠나왔었다.

일은 실로 간고했다. 어데를 둘러보아도 오랜 세월 모진 눈비와 풍상 속에 거미잔등처럼 거뭇거뭇해진 바위들이 곰같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하지만 오숙이네들은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산비탈을 깎아내고 그것을 벽삼아 반토굴집을 짓고 생활을 개척하였다.

연약하던 오숙이는 어느덧 한다하는 돌격대원으로 자라났다.

어느덧 짐승의 발자국밖에 없던 이 덕지대등판에 하나의 산업도시를 방불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선광장이 일떠서고 수백세대를 헤아리는 새 살림지구가 형성되었다.

난생처음으로 자기의 땀발을 뿌린 이 땅과 희노애락의 잇을수 없는 감정이 충충골조마다에 다분히 스며있는 저 거대한 창조물들에 대한 오숙이의 애착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강렬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오숙은 이 지방을 떠나야 한다. 이제부터 잇을수 없는 그 나날들이 한갓 추억으로 남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오숙은 무엇인가 소중한것을 잃은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런데다가 좀전에 떠나는 수속을 하려고 중대부에 들렸던 오숙은 뜻밖에도 1 년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제대군인청년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영원히 남아있기로 했다는 말을 귀동냥해들었다.

오숙이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산넘어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송이구름을 야속스레 바라보고있을 때였다. 그닥 크지 않는 키에 장난기가 심해보이는 가무잡잡한 처녀가 보리밭고랑을 헤치며 오숙이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돌격대가 조직되던 초시기부터 오숙이와 함께 일해오는 가장 친한 동갑동무인 방옥이었다. 중대에서 늘 인기와 사랑을 독점하고있는 처녀로서 익살쟁이며 《팔랑이》였다.

《오숙아, 네 언니한테서 온 편지다.》

방옥은 숨을 몰아쉬며 오숙에게 편지를 한통 내밀었다.

오숙은 얼른 편지를 뜯어보았다.

...오숙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너희네들이 건설한 방대한 선광장이 조업을 시작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다. 축하한다. 얼마나 수고

했니. 지금 온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이 마음도 몸도 몰라보게 성장한 너를 기다리고있단다. ...

《아이 참...》

오숙은 편지를 읽다 말고 어린애처럼 두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방옥이가 시샘하듯 그의 손에서 편지를 나꾸채가지고 본다.

《애두 참...》

이때 갑자기 둔덕아래에서 요란한 박수소리와 함께 떠나갈듯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오숙은 얼핏 머리를 돌렸다. 이들이 속한 유금석소대와 고창림소대간의 오락경쟁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들의 모습을 일별하던 오숙의 웃음어린 얼굴에 홀연 한가닥 실그늘이 드리웠다.

《방옥아, 너 무슨 말을 듣지 못했니?》

《무슨 말?》

《제대군인동무들이 여기 남는데...》

《아니, 뭘?》

방옥이가 눈길을 흘깃 치뜨며 사뭇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누가 그러던?》

방옥이가 다시 재촉했다. 그러자 오숙은 부지중 그에게 공연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감이 들었다. 한것은 지금 저 둔덕아래에 내려다보이는 고창림소대장으로 말하면 지난봄부터 방옥이와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있는 청년이기때문이었다. 불현듯 오숙의 눈앞에는 지난봄에 있었던 일이 생각키웠다.

그날 한밤중에 돌격대호실 뒤울안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뿔나무무지에서 불이 일었다. 봄날의 삭정이는 화약과 같은것이다. 온 무지에 불이 달릴 위기일발의 순간에 마침 비상종이 울리고 돌격대원들이 잠자리를 걷어차고 달려나왔다. 다행히도 불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으나 고창림소대장을 비롯한 수명의 돌격대원들이 손과 발에 경화상을 당했다. 이튿날 아침에 사고심의가 있었다. 그날 저녁 3 인조식당근무책임자인 방옥이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한것은 식당근무를 서던 한 처녀가 밤대거리 새참식사를 덥히느라고 부엌에 불을 지핀채 깜박 졸고있는사이에 불이 난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또 소동이 일어났다. 지휘부에서 추궁을 받고나온 방옥이가 그 순간부터 종적없이 사라진것이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왔다. 오숙은 단가마처럼 속이 타들었다. 실은 낮에 방옥이가 와서 자기때문에 화상당한 동무들을 보기가 막 미안하여 못견디겠다면서 화상에 좋다는 오소리기름을 얻으려 어디에 좀 다녀오겠다고 귀뽕하고 사라진것이다.

방옥이를 찾으려고 온 중대가 막 흩어지려는 순간에 불현듯 그가 나타났다. 방옥이는 등에 묵직한 자루를 지고있었다. 자루에는 산 오소리가 들어있었다. 얼마후 방옥이의 자유주의적인 행동이 비판되었다. 대신에 동지들을 위해 귀중한 약재를 구하여온데 대하여 다소나마 평가를 받았다.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고창림소대장이었다.

처녀가 산짐승을 산채로 묶어온 사실은 돌격

대원들을 아연케 만들었다. 방옥은 어떻게 잡았는가고 누가 물을라치면 짐짓 위풍을 부리며 으시대군 하였다.

며칠후에 중대부엔 백발의 건장한 웬 로인이 찾아왔다. 그 로인은 포수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품안에서 고급천으로 만든 비취색머리수건을 꺼내놓았다. 로인은 며칠전에 자기가 놓은 오소리용노에 짐승대신에 이 머리수건이 걸려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보매 이 수건임자가 그 짐승을 꼭 썬야 할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싶은데 오소리 한마리가 뭐길래 이런 좋은 머리수건을 대신 뿔구어놓는가 나무라면서 수건임자의 가혹한 마음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방옥의 유능한 《사냥》 솜씨가 말쑥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방옥이를 정찬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고창림소대장이었다. ...

오숙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무심중 웃음발을 피워올렸다. 하지만 그때부터 간직하고있는 그들의 남다른 우정이 서로 떨어져야 하는 이 순간에 와서 어찌 사랑의 감정으로 번져가지 않을 수 있으랴 하는 위구심때문에 오숙은 인차 웃음을 거두었다. 고창림소대장과는 달리 방옥은 오숙이네와 함께 수일내로 이 땅을 떠나야 할 몸이다. 모름지기 그들의 우정이 사랑으로 승화되었다면 그 감정은 아직 합수목을 사이에 둔 응축수와도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그 응축수가 앞으로 과연 어떤 굵을 따라 서로 하나로 합쳐질것인가.

이윽해서 방옥이와 함께 우불구불한 둔덕길을 에돌며 착잡한 생각을 몰아가던 오숙은 지금 이 자리에서 친한 동무에게 무엇인가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있는 자신을 느끼자 저으기 민망해졌다.

2

오숙은 감빛저녁노을을 비껴담고 쉬임없이 주절대며 흐르는 개울가에서 직심스레 빨래를 행고 있었다. 아직 합숙생활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금석소대장과 그밖의 제대군인들의 빨래감이었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이 땅의 주인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제대군인들을 볼 때마다 남몰래 이상야릇한 감정을 느끼곤하는 오숙이었다. 지어는 그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럴적마다 처녀의 눈은 항변할수 없는 서러움에 젖어올랐다.

오늘도 때없이 찾아든 그 마음때문에 오숙은 그들의 넓어진 옷가지들을 한아름 걸어안고 개울가에 나온것이다.

물살빠른 옷어물목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오늘 따라 유난스레 정차게 울려온다. 이고장에 처음 왔을 때에는 너무나도 귀에 설은 소리여서 끝갈던 단잠마저도 깨워주던 물소리였다. 하지만 이즈음에 와서 귀가에 붙들어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들수 없는 자장가의 유정한 선율처럼 저 물소리를 타고 달콤한 꿈이 실려오고 아름다운 환상도 끝없는 희망도 가없이 나래를 퍼간다.

《호…》

오숙의 입가에서는 부지중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음은 끝없이 번거롭기만 했다.

오숙은 언뜻 머리를 들고 개울웃목을 바라보았다.

천구슬 만구슬로 부서지는 진주옥색의 저녁노을을 비껴담고 일사천리로 질주해오던 개울물은 한순간 소슬한 미풍을 몰고와서 처녀의 두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귀밑머리를 날리었다.

두눈을 잔조름히 찌프리고 그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는 오숙의 눈가에 홀연 외돌기의 맑은 이슬이 구울렸다. 이제 다시 산촌의 이 아름다운 정서에도 더는 몸을 맡길수 없게 되었다는 한스러움이 가슴을 더 허벼내는 것이었다. 물결을 일쿠며 와락 와락 빨래를 행구던 오숙은 문득 등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땀에 화락하니 젖은 방옥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금시 쪽에 올라서고있었다. 공포에 질린듯한 눈길로 사방없이 헤덕거리던 그는 오숙이를 보자 물가에 내려왔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오숙이의 눈길을 피해 잠시 우두커니 서있던 방옥은 대뜸 팔을 올려걸더니 비누물에 재워놓은 빨래가지를 쥐고 세팔게 주물며 거품을 일쿠기 시작하였다.

《웬일이니?》

《오숙아, 난… 어쩌면 좋니? … 아이참 고동무가 글썄…》

《그가 왜?》

오숙은 짐짓 모르쇠를 하며 되물었다.

《그가 글썄… 날 사랑한대… 내가 떠나기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길래 만나주었더니… 글썄…아, 난 어쩌면 좋니? …》

방옥은 오숙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오숙은 별로 놀라와하는 기색이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방옥이를 내려다보았다. 어쩌지 그들의 사랑이야기가 오숙에게는 너무도 그럴상 싶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자기들이 땀흘려 이룩해놓은 저 선팡장과 같은 창조물이 어찌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사랑의 노래를 엮어내지 못하랴싶었던 것이다.

《내가 여직껏 고동무를 존경하구 믿어온건 사실이야, 그건 그가 훌륭한 청년이기때문이였어… 하지만 우정의 율타리는 넘지 않았어… 인정과 믿음 그것이 그대로 사랑으로 될수야 없지 않니? …》

마음속의 고뇌를 조금이라도 덜어달라는듯한 애절한 호소가 담긴 그의 물기어린 눈을 보는 순간 오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문득 어디선가 기타소리가 실려왔다. 귀에 익은 소리였다. 오숙은 넋지시 소리나는쪽에 눈길을 돌렸다. 호실마당가녁에서 고창림이가 기타를 타고있었다.

저무는 산촌의 불그레한 대기를 흔들어 그들의 마음을 울려놓아 한순간 눈굽을 짜릿하게 만

들었다.

방옥이가 얼굴을 싸쥐고 개울웃목으로 종달음쳤다.

《방옥아!》

그날저녁 오숙은 모포를 뒤집어쓴채 누워있는 방옥이의 머리맡에 이윽도록 앉아서 고르롭지 못한 그의 숨결을 가늠해보고있었다. 오숙의 눈에는 측은한 빛이 어리었다. 수십명의 총각들속에서도 아직 한번 주눅이 들어 어깨를 떨어뜨리거나 락심에 잠겨본 일이 없는 방옥이었다.

오숙은 은연중 방옥이 대신에 자신을 고창림 앞에 세워보았다. 고향 아닌 이 땅을 그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자기의 운명앞에 그런 용단을 내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숙은 홀연 야릇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줄지에 그가 요즘 늘 느껴오던 제대군인청년들에 대한 알지 못할 죄의식으로 번져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의 뇌리에는 지난날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의 갈피들이 펼쳐졌다.

지난 겨울 어느날이었다. 런 나흘째나 계속 내려 사람들의 허리를 치던 눈이 몇자 레의 뒤따르곤하는 덕지대의 유명한 광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사방에서 눈사태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눈기둥이 솟구쳤다. 바람은 마치 길들지 않은 맹수처럼 소리를 내지르며 돌격대원들의 얼굴을 후려했다. 오숙이네들은 압축공기로 눈가루를 날려보내면서 굴착전투를 벌렸다.

한낮이 기울어 해질녘이었다. 갑자기 태질하는 바람속을 뚫고 《소대 모였!》하는 뽕잔 구령이 내렸다. 순식간에 소대가 정렬했다. 무슨 일인가싶어 수십의 눈빛들이 대렬앞에 나선 유금석소대장을 주시했다. 모두가 돌발적인 그 어떤 사태를 예감했다.

《동무들! …》

무겁게 입을 뗀 소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다. 회오리치던 눈기둥이 그를 활각삼켜버린것이다.

《동무들.》

눈가루를 뒤집어쓴채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우리 소대에 한장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서리발갈던 눈빛들에 일순간 의혹이 실리었다. 생각과는 달리 소대장의 목소리는 꿈결에서처럼 부드럽었던것이다.

유금석소대장은 앞섶을 헤치고 마치 하얀 비둘기처럼 나풀거리는 종이 한장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한순간 숨죽은듯 주위의 온갖 소음이 잦아들었다.

《지금 저 령말에 해주에서 찾아오는 우리 소대 정동무의 안해가 와있소.》

소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초긴장이 서리였던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점차 해식은 미소가 피여오르더니 마침내 《와》 하는 폭소가 터져올랐

다.

《길이 막혀 눈 녹기를 기다릴수는 없소. 순간도 지체할수 없소... 더우기 그에게는 갓 태어난 정동무의 보름달같은 아들이 있소.》

또다시 환희에 찬 웃음이 터져올랐다.

아쉽게도 정동무는 원목채벌을 가고 없었다. 추위에 얼어 푸릿해진 유금석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젠 이 등판에도 발파소리만이 아니라 어린 것들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울리게 됐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말이요.》

갑자기 젖어든듯한 유금석의 음성에 돌격대원들은 저마끔 미소어린 눈길을 들어 저 멀리 눈덮인 령봉들을 바라보며 제 나름의 생각들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윽고 유금석소대장과 함께 예닐곱명의 돌격대원들이 령을 내려갔다. 오숙이와 방옥이는 소대장의 특별지시를 받고 이미 배정받은 정동무의 아담한 새집으로 달려갔다...

생각에서 깨어난 오숙은 입술을 감쳐물고 눈길을 떨구었다.

그날밤 유금석이데 일행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정동무의 안해는 언행과 몸가짐이 꾸밈새없는 소박한 느낌이 드는 녀성이었다. 그때 오숙은 이 땅과 결부된 그들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 못했다. 눈때문에 고생하겠다는 인사말이 소작이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팔에 떠들리워다니는 애기의 귀여움에 대한 말 한마디가 다였다. 그 녀자에 대해서 좀더 인정적인 생각을 기울인것이 있었다면 바늘 가는데 실 가기 마련이라고 단순히 해석한데 불과했었다.

오숙은 피로왔다.

이밤따라 어떤지 망막속에 스쳐버린 그 녀자에 대한 가지가지의 인상이 여태 느껴보지 못한 의미를 띠고 새록새록 밝혀오면서 아픈 매질을 해왔다. 오숙은 그를 수없이 보아왔었다. 언젠가 돌격대식당에 콩나물시루를 안고나왔고 또 언젠가는 더운 국을 이고 전투장에도 나타났다. 또 언젠가는 새끼돼지를 안고 비오는 령길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 녀자의 얼굴에는 언제나와 같이 인상좋은 웃음이 피어있었다. 처음부터 산 설고 물 설은 생소한 고장에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일손이 모자라는 친정집에 온 집난이같았다. 오숙은 여태 그 녀자가 다사분망하게 지내는것을 한갓 가정주부의 소일거리로 치부해왔었다.

그 녀자에 대한 갖가지 추억은 오숙이를 사정없이 매질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주장의 지긋은 항거의식은 초롭초롭 머리를 쳐들었다. 착공의 첫 삽을 박은 그날부터 조업의 테프를 끊는 순간까지 오숙은 명실공히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일해왔다. 그가 집으로 가는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건설의 중도에서 교대하여 떨어지는 사정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미련

을 두고 안두고 하는 문제는 사람나름의 문제로서 이처럼 고심참담한 생각을 기울일 하등의 상관없는 일이다. 언니가 보내온 편지의 한구절을 빈다면 정말로 몸도 마음도 성장하여 기개높이 돌아가야 할 자랑스러운 길이 아닌가. 그럼에도 오숙은 이렇게 자기 모순의 세계에 빠져 속절없이 구속받고있었다.

(무엇때문에 ? ... 무엇때문에 ? ...)

부지중 오숙의 입새로 가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덕지대의 밤은 박삭없이 깊어갔다.

3

석양녘이었다.

두 처녀는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작은 소를 이룬 시내가에 앉아있었다.

래일이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들의 머리우에는 덕지대의 마지막 노을이 장미빛으로 곱게 물들어있었다.

오숙은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모든것이 어떤지 더 숨가쁘게만 느껴졌다. 고창림과 방옥이와의 문제도 아직 아귀를 짓지 못하고있었다.

오숙은 며칠 안되는 사이에도 자기를 믿고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가볍게 처신했던 자기자신을 나무람하던 고창림을 보고서는 전혀 입을 봉하고 있을수가 없었다.

《방옥아 ...》

오숙은 나직하나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 ? 》

고창림과 사랑 《접전》이 있은후로는 전혀 한 사람이 돼버린 방옥이가 침울한 눈길을 들었다. 충혈진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구원을 바라고져하는 간절한 기대에 젖어있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위안될 말을 할수 있겠니. 난 너에게 비추어 자신을 반성할뿐이었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너의 그 고민과 눈물을 부러워했다. 우린 1 년동안이나 늘 함께 붙어다녔지만 이 덕지대등판에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 ...》

오숙의 진정이 담긴 말에는 일종의 서글픔이 어려있었다.

《물론 녀자들이 어떤 고장에 사랑을 찾아가는 가 하는 문제는 전혀 론의밖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보다도 사랑이 무엇을 위해 지향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너는 제고장이 아닌 이 땅에 아직 정을 붙이지 않았기때문에 고동무의 사랑을 단념한것이라고 본다. 난 요즘 정동무의 아주머니를 두고 생각이 깊어져.》

오숙은 은연중 불을 토하듯 열렬해졌다.

《아이... 제발 그만하려마...》

방옥은 피로움에 지친듯 황황히 도리질을 했다.

이때였다. 물우에 비낀 처녀들의 그림자너머

로 불쑥 다른 그림자가 올라다보며 빙그레 웃는 바람에 그들은 뒤를 돌아봤다.

뜻밖에도 유금석소대장이 정대며 꼭팽이를 메고 서서 그들을 굽어보고있었다.

처녀들은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들있소. 빨래터를 잡을만한곳을 찾아온다는게 예까지 왔구만.》

《네? ... 빨래터라니요?》

그 껍투룩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미안쩍은 어조로 혼연히 던지는 말에도 오숙은 짜장 가슴 찢는 아픔을 느꼈다.

《아니 그런데 방옥동무가 있는곳이 이렇게 조용한 때도 있소? 허허?》

유금석은 망연자실한듯 서있는 방옥이를 보고 한마디 툭을 놓았다.

이윽고 유금석은 물에 들어서서 돌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오숙이와 방옥이도 따라섰다. 유금석이 그들더러 그만두라고 일켰으나 오숙은 굳이 정대를 들고 그를 도와나섰다.

셋은 말없이 일손을 놀려나갔다. 작은 돌들은 추어내고 평퍼짐한 돌들은 고무어놓기도 하면서 물덕을 넓혀나갔다. 오숙은 까닭없이 끼쳐드는 불안감과 알길 없는 회심의 자책속에 숨가빠 손을 놀렸다. 홀연 가슴이 알찌근해난다. 하지만 한순간의 아픔이다. 부지중 마음속깊이에 자리잡고 있던 불만스러운 감정이 또다시 굴뚝거린다. 내가 무엇때문에... 내가 무엇때문에 이런 자기 불만속에 모대겨야 하는가... 그 불만이 어디에서 부터 오며 누구에게 향해진것인줄도 의식하지 못하고있는 오숙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그 무엇이 목구멍을 짚고짚고 자극한다. 어제는 정동무의 안해가, 오늘은 유금석소대장이 그를 향해 무엇인가 절절하게 호소하는것만 같았다. 아, 어쩔...

수건이 벗겨지면서 머리칼이 흐트러져 물에 잠기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오숙은 갑자기 《공-》 하는 용쓰는 소리에 언뜻 머리를 돌렸다.

(어마나?! ...)

순간 그는 뒤로 자빠질듯 손으로 입을 가리우면서 물러섰다.

유금석이가 커다란 바위돌을 아름이 벌게 안고 방금 허리를 펴고있었다. 땀으로 질펀해진 적동색목덜미에는 굵다란 피줄이 뻗쳐올랐다.

오숙의 목구멍으로는 느닷없이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한것이나 땀을 빼고나니 어지간히 큰 빨래도 여럿이 모여앉아 마음대로 행굴수 있게 물량도 많아지고 자리도 편편히 넓어졌다.

어느덧 장미빛 노을이 점점이 바래어지면서 땅거미가 깃들자 방금 이루어놓은 작은 소에 별그림자가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였다.

빨래터를 말끔히 걸어낸 그들이 기슭의 하얀 자갈밭에 나왔어 어느새 송사리떼가 모여들어 방

금 내려앉은 은보석같은 별그림자를 흐트러놓으며 마구 뛰놀아냈다.

방금 해놓은 일에서 다소나마 정신적 안정을 얻은 오숙은 다감한 빛이 어린 눈길을 들어 어둠의 장막이 소리없이 내려앉은 새 살림지구를 바라보았다.

아직 향긋한 송진내가 풍기는듯한 새 굴뚝들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집의 창문마다에 불빛이 따뜻이 흘렀다. 어느 집 모퉁이에서는 머느리가 생남했다는 기별을 받고 손주 보러오는 어머니의 짐보따리우에 앉아 이 덕지대 등판에 올라온 강아지새끼가 제법 제집이노라고 짖어대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간간히 들려왔다. 또 어디선가 이 땅에 태를 묻은 첫세대가 터뜨리는 다기찬 고고성이 별빛 찬란한 하늘공간으로 메아리쳐갔다. 그릇 부시는 달그락소리, 애기를 사이에 놓고 주고받는 젊은 부모들의 상냥한 속삭임과 웅글은 목소리, 덕지대 자연의 특유인 대지를 활으며 한껏 어우러지는 밤안개, 그속에서 피어오르는 새각시들의 조심스러운 웃음소리와 지방색이 짙은 서로 다른 사투리들...

오숙은 은연중 자신을 까마득히 잊은채 저무는 산촌의 아늑한 정서에 심취되어버렸다. 이 생활의 화폭이 그리도 소중한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장을 뜨게 된다는 서글픔에 앞서 고향과 같은 정다움이 가슴 한구석에 깊숙이 자리잡고있는것을 직감했다. 덕지대의 밤은 무연한 고요속에 소리없이 깊어갔다.

4

어설핀 잠꼬리를 잡고 밤새 뒤척이다가 굳잠이 든 오숙은 날이 샅썩썩해서 별로 잠자리가 설렁한 느낌이 들어 언뜻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웠던 방옥이가 없었다. 당황한 눈길로 주위를 황황히 살피던 오숙은 탐탐히 포개여놓은 담요짚에서 쪽지편지를 발견하였다.

...오숙아, 내가 없어졌다고 떠들지 마. 난 먼저 조용히 떠나려나... 난 아직 철부지인가봐. 그렇게 치부해두는것이 오히려 마음편해. 오숙아, 이제 날이 밝으면 고동무가 자기들이 밤을 패며 성의껏 차려준 식탁에 불꽃없이 앉은 나를 살필게야. 차라리 그의 눈에 서글픈 인간으로 비치기 보담도 조용히 사라지는편이 나으리라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것이니 리해해다오. 오숙아, 정말 떠나자고 배낭을 메고 일어서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땀과 웃음과 눈물을 바친 땅이니. 그래서 다시한번 더 보자고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어서 야속하게도 우리의 귀중한 창조물은 이 나약한 방옥에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지 않고있구나... 그럼 오숙아, 진정 치 못한 나의 안정까지 다 안고 우리가 창조물을 일떠세우며 정들었던 이 땅의 마지막 밤과 뜨겁

게 포옹하려마. 그리고 이 방옥이도 어쩔수 없어 떠나가지만 이 땅의 어느 바위틈에라도 량심의 한조각을 묻어두고 떠나간다는것을 너만이라도 알아다오. 방옥...

오숙은 편지를 꼭 그려쥐었다.

흐느적거리며 걷히기 시작하는 안개발속에 몸을 잠근채 평길우에 망연히 서있는 오숙의 모습은 시름겨웠다. 발아래로는 30 리령길이 내려다보이고 뻗치면 손에 닿을듯 맞은편 둔덕에는 대선광장의 웅건한 자태가 굽어보고있었다.

사람들이 쏟아나왔다. 방금까지 돌격대식당에서 트바빠 돌아가던 정동무의 안해가 앞치마를 걷어쥐며 선참으로 달려나온다. 뒤미처 유금석소대장과 그밖의 소대원들이 나왔다. 오숙은 그들과 인사를 주고받았다. 유금석소대장이 주먹만한 종이봉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제 조업식날 첫 선광에서 생산한 쇠돌가루요. 내가 줄것이란 이밖에 없구만... 자 그럼 인사도 돌격대식으로 합시다. 난 아기가기한 인사치레는 질색이요. ...참 잊을뻔했구만. 집에 부치는 편지든 가던길에 역전체신소에 좀 넣어주오. 자, 그럼...》

유금석은 손을 내밀었다. 그러는 사이에 정동무의 안해가 발치에 놓인 오숙의 가방에 무엇인가 넣고있었다.

그 창황중에서도 오숙은 고창림이가 보이지 않는것이 마음에 걸리었다. 유금석소대장이 오숙의 등을 떠밀었다. 오숙은 자꾸만 흐려지는 눈길을 가다듬으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발치에 감기는 안개의 너울을 흐트러놓으며 허둥지둥 반달음쳐갔다.

오숙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그때까지 손을 높이 들고 흔들려주던 사람들을 일별하던 오숙은 그들과 좀 떨어져있는 부속건물벽 밑에 못박힌듯 서있는 고창림을 보았다. 그는 손을 높이 쳐들고있었다. 오숙은 줄지에 심장이 멎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아, 방옥아-)

오숙은 얼굴을 싸쥐고 령아래로 마구 내달렸다. 그가 온몸이 땀에 떠서 역전에 다달았을 때에 뜻밖에도 방옥이가 구석의자에 앉아 기다리고있었다. 오숙은 방옥의 두손을 잡았다.

...렬차는 푸른 파도가 기슭을 치는 동해안선을 끼고 질풍같이 내달렸다.

편지를 부쳐달라던 유금석소대장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고 렬차에 오른 오숙은 지금 착잡한 심정에 잡혀있었다.

(어떻게 할가?)

부지중 유금석의 고향에 들리고싶은 생각이 동했다. 어쩐지 동무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자책이 자꾸만 그들에게 그 어떤 선의를 보이게끔 충동질을 했던것이다. 오숙은 자기의 생각을 방옥이에게 비쳐보였다. 방옥이도 별로 생각해보는 겨를이 없이 인차 동의하는품이 자기도 그들에게 대한 좋은 감정만은 변하지 않은것 같다.

오숙이와 방옥이는 손님이 여러문명밖에 안되는 바다가마을의 한적한 간이역에서 내리었다.

조그마한 통통이기관선 한척이 동실 떠있는 좁은 포구에서는 비릿한 해감내가 바람에 실려오고 산경사지를 덮은 옥수수밭에서는 달크무레한 강냉이 꽃가루향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어데를 둘러보아도 정이 드는 아름답고 풍요한 어촌마을이였다. 유금석이네 집은 포구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의 아담한 문화주택지구에 자리잡고있었다.

다 자란 아들들을 둔 어머니들이 항용 그러하듯 인젠 결혼이 그리운 때를 지낸 유금석의 늙은 어머니가 처녀들을 따듯이 맞아주었다. 오숙은 의외로 칠순에 가까와보이는 년로한 어머니를 대하자 고향의 어머니를 만난듯 가슴이 훈훈해졌다.

이처럼 오붓하고 정다운 고향집, 아늑한 방아래목과 살뜰한 어머니를 유금석소대장은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따스한 이 모든것에 대한 애착을 초월한 그 무엇이 소대장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못을 결심을 적었음이 분명한 아들의 편지를 섣뚱 내놓을수 없었다.

어머니는 오숙이의 손을 잡아 방안으로 이끌었다.

《어서 오게. 우리 금석이하구 같이 일하다니... 그래 혼장들이랑 많이들 뵈구만...》 어머니는 처녀들의 가슴우에 반짝이는 락장을 어루만지며 대견함을 금치 못했다.

오숙은 어머니앞에 편지를 내놓았다. 결봉을 헤쳐 편지를 손에 든 유금석의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숙이더러 좀 읽어줄수 없냐고 간청했다. 오숙은 저으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되받아들었다.

...어머니, 오늘도 이 아들을 기다리실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노라니 고향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어차피 알려질 일이고 또한 자식된 도리를 지켜

야 하기때문에 전하려고 마음먹은것입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전 여기에 영영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절더러 남아있으라고 권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설이 끝나자 당에서는 저희들더러 인젠 집에들 가서 장가도 들고 살림도 펴라고 등을 떠밀어주나 다름없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이 은정깊은 사랑에 접하고나니 되려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면 여기로 새 사람들이 오겠는데 그들이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자면 또 얼마나 시일이 걸리며 그동안에 공들여세운 저 선광장은 누가 운영할것인가, 또 말끝마다 자기가 이룩해놓은 창조물이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헐사리 남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 그 소중한 창조물건설에 땀과 노력을 바쳤다면 과연 얼마나 바쳤겠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많은가. 합숙, 살림집, 학교, 병원 등도 우리 손으로 도시부럽지 않게 건설해야 한다는 량심의 목소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 여기에 남았어요. 인젠 번덕스러운 여기 날씨에도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강아지랑 토끼랑 가축들을 좀 장만해 두세요. 어머니를 위해 여기다 채마전도 한뼘기일꾸었어요...

오숙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글줄을 가까스로 이어나갔다.

오숙은 끝내 마감글줄을 더듬지 못하고 방옥이한테 넘겨주었다. 오숙은 조용히 어머니앞에서 물러나 웃방에 올라갔다.

(아... 나는 유금석소대장처럼 그 땅에 진정을 바쳤던가!...)

오숙은 간신히 가누고있던 몸을 꺾으며 결상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비로소 여태껏 느껴오던것과는 전혀 다른 예리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치명적인것이였다. 눈앞에 무수한 별씨가 날리면서 잊을수 없는 화폭들을 가슴아프게 펼쳐놓았다. 어린것을 품에 안고 천수백리 눈길을 헤쳐온 순박한 녀인이 궁지에 찬 웃음을 날리며 새끼 돼지를 안고 비오는 령길을 오른다. 어제는 돌격대식당에, 오늘은 전투장에, 래일은 또 어디에 그 오이씨같은 작은 발자국을 무수히 남기며 드바빠다닐것인가. 그러자 이번에는 아름이 빈 나무를 안은채 조각상처럼 망막속에 굳어졌던 유금석소대장이 금시 살아 움직이면서 또다시 생활의 터전을 탐탐히 다져나간다.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낮과 밤들이 꼬리물고 펼쳐진다.

불현듯 지척 어디선가 언니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숙아, 온 집안사람들은 너를 맞을 준비를 하고있단다. ...》

오숙은 외락 얼굴을 싸쥐고 도리질을 했다. 자신에 대한 견잡을수 없는 마음으로 온몸이 단죄처럼 달아올랐다.

(그래 내가 그 땅을 그렇게 헐사리 떠나오다니... 나같은 인간이 정말 그 소중한 창조물에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쳤다면 과연 얼마나... 아...)

오숙은 황망히 고개를 내저었다.

이튿날아침이였다. 금석의 어머니가 한사코 자고자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온돌방에서 뼈가 묻어지도록 자고난 방옥이는 하얀 이부자리를 걷다 말고 반쯤 돌아앉아 머리를 가다듬고있는 오숙의 두팔을 덥석 잡았다. 놀라움에 찬 방옥이의 눈길이 오숙의 얼굴에 경황없이 헤뎌버쳤다,

《아니, 네 얼굴이 왜 그모양이니? 응?... 어마나... 하루밤사이엔 어찌면... 너 어데 아프니? 응?... 여직껏 앓지 앓던 내가... 어서 말해라...》

방옥이는 오숙의 팔을 마구 나꾸어쳤다. 밤새 고민과 번민으로 하여 충혈진 눈을 들어 놀라움에 찬 방옥이의 눈을 바라보는 오숙의 얼굴에는 석양녘에 핀 한송이의 나리꽃처럼 따뜻한 평온이 깃들었다. 모진 아픔끝에는 정화라는 안정세계가 뒤따르는 법인가싶었다.

《네 말이 옳다. 어제밤만은 널 속였어. 욕하지마. ...난 아무래도 은룡덕에 다시 가야겠어... 아니 영원히말이야...》

오숙은 방옥이의 두손을 살며시 끄당겨잡으며 뇌이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 넌 무슨 룡담을?》

방옥이는 오숙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아니, 이견 룡이 아니다.》

오숙이의 사려깊게 빛나는 눈길을 마주 보고서야 방옥은 백없이 손을 떨거었다.

《그게 룡말이 아니라면 넌 여태 유금석동물 사랑한게로구나... 그 감정을 자기자신에게도 숨기려 했었지...》

《...아니, 아닐거야!...》

오숙은 이렇게 거둬 중얼거렸으나 두볼에는 애뜻한 사랑의 홍조가 붉게 떠올랐다.

얼마후 두 처녀는 어머니의 바래움속에 역으로 나갔다.

마침 서로 방향이 다른 렬차가 동시에 좁은 역구내를 메우며 들이닥쳤다.

방옥이는 불안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오숙이를 바라보았다. 바다가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초조와 불안 속에 북행렬차에서 먼저 발차신호가 울랐다.

오숙은 그냥 팔에 매달리는 방옥이를 정답게 바라보며 렬차에 뛰어올랐다.

《방옥아-!》

오숙은 승강대를 부여안았다.

×

그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따뜻한 해별이 쏟아져내리는 정오녘이었다. 오숙은 지금 산나리가 다문다문 피어난 돌서덜비탈길을 치달아 오르고있었다. 열흘전에 자책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도중에서 되돌아왔으나 돌격대원들은 작별하던 그날로 원목을 채벌하러 림지로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대원들을 만나지 못하고있던 오숙은 방금 그들이 원목을 만재한 자동차들을 타고 림지를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그들을 마중가는 걸음이었다.

오숙의 마음은 하늘을 날듯했다. 아침에 그동안 집에 가있던 방옥이한테서도 편지가 왔었다.

자동차길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등성이에 다달은 오숙은 고창림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다시 방옥이의 편지를 펼쳐들었다.

...오숙아, 난 어쩌면 이 글을 이렇게도 비싼 대가를 치르거야만 쓸수 있니... 한때에 것처럼 경멸하던 그 눈물이 어쩌면 나에게도... 세상에 해롭게 녀자들의 눈물인가싶어. 하지만 그만큼 눈물로 자기의 랑심을 닦달질하여 깨끗해지기를

바라는것이 우리 녀자들이 아니겠니? 그 눈물로 난 오늘에야 시대앞에 떳떳한 자기를 찾은듯싶어 ...

오숙아, 내 인젠 더는 눈물을 쏟지 않겠다. 내 이제 다시 밭을 그 땅에서 송사리떼가 꼬리를 치고 조약돌들이 다복이 깔린 하얀 빨래터에서 너의 품에 안겨 실컷 울겠어 ...

고창림동무도 이제 보면 평시처럼 그렇게 다정히 불러주지 않을테지. 그런 예감이 몹시도 나를 괴롭히누나. 고동무의 진정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했던가를 좀더 일찌기 깨달았어야 했을걸...

이때 끝안을 울리며 여러대의 자동차가 먼지 구름을 말아올리며 달려왔다.

오숙은 나리꽃모양이 돋친 빨간 머리수건을 높이 쳐들었다. 여라문명의 돌격대원들이 탄 적재함우에서 한 청년이 오숙을 알아보고 손을 들어보였다. 유금석이었다. 순간 오숙은 눈앞이 뿌연게 흐려왔다. 그는 눈을 슴벅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돌려 선광장지붕을 떠피이고 서있는 강철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밑에는 한떨기의 산나리가 유난히도 붉게 타고 있었다.

고전시

들소의 노래를 지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원감

들소여, 길들이기 어려운것
그대의 천성이거니

부드러운 풀 무성한 들에
자유로운 네 몸 있었더라

네 어이 꿈엔들 알았으랴
코투레 꿰일줄을

끌려오고 끌려가는 네 신세
주인의탓이노라

(권택무 역)

기다리는 계절

차신덕

맵짠 날씨였으나 한낮이 되자 정답게 내려찍이는 눈부신 햇빛에 녹아 흰눈 덮인 야산의 양지쪽은 얼룩소잔등같이 흙이 거뭇거뭇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길옆에 있는 강기슭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기슭에는 가지가지 꽃들이 피어난듯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솜옷을 입고 하나같이 토끼털모자를 눈두덩까지 꼭 눌러쓴 동네아이들이 웬일인지 스케트며 썰매를 둘러메고 시무룩이 서있는 것이었다.

그속에는 나의 조카애도 끼여있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서있니?》

나는 조카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뭐가 그리도 못마땅한지 능금알처럼 빨그스름한 얼굴을 찌프리고있던 그 애는 토끼털모자 귀덮개를 올리면서 《눈보라가 썩썩 불어야 유리판같이 멎지게 언 얼음판에서 스케트를 탈수 있겠는데...》 하고 볼부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

겨울날... 행복한 우리 새세대들의 폐사로운 생활에서 불현듯 못견디게 가슴이 뜨거워진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날씨가 추워지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갈망, 추위에 보기 좋게 언 얼음판에서 신바람나게 스케트를 타려는 아이들의 욕망...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새세대들의 희망차고 즐거운 생활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청년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추위를 기다리는 아이들앞에서 가슴에 안겨오는 것은 행복과 더불어 우리 부모들이 겪은 저주로운 지난날의 가슴쓰라린 겨울날이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걸어온 발자취였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빈 사과상자에서 떼낸 상표며 신문지조각들로 더덕더덕 덧붙인 문창호지에 눈가루를 휘뿌리는 겨울이었다.

《추운 겨울이 짝 없어지고 따스한 여름만이 있었으면...》

아버지는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누대기이불속에 기여들어가 멀건 시래기죽으로 속여넘긴 창자를 그러안고 하루해를 보내곤했다. 그러느라 냉이 뿌리라도 배를 채워주곤하는 봄철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계절은 동심만은 속일수 없어 자꾸만 어린것을 얼음판으로 불러냈다.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노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나의 아버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썰매를 둘러메고 얼음판으로 나갔다.

토스레옷에 붙은 얼음고드름, 해진 짚신에 스며드는 차디찬 눈, 눈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추위에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우는 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방울은 얼굴에 얼어붙었다.

동지날 추위에도 장독과 어린아이는 얼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가난뱅이한테 추위도 원쑤인데 넌장 집구석에 꼭 들어박혀있을게지 싸다니기는 왜 싸다녀.》

꽤 하고 퍼붓는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였다.

서발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없는 가난이 웅크리고앉은 썰렁한 오막살이안에 떠도는 깊은 한숨소리... 모름지기 그 한숨소리는 모진 세월에 대한 저주를 애꿎은 자식에게 퍼부은탓에 흘러나온 가슴허비는 뉘우침이 아니던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읍으로 나무팔러 가던 할아버지는 머리에 감았던 낡은 무명수건을 벗어 아버지의 머리에 동여매주고 뒤축이 빠진 자기의 버선을 벗어 아들의 발에 신겨주었다. 혹독한 눈바람은 나어진 아버지의 토스레옷자락을 날렸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앞섰던 해진 두루마기를 벗어 아들의 몸에 씌워주었다.

얼음판에서 털외투를 입고 썰매를 타던 지주집 아이들이 소리치며 웃어댔다.

《저 저지새끼봐라. 제 애비 헌누데기를 걸친게 꼭 허수아비갈네...》

부자집자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아홉살난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추위를 다소나마 막아주는 할아버지의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얼음판으로 썰매를 내몰았다.

그날저녁 읍에 장보러 갔던 사람들이 온몸이 찻찻하게 언 할아버지를 업고왔다. 한많은 원한에 푹 부릅뜬 두눈밑에는 눈물방울이 얼어붙었고 버선대신 마른 잔디풀을 뜯어 감싼 발은 얼어터져서 피가 엉켜있었다.

할아버지의 피춤에는 아들에게 주려고 산 자그마한 고무신 한켠레가 끼워져있었다.

《아버지, 다시는 얼음판에 나가지 않을게 눈을 떠요.-》

추위에 떨면서도 철없이 썰매를 타러 나간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두루마기와 무명수건, 버선까지 벗어주고 나무팔러 갔다가 길가에서 얼어숨이 진 할아버지를 흔드는 아버지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사나운 눈보라도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왜놈의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울부짖음이

얼어붙은 강산에 메아리치던 그 수난의 옛시절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런데 얼마전 방송에서는 서울 룡북구 하수도
구멍앞에서 60 고령의 늙은이가 현누데기를 걸친
자기 몸의 온기로 덮일수 없어 여섯살난 손자를
껴안고 얼어죽었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한 아이가 양지쪽울타리밑에서 얼
어죽었는데 아이 발밑에는 나무꼬챙이로 이렇게
씩여져있었다고 한다.

《냉이꽃 피는 봄날이 어서 왔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추
운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자라는 우리 새세대
들이 얼음판에 나와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각, 한강토, 한하늘아래인 남녘땅에서
는 사람들이 얼어죽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은 그 자연지리적 위치로 하여 북조선보
다 오히려 날씨가 훨씬 덥다.

겨울-추운 겨울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변함없는 공전에 의해 해마다 빠짐없이 찾아온
다.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고 강물이 얼고 눈보라

가 기승을 부리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해마다 찾아드는 이 계절은 사회제도에 따라 서
로 달리 사람들에게 감수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스민 털외투를 입고 털신발을 신고 털모
자를 쓰고 솜눈우에 발자국을 찍고싶어 추운 겨
울을 바라는것이다.

아이들이 입고있는 붉은색, 푸른색, 연분홍색
솜옷... 털모자, 털장갑, 털신... 강기슭에는 때아
닌 꽃이 울긋불긋 핀것 같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싶
어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태양의 열도 막지 못하는 겨울추
위를 몰아내여 우리들은 추위를 모르고 지내고있
다.

하기에 복받은 우리 새세대들에게는 겨울의 추
위가 없다. 영원히...

지금 추위에 떨고있는 남녘의 어린이들에게도
기쁨이 무르녹는 겨울은 오고야말것이다. 그날을
앞당길 불같은 일념으로 나의 가슴은 후터워졌
다.

가사

남조선 혁명가의 노래

김경기

어두운 남녘에 러명을 불러

투쟁의 날이 밝는다

파쑸의 광풍이 몰아칠수록

혁명할 결심은 더욱 불타네

이 길이 멀고 준엄하다고

가는 길 되돌아서라

통일혁명은 꼭절 많아도

주체의 신념 굽힘없어라

캄캄한 남녘에 어둠을 태울

혁명의 불이 되리라

억압의 철쇄를 뿌드려부실

민중의 억센 마치가 되리

우리의 향토성 그 빛발따라

민중의 새 세상 동터오리라

내 고향 외 1 편

박성선

내 때없이
눈앞에 보이는
고향산천은
언제나 새로워

진달래 붉은 동산도
잔디 푸른 언덕도
어쩌면 그리도
눈에 삼삼합니다

불비가 내리던
그 전호가에서도
눈앞엔
고향산천이 있었습니다

들끓는 건설장
내 위훈을 새기던 그날에도
고향산천이
조국을 받드는 힘을 주었습니다

고향은 천지개벽되고
내 거기서 자란 검은머리
먼곳에서 희어졌어도
어머니처럼 변함없는 고향산천

해종일 자맥질에 즐거웁던
송아지 벗들도
거기에 아이적 그대로
오늘도 있는듯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 아니게셔도
젊디젊은 그 모습만이
오늘도 거기에 보이옵니다

단발머리 선생님앞에
내 처음 두발 모아 섰던곳
철없던 그날에 심은 살구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곳

내 마음속에
항시 있는 고향
티없이 천진했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머물러있는 고향

아 꿈에도 보이는 고향은
나를 낳아주었지만
오늘도 조국에 바치는 진정을
가슴속에 새로이 주는 고장입니다

어머닌 글 한자 모르셨어도

어머닌 글 한자 모르셨어도
나에게 많은걸 배워주셨네

장군님 초상화를 처음 모실 때도
-우린 장군님 덕분에 잘산다

준엄한 전화의 날 전략적 후퇴의 갈림길에서도

-우린 장군님을 따라가야 산다

벌써 오래전 세상을 떠나던 그밤에도
-우린 장군님을 높이 모셔야 잘산다

아, 삶의 공식, 법칙같은 그 말
그 어느 교수, 박사의 강의에 비기오리까